

M 45-107 | 2009. 7 |

제 107 호

---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09. 7

---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명기 부연구위원 mkleee@krei.re.kr TEL 02-3299-4166 / FAX 02-962-7312  
노호영 연구원 rhy81@krei.re.kr TEL 02-3299-4130

# 목 차

## 농업 · 농정 동향

- 3 OECD-FAO 농업전망 2009~2018(1)
- 17 미국 유기농 산업의 최근 이슈
- 29 일본의 주류제도와 산업실태
- 47 중국 산둥성 채소 생산 및 수출실태
- 57 몽골의 농업

## 세계 농산물 수급 · 가격 동향

- 71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9.7)
- 79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9.7)
- 91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9.7)

## 세계 농업 브리핑

- 107 세계 농업 브리핑 (2009.7)

## 세계 농업 통계

- 137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 140 세계 각국의 유기농업 현황



# 농업·농정 동향

OECD-FAO 농업전망 2009 ~ 2018(1)

미국 유기농 산업의 최근 이슈

일본의 주류제도와 산업실태

중국 산동성 채소 생산 및 수출실태

몽골의 농업

# OECD-FAO 농업전망 2009~2018(1)\*

반헌정

2009년 OECD-FAO 농업 전망 보고서 작성은 예상치 못한 세계경기 침체로 쉽지 않았다. 이번 농업 전망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고려하였지만 주요 기관에서 전망 보다는 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였다. 거시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세계 많은 지역에서 GDP가 감소한다는 것과 OECD 국가들이 2010년에 경제 성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경제가 회복된다면 전망의 남은 기간 동안에는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1. 서론

2008년, 세계적 식품 가격 급등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위기는 이러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앞으로 수 년 동안 식품 시장과 농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전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 급등이라는 충격은 국제 시장의 미래 신뢰도 즉, 미래에 적절한 가격으로 식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식품 가격이 그 후로 상당히 하락하였으나 그 여파는 2009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국제 금융 시장의 침체와 뒤이어 일어난 경제 위기는 이러한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앞으로 수 년 동안 식품 시장과 농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높은 가격의 즉각적인 여파로 세계 농업이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 가격의 상승은 농부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여 농산물 생산을 늘리라는 신호를 주어 그 결과 곡물 부문의 세계 산출량이 7% 정도 상승하였다

\* 본 내용은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9-2018, Highlight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헌정 연구원이 발췌 번역한 것이다.(ban0530@krei.re.kr, 02-3299-4307)

다. 그러나 높은 국제 가격이 모든 지역의 생산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이 모든 농부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산출량 확대는 13%를 상회하지만 개도국은 2%에 미칠 뿐이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생산의 증가가 없었다는 것은 특히 개도국 중심으로 정책 개혁과 생산적인 농업에 대한 추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저개발국에서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나라들은 기본적인 식품의 순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는 계속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국내 생산 증가율이 수요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더 낮은 경제 전망과 에너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곡물의 경우 최고를 기록한 2007~08년보다는 낮겠지만 1997~2006년 평균보다는 명목 가격뿐만 아니라 실질 가격도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축산물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실질 가격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과 그림 2 참고).

지난 해 높은 가격으로 생산이 증가하였지만 개도국을 비롯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로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림 1 주요 식품의 명목 가격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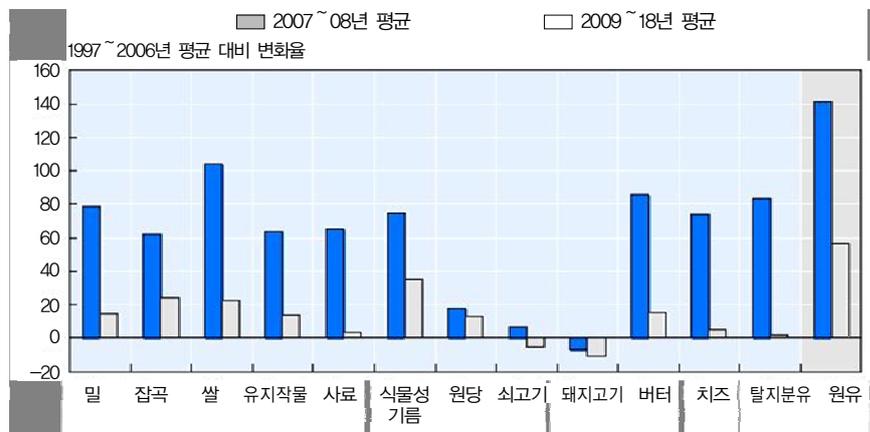
치즈, 탈지분유, 버터, 쌀, 밀의 생산자들은 2007~08년과 비교하여 평균 가격의 상당한 하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0년 동안의 명목 가격은 1997~2006년의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식물성 기름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명목 가격은 1997~2006년 수준보다 평균적으로 20% 또는 그 이상 상승할 것이다. 최근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명목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원유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1997~2006년과 비교하면 평균 가격이 거의 2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쇠고기, 돼지고기를 제외한 제품의 실질 가격은 1997~2006년 평균 수준보다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돌아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곡물 가격을 추가적으로 20~30% 정도 올릴 것으로 보이고 10% 이하의 축산물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실질 가격의 평균은 최고점을 기록한 2007~08년 수준보다 많이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큰 하락을 겪을 것으로 기대되는 곡물은 쌀, 밀, 버터, 치즈와 탈지분유이다. 그러나 전망 기간 동안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제외한 제품의 실질 가격은 1997~2006년 평균 수준보다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원유의 평균 실질 가격은 2007~08년의 최고점보다는 상당히 아래이지만 1997~2006년 평균 수준보다는 60%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주요 식품의 실질 가격 변화율



중기적으로 이번 전망에 포함된 모든 제품의 공급은 세계적으로 10% 또는 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농산물 소비 증가는 인구가 더 많고 소득이 증가하여 개발되는 지역을 위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7~08년 기간 동안 대부분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 것과 기후변화가 농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미래 식품 유용성(availability)에 대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잠재적인 불확실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이번 전망에서 포함된 모든 제품의 공급은 세계적으로 10% 또는 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8년 축산물과 식물성 기름의 세계 생산은 2006~08년 평균보다 40% 이상 증가하고 유지작물, 가금류, 버터와 전지분유는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밀과 잡곡을 제외한 농산물 생산이 선진국에서 개도국, 특히 신흥국과 중간 소득 나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육류와 유제품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농산물 소비 증가는 인구가 더 많고 소득이 증가하여 개발되는 지역을 위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6~08년 기간 동안의 평균 소비와 비교하면 개발도상국의 사료 사용은 2018년에 거의 60% 증가하는 반면 버터와 가금류 소비는 50%, 식물성 기름의 소비는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곡물 생산과 소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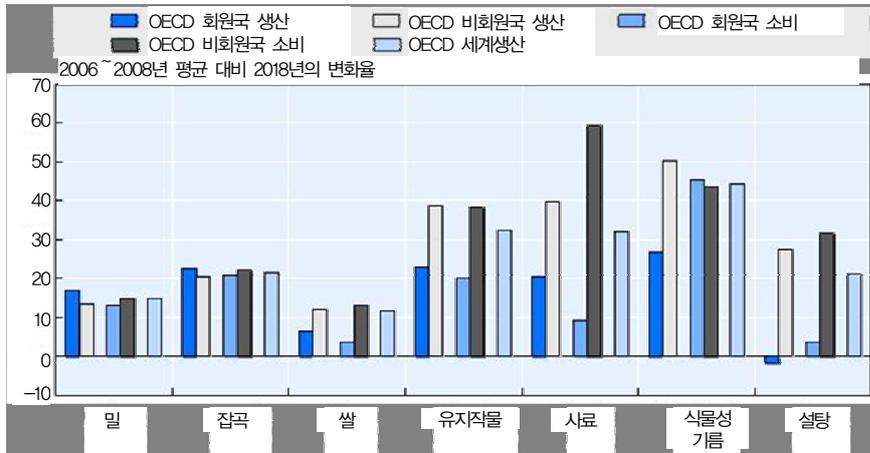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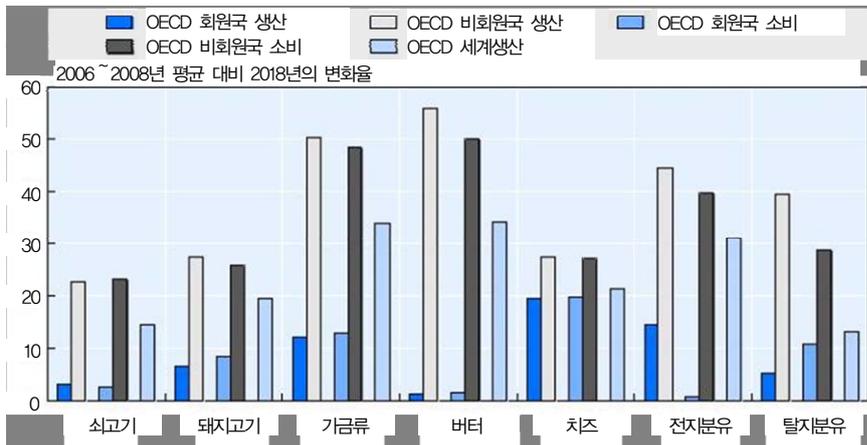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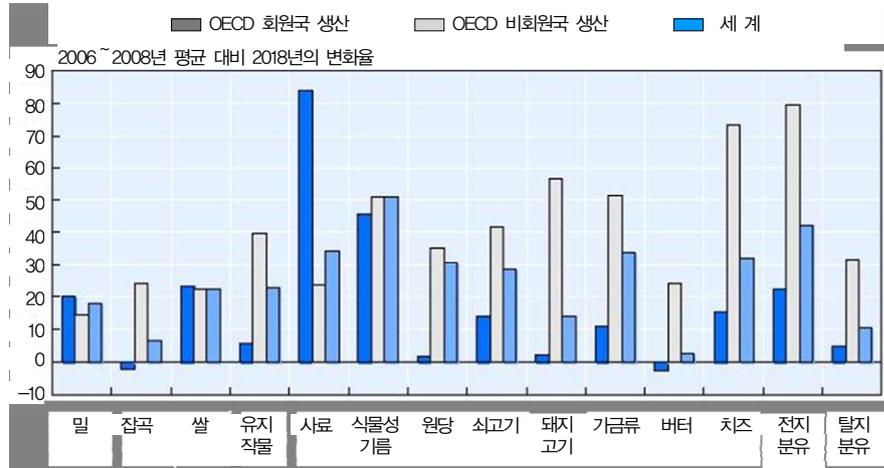
그림 4 축산물 생산과 소비 증가율



세계 생산과 소비 전망을 고려해보면 세계 농산물 시장은 상대적 이점을 활용하는 새로운 수출국의 등장이 새로운 특징이 될 것이다. 그림 5는 2006~08년의 평균 수출에 대한 2018년 수출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10년 동안에는 수출 확대에 따라 준비된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위주로 상품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2006~08년 평균과 비교하면 OECD 국가들로부터 수출되는 버터와 잡곡은 2018년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밀, 쌀, 특히 사료 수출의 상당 부분은 OECD 국가가 담당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OECD 비회원국가는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와 같은 식품과 가치 부가형 농산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OECD 비회원국가는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와 같은 식품과 가치 부가형 농산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그림 5 수출 증가율



## 2. 상품 시장의 주요 동향

### 균형을 회복한 곡물 시장

2008년의 생산량 및 재고 증가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 세계 곡물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곡물의 생산량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외적으로 높은 산지 가격과 유리한 재배 조건으로 2008년에 전세계 농민들은 밀과 잡곡에서 최고의 생산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시장이 안정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곡물 재고를 높여주었다. 이와 같이 높은 재고량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2009년에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곡물 시장이 보다 정상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해줄 것이다. 전망기간동안의 곡물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단수를 높이는 투입재에 대한 지출을 늘리거나 또는 필요한 경작지를 새롭게 확보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킬 경제적 유인을 주지 못한다. 대신 상대가격의 변화는 기존의 토지와 자원이 곡물 및 유지작물 중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작물로 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곡물의 생산량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수 증가율도 지난해에 필적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농산물의 1인당 수요 증가추세가 감소하는 것은 밀과 쌀 시장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다. 식품으로써 소비하기 위한 곡물 수요는 가구의 소득 감소에 탄력적이지만 이와 달리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옥수수과 밀의 수요, 가축 사료용 곡물 수요 등은 정부정책이나 거시경제적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 동안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미국의 옥수수 수요와 유럽의 밀 수요는

식유 제품과의 경쟁보다는 의무사용량, 세금 면제, 다른 형태의 정부 보조 등의 지지를 받았다.

## 밀과 잡곡

국제 곡물 교역이 성장하리라는 전망은 확고하지만 경기침체와 유동성 제약으로 몇 년 뒤의 성과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다가올 10년의 초기에 시장이 조속히 회복된다고 가정하면 세계 밀 교역은 10년의 남은 기간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거의 2%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현재 미국, EU, 호주가 세계 밀의 주요 공급국이지만 이 전망의 말미에는 CIS 국가들이 밀의 주요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과 동아시아, 남아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은 국제 밀 수요 증대에 계속해서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액의 생산 보조금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정책의 변화를 볼 때 주요 수입국으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요와 수입(import)의 증가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와 1인당 소득의 전반적인 증가로 일어나고 있는 식품 시장의 성장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밀의 1인당 소비 증가는 그리 크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 등에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에서도 자주 나타나던 것처럼 이러한 현상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가 더 높은 식품에 선호를 두기 때문이다.

잡곡은 지난 10년의 기간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로 교역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잡곡의 국제 수요 증가는 개발도상국의 축산업 사료 수요 증가에 크게 기인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수입이 9,700만 톤까지 성장하여 선진국들의 감소 추세를 상쇄하며 전세계 수입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쌀

2008년도의 높은 쌀 가격은 쌀의 전 세계적인 정치적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6~08년 동안 국제 시세가 두 배가 되는 데에는 수요 공급의 구조보다 무역 규제, 정부 개입이 더 큰 역할을 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만들어진 부조화된 정책의 개입은 국제 쌀 가격과 변동성을 높이는 데만 기여했다.

정부의 지지 강화는 2007, 2008년 쌀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제적 유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쌀 경작이 확대되었다. 쌀 재배 증대 경향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망의 말미에는 각국의 조정으로 현재의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생산자

쌀 재배 확대 경향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망 말미에는 각국의 조정으로 현재의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이 조속히 회복된다면 그 이후에 세계 밀 교역은 매년 거의 2%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잡곡은 지난 10년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로 교역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은 생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상업적 쌀 경작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쌀 경작에 적합하며 사용 가능한 땅을 많이 보유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경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은 쌀 경작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생산 감소는 부분적인 조정으로 지난 10년보다는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곡물들과 마찬가지로 쌀도 생산성 향상이 예견되는데 이로 인해 2018년까지 쌀 생산이 9% 늘어나는 등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쌀은 여전히 주요 식품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전 세계의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특히 아시아에서 주요 작물인 쌀은 소득 증가와 식생활 다양화로 전망 기간 동안 1인당 소비가 2kg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역에서의 쌀 수요 증대는 교역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책 개혁으로 생산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한 EU를 비롯한 OECD 국가의 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의 수출국들과 더불어 동남아시아의 몇몇 최저개발국들이 세계시장의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규제하려는 정부 개입은 쌀의 국제 무역과 가격 형성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높은 가격은 세계 쌀 재고가 전망 기간 동안 상당히 증가할 것이지만 재고가 1990년대 후반처럼 아주 높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시사한다.

## 유지작물 및 식물성 기름

경작가능한 모든 작물 중 유지작물 시장이 가장 많이 확장되어 전망 말미에는 세계 생산이 지난 20년 동안의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작지 재분배, 방목지 다각화, 새로운 경작지 사용 등에 힘입어 브라질, EU, 아르헨티나에서 집중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남아메리카의 불리한 기후 상태, 농장의 유동성 문제 등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 유지작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 지역들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브라질의 세계 수출 비중은 2009~2018년 기간 동안 30~39%에 이르러 현재 선두인 미국을 추월하여 유지작물 수출의 선도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물성 기름의 증가추세는 유지작물 생산 증가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유지작물 가루는 식물성 기름의 수요를 계속 따라갈 것이다. 지속적인 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유지작물과 야자나무로 만들어진) 식물성 기름은 이번 전망에서 소비가 가장 빨리 확대되는 상품으로 남을 것이다. 예상되는 수요증가의 대부분은 세계 수요 증가의 2/3를 차지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에서 기인했으나

모든 작물 중에 유지작물 시장이 가장 많이 확대되어 전망 말미에는 세계 생산이 지난 20년 동안의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물성 기름의 증가추세는 유지작물 생산 증가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연료의 의무 사용량 증가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 원료로써 식물성 기름의 상대적 중요성은 화석 연료 가격에 대한 바이오디젤의 수익성과 정부의 바이오연료 지지 정책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환경에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 분야 발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러한 우려는 바이오 연료 정책에 있어서 의무 사용량을 없애거나 낮추도록 할 수 있다. 이번 전망의 말미에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식물성 기름의 파생 수요가 전 세계 식물성 기름 소비의 20%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 설탕

지난해 설탕 가격은 다른 품목과 달리 높은 가격이 아닌 높은 변동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원유나 다른 상품의 전망 등 설탕과 관련 없어 보이는 많은 요소들과 설탕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 화물 운임률 상승, 설탕 선물 시장의 실적은 설탕 가격과 변동성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설탕 시장은 전통적인 시장 구조에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추가되면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북아메리카, EU와 같은 주요 생산 및 교역 지역에서 설탕 부문의 정책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전망은 다소 정확하지 못할 수 있다.

고수익이 예상되는 다른 작물들의 경작면적이 기준연도에 비해 축소된 이후 사탕수수 경작지가 확장되고 결합 산출물이 증가(2018년까지 2%)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인 설탕 생산에 경작지가 얼마나 더 투입될지는 세계 설탕 생산 및 수출을 선도하는 브라질이 에탄올 생산에 사탕수수를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편 EU는 정책 개혁으로 경작지가 급격히 축소되어 사탕무 생산이 많이 증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량된 설탕 품종의 채택으로 지난 10년과 비교하면 느리지만 이번 전망 기간 동안 생산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탕은 다른 작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 가격에 의해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고 소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009년의 유례없는 세계 금융 위기와 경기 하락은 1인당 소비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기적으로 설탕을 사용하는 간편한 식료품의 증가와 인구 증가로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OECD 국가는 인구 증가세가 하락하고 있으며 비만 및 건강에 대한 염려가 심화되어 설탕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식습관이 변화하고 있어 설탕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망에서 실질적으로 세계 설탕 생산과 소비 증가의 모든 부분은 OECD 비회원국에서 일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전체 시장의 생산과 수출에서 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에는 약 80%까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설탕 시장은 전통적인 시장 구조에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추가시키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이번 전망에서 실질적으로 세계 설탕 생산과 소비 증가의 대부분은 OECD 비회원국에서 일어난다.

EU는 구조적 개혁으로 사탕무와 설탕 생산이 매우 많이 축소되어 세계 설탕 수입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EU의 설탕 수입은 주로 경제적 협력 협정을 맺은 아프리카, 캐리비안, 태평양 국가들과 Everything-But-Arms Initiative<sup>1)</sup>를 적용하는 최빈국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국가들 중 상당수는 수출 능력과 경제적 유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의 감미료 시장은 NAFTA에 의해 2008년에 멕시코로 완전히 통합되었고 미국은 새로운 다년간의 농장법(FCE act)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것은 NAFTA 회원국인 멕시코로부터의 설탕 수입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시장의 가격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이 설탕의 주요 순수입국으로서 다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비용이 낮고 추가적인 땅을 생산에 사용할 잠재능력이 있는 브라질은 전망 기간 동안 설탕 생산이 36%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수출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생산은 에탄올과 설탕의 상대적인 가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2018년까지 사탕수수의 60%가 에탄올로 전환되는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육류

지난해 육류 가격도 예외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는 사료 비용의 상승으로 한계 이윤이 하락하여 빚을 빨리 청산하기 위해 축산업자들이 육류 공급을 증가시켜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류 가격이 오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기 침체로 전 세계 구매력이 감소하여 수요가 위축된 것 때문이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라고 볼 수 있다. 예산 감소에 직면한 소비자들은 가격이 높은 고기를 덜 비싼 육류제품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가 반등된 이후 육류의 특징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생산과 소비 증가, 시장이 성숙한 OECD 국가의 더욱 안정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보다는 느리지만 세계 전반적으로 매년 2% 이상의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OECD 비회원국들의 육류 생산 증대는 OECD 국가의 2배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생산 증가의 87%는 OECD 비회원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 증대, 인프라 개선, 현대화 도입, 생산 기술의 집중화 및 통합화는 OECD 비회원국의 높은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 경제의 가금류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육류의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CIS 국가들도 이에 해당된다. 그 결과, 브라질 같은 몇몇 신흥국들은 국제 육류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그 존재가 상당히 부각될 것이다. 질병 통제, 정책 개혁, 풍부한 토지 자원, 자본,

경기 침체가 반등된 이후 육류의 특징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생산과 소비 증가, OECD 국가의 더욱 안정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회원국들의 육류 생산 증대는 OECD 국가의 2배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최빈국과 개도국에게 각종 경제개발사업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기술이 결합되어 전망의 말미에는 전 세계 육류 수출의 1/3을 브라질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과 함께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를 포함한 소수의 주요 수출국들은 세계시장의 주요 교역국으로 남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U는 정책 개혁과 국내 소비 증가로 수출 점유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도상국은 구매력이 회복되면서 기존의 채소 위주 식단에서 육류나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식습관이 변화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육류 소비는 세계 성장 전망치의 약82%를 차지하며 성장의 대부분은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장은 가금류와 돼지고기 등 저렴한 동물성 단백질의 소비 증가로 이루어질 것이다. 신용 위기로 인해 특정 지역의 육류 교역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육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수요가 국내 생산 능력을 초과하여 육류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망에서 육류 수요에 대한 또 다른 발견으로는 소비자 선호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시아 등 돼지고기 소비가 높은 국가에서는 다른 육류보다도 돼지고기 소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쇠고기의 중요성이 높고 국제 시세가 자국 생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쇠고기가 계속하여 선호되는 품목으로 남을 것이다.

## 낙농제품

2007년에 높은 수준이던 낙농제품의 가격이 하락한 것은 시장 가격 신호에 대한 OECD 국가의 반응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농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식품 제조업자들이 저렴한 낙농 원료를 사용하여 수요가 빠르게 재조정되었다. 또한 높은 낙농제품 가격은 즉각적인 공급 증대를 가져와 가격은 떨어지고 식품 제조과정에서 낙농제품 조달 신뢰는 회복되었다.

경기 침체는 낙농제품 가격이 더 떨어지게 하는 압력이 되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수요와 가격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낙농제품 수요 증가는 소득과 인구 증가율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다른 요소들 즉, 경제 성장에 의해 진행된 도시화로 발생하는 선호의 변화, 식습관의 변화, 식생활의 다양성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제품의 유용성과 소매 판로를 확장시키며 낙농 시장이 더욱 성장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낙농제품은 이번 전망 기간 동안 소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농산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 기간 동안 증가하는 우유 생산 부문에서 OECD 비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1%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환경과 수자원 제약으로 젖소 재고가 확대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보이고 우유는 단수 개선으로 성장할 것으로

낙농제품은 이번 전망 기간 동안 소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농산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된다. 우유 생산 증가의 상당부분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을 포함한 아시아 덕분으로 이는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남아시아의 버터 생산 확대와 중국 등 동남아시아의 전지분유 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브라질도 전지분유를 많이 생산하여 세계 낙농제품 생산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터와 전지분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세계 낙농제품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정책의 개입이 생산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EU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우유 생산 쿼터 시스템(효율적인 우유 생산자 확대에 기여)을 2015년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2008년 US farm Act 조항에 따라 우유 생산자들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그 결과 OECD 국가의 추가적인 우유 생산 중 4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호주의 젖소 재고는 정상적인 계절 조건 회복과 호주 낙농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7년 만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는 것은 미래 수자원의 유용성에 달려있다.

세계 낙농 시장은 교역의 확대가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황을 겪는 시장으로 분류될 것이고 주요 생산국의 공급 조정에 의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모든 낙농 제품의 수출은 뉴질랜드, 호주, EU, 미국 등 전통적인 OECD 수출국들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는 몇몇 개발도상국에 의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낙농제품 교역은 전지분유와 부가가치 상품 위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인 수출 강국에 도전할 기회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 Mercosour(남미공동시장)에게도 있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그 비용은 그 외의 OECD 주요 3대 수출국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낙농제품 6대 수출국은 세계 시장의 절반 이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이 세계 전지분유 교역의 96%, 버터 교역량의 57%, 치즈 수출의 44%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OECD 국가들의 낙농제품 무역적자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것은 수년 내에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게 될 도전으로 보인다.

##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는 국가 운송부문에 바이오 연료의 최소 사용량을 설정하거나 혼합 요건을 설정하는 등의 정량적인 의무사용에 의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이오 연료 생산은 국가 운송부문에 바이오 연료의 최소 사용량을 설정하거나 혼합 요건을 설정하는 등의 정량적인 의무사용에 의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래서 원료 가격, 원유 가격, 의무사용량을 제외한 정책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첫째는 2세대 바이오 연료의 상업화 추진이고 둘째는 식품 안전성, 바이오 연료의 경제성, 환경 문제와 관련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바이오 연료의 의무사용을 포기하는 것이다.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은 예외로 하고 바이오 연료 공급의 상업적 실행가능성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생산비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료 가

격 약화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원유 가격이 더 하락하여 바이오 연료가 화석 연료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망 기간 동안 공공 부문의 지원정책이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될 것은 명백하다.

바이오 연료의 수송용 연료 혼합과 같은 의무적인 수요 증가에 의해 세계 바이오 연료 생산은 기준년도의 2배를 초과하여 2018년까지 1,920억 달러(에탄올 1,480억 달러, 바이오디젤 44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망은 최근 원유 가격이 하락한 것과 미래에는 완만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미국은 에너지 독립, 안보를 위한 법률과 재생 가능한 연료 기준의 통과 및 정책 집행으로 2018년까지 국내 에탄올 증류소에서 2008년보다 83% 상승한 630억 리터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 있지만 전체 바이오 연료 사용량은 지난해의 의무사용량 이하인 240억 리터에 머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셀룰로오스 화합물 에탄올도 54억 리터만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까지 265억 리터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한편 2020년까지 수송 연료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EU에서는 전망 기간 동안 에탄올 생산량이 가솔린 연료 사용량의 평균 6.6%에 이를 정도로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 수입된 에탄올은 의무사용량을 충족시키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전망 기간 말미에는 수입량이 30억 리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의 에탄올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주도형 분야로 다음 1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9%의 생산 증가를 보일 것이다. 사탕수수즙은 에탄올의 가장 저렴한 주요 원료로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이고 2018년에는 브라질의 교역량이 130억 리터에 달하여 국제 시장의 경쟁력있는 공급 원으로써 남게 될 것이다.

EU가 특별히 주력해오던 바이오디젤에 대한 관심은 에탄올에 대한 선호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오디젤은 2018년까지 화석 디젤 사용의 7.4%의 에너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EU는 전망 기간 동안 세계 바이오디젤 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단연 가장 큰 바이오디젤 시장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생산 증가와 수입 증가로 전망기간 말미에는 바이오디젤의 수요가 충족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바이오디젤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사용 증가는 2012년까지 38억 리터가 사용되어야 하는 의무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다. 한편 브라질은 빠르게 성장하여 2006~08년에는 바이오디젤 사용량이 연료 사용량의 2% 이하였으나 2018년에는 4%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작년에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많은 개발도상국은 높은 원유 가격의 영향으로 무수한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그램 제안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원유 가격 하락과 경제 위기로 대부분이 일단 중단된 상태이고 미래 시장 전망

EU가 특별히 주력해오던 바이오디젤에 대한 관심은 에탄올에 대한 선호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오디젤은 2018년까지 화석 디젤 사용의 7.4%의 에너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은, 특히 장기간의 식품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불확실하다. 이와 같은 최근의 정세를 반영하여 많은 개도국의 바이오연료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였다.

다음 호에서는 미래의 곡물 가격, 축산물 가격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식품 부문의 중요성 및 최근 식품 가격의 상승 속도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 참고자료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9~2018, Highlight.

# 미국 유기농 산업의 최근 이슈\*

정학균

## 1. 서론

USDA의 유기 규정 프로그램(organic regulatory program)과 상표(label)의 개발 및 성공에 기인하여 유기농 식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 수요가 지난 10년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유기농 부문에서 아직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유기농 소매 판매는 미국 전역의 도시, 대학가, 그리고 대형 박스형 상점(big-box stores)에서 ‘자연 제품’ 틈새시장 이상으로 확대되어 왔다. 신규 생산자들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입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공급압박(supply squeeze)이 전반적인 부문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008 농업법은 많은 새로운 법조항들을 추가하여 국내 생산자들이 유기농업이 당면한 도전들에 대처하고, 소비자들이 유기농 식품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USDA의 ERS와 협력 기관은 지난 몇 년동안 많은 새로운 유기농업 조사와 연구에 착수해 왔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산업의 당면 이슈들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유기농업 시스템, 공급 체인, 가격 프리미엄, 그리고 시장 조건들에 관한 최근의 경제적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 본 내용은 미국 USDA가 발표한 “Emerging Issues in the U.S. Organic Industry” 경제정보자료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전문연구원이 발췌·번역한 것이다.(hak8247@krei.re.kr, 02-3299-4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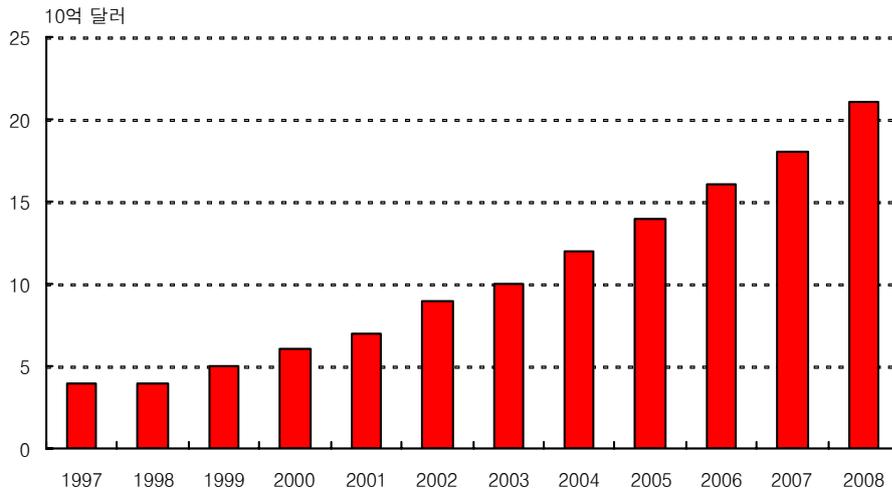
## 2. 미국 유기농 산업의 빠른 성장

### 유기농 판매액 1997년 이후 5배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유기농 식품 생산은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소비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여 왔다. 유기농 식품 판매는 1997년의 36억 달러에서 2008년 211억 달러로 다섯 배 이상 성장하여 왔다.

미국의 유기농 식품 판매액은 1997년의 36억 불에서 2008년 211억 불로 다섯 배 이상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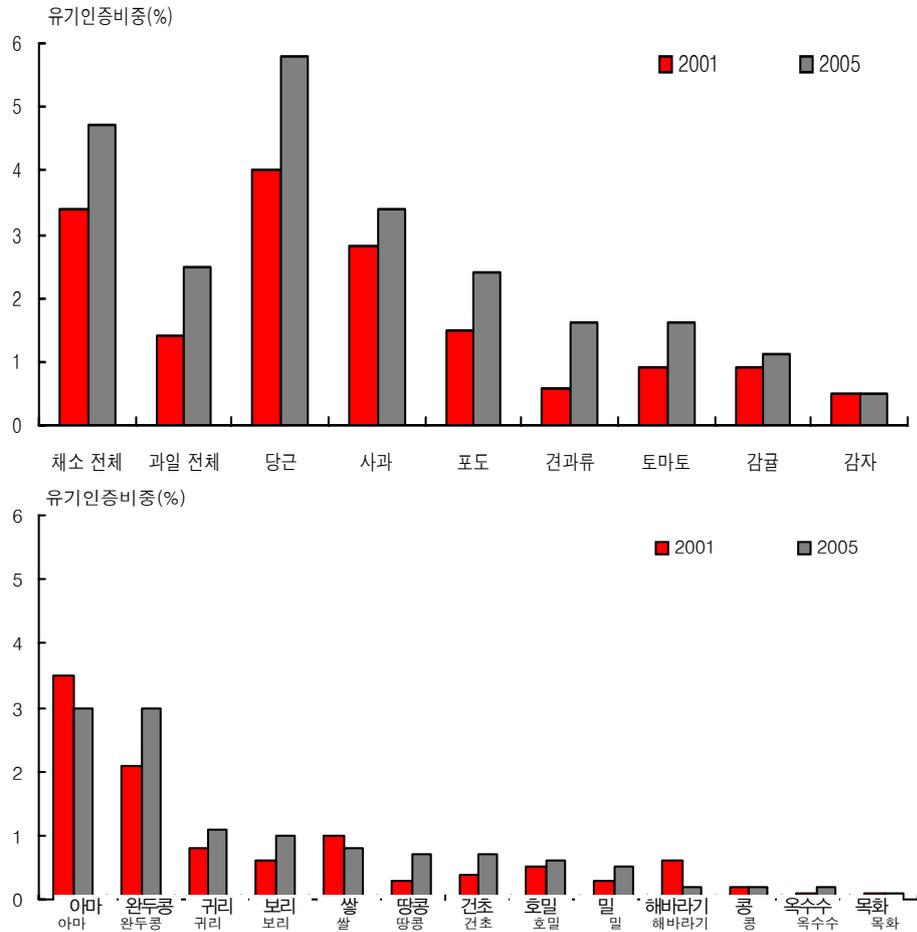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미국 유기농 식품 판매액



자료: Nutrition Business Journal.

곡물의 유기농업 재배 비율(adoption rate)이 낮아 유기 곡물이 부족함에 따라 유기 축산 생산자들이 믿을만한 출처의 알맞은 사료 곡물을 찾아 고심하게 되었고, 미국 유기 축산 부문의 확대에 지속적인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다. 전반적인 유기농업 채택 비율은 아직 낮다. ERS 추정에 따르면 전체 미국 농경지의 약 0.5% 그리고 모든 목장의 0.5%만이 2005년에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미국 채소 재배면적의 거의 5%와 과일과 견과류의 2.5%가 2005년에 유기농법으로 재배되었지만 옥수수과 대두 작물은 단지 0.2%만이 인증된 유기농업 시스템 하에서 재배되었다. 미국의 일반농법 곡물 생산자들은 다양한 금융적 위험과 기타 다른 위험들을 유기농 생산과 관련지어 생각한다.

그림 2 전체 면적중 구성비로 표시된 미국의 유기인증 면적



자료: Data Track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and U.S. Organic Farming, Amber Waves,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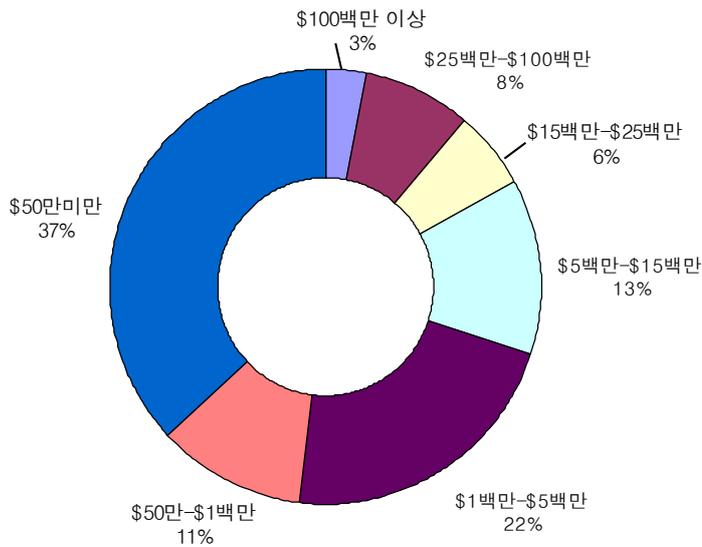
### 공급부족에 대처하는 유기농 취급업자들

1990년대 후반에 유기농 식품 취급업자들(유기농 공급 체인의 중개자)은 소매업자들에게 유통할 충분한 유기농 식품을 확보하고, 구입할 유기 생산자들을 정하며,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판매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2005년 ERS 조사에 따르면 브로커, 유통업자, 도매업자 그리고 가공업자를 포함한 유기농 취급업자들은 유기농 식품이 공급 체인을 따라 이동함에 따라 그 제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해야만 농가들보다 더 빨리 국가 기준에 대응할 수 있다. 시설은 태평양 연안주들이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상당수의 유기농 취급업자들의 규모가 작았으며, 48%가 전체 판매액(유기농 및 일반 제품 두가지 모두)이 1백만 달러 이하로 보고되었다<그림 3>. 단지 3%의 취급업자가 100백만달러 이상의 판매액을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유기농 취급업체들은 유기농과 일반 생산제품을 함께 취급하는 혼합 경영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에 의해 취급되는 제품 중 평균 34%가 유기농 식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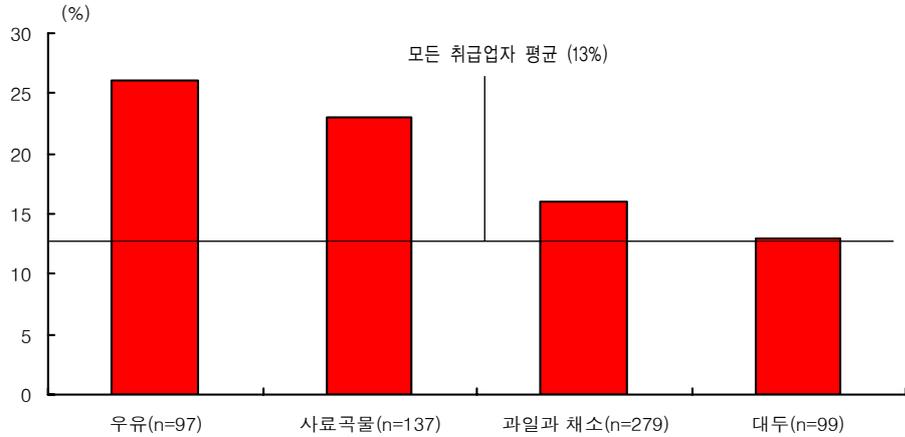
그림 3 판매 규모별 유기농 취급업자 구성비(2004년)



자료: 2004 Nationwide Handler Survey, ERS, USDA.

ERS의 전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기농 식품 취급업자들 가운데 44%가 2004년에 필요한 원료 혹은 생산제품의 공급부족을 보고하였고, 13%는 그 해에 그들의 유기제품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시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고 하였다. 시장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는 취급업자들의 비중은 판매된 품목에 따라 다양하였으며 우유가 가장 높았다<그림 4>.

그림 4 주요 제품별 심한 공급부족을 겪은 취급업자 비중



자료: 2004 Nationwide Handler Survey, ERS, USDA.

## 유기 농산물 수입

미국 유기농 식품 수요가 국내 공급을 초과하여 유기농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유기농업은 흔히 노동집약적이며,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이 몇몇 품목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다.

미국 유기농 식품 수요가 국내 공급을 초과함에 따라 유기농 수입량이 증가하여 왔다. USDA가 공인한 인증 기관들은 2007년에 세계 각국의 27,000명의 생산자 및 취급업자들을 미국 유기농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하였다. 그 가운데 대략 16,000명이 미국에 있고, 나머지 11,000명이 100개 이상의 외국에 있다. 미국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OP, National Organic Program) 기준 인증을 받은 농가들과 취급업자들은 캐나다, 이탈리아, 터키, 중국 그리고 멕시코에 그 수가 가장 많으며, 2007년 기준 이들 나라들이 전체 외국 유기 농가/취급업자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USDA 보고서는 미국 유기농 수입액을 2002년에 10~15억 달러, 수출액은 125~250백만 달러로 추정하였다(USDA-FAS, 2005). 유기농 수입은 2002년 이후 실질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신선과일과 채소,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커피, 차, 코코아, 그리고 열대 농산물), 그리고 대두를 포함한 원재료를 포함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몇몇 유기 농산물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다. 한편, 유기농 취급업자들은 2004년 기준 그들의 유기농 생산제품의 모두 혹은 일부를 38% 수입하지만 주로 국내 공급자들에 의존한다고 보고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유기농 부문의 급속한 성장과 보다 규모가 큰 유기농장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미국 유기 농장들은 변함없는 유기농 부문 점유율을 유지해 왔다. 직거래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원예 농산물-그리고 점차적으로 축산물-을 생산하는 소규모 농가들은 보다 거리가 떨어진 공급자들과의 경쟁으로부터 최소한의 충격(the least impact)을 인식해왔던 것 같다. 농산물 직판장,

독립된 레스토랑, 작은 식료품 가게, 그리고 다른 직거래시장에서의 유기농 소비자들은 명백하게 지역에서 재배된 유기 농산물을 찾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자연식품 식료품점에 유통을 하였던 몇몇 과일 및 채소 재배농가들은 식료품점들이 그들의 원래 시장 이상으로 확장함에 따라 수입품과 보다 큰 국내 생산자들에게 그들의 시장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기 곡물과 유지작물 생산자들도 국제적인 시장 경쟁에 직면해 있다. 미국 유기 면화 생산자들은 1990년대에 보다 낮은 노동력, 투입물, 그리고 기술비용을 가진 나라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유기 대두 생산은 유기 사료곡물과 대두, 우유와 같은 소비자 생산제품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사료곡물 유통업자들과 대두 제품 가공업자들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유기 대두를 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1990년대에 자연식품 식료품점에 유통을 하였던 과일 및 채소 농가들은 수입품과 보다 큰 국내 생산자들에게 그들의 시장을 잃었다.

### 3. 높은 식품가격과 지역식품 상표

악화된 미국 경제와 보다 높은 식품 가격은 지역 식품 상표와의 새로운 경쟁과 함께 유기농 시장에 아직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떠오르는 이슈들이다. 소매업자들은 2008년에 보다 높은 소매가격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높은 상품 및 에너지 비용을 전가시켰다. 그러나 보다 낮은 상품/에너지 비용과 악화된 세계 경제는 2009년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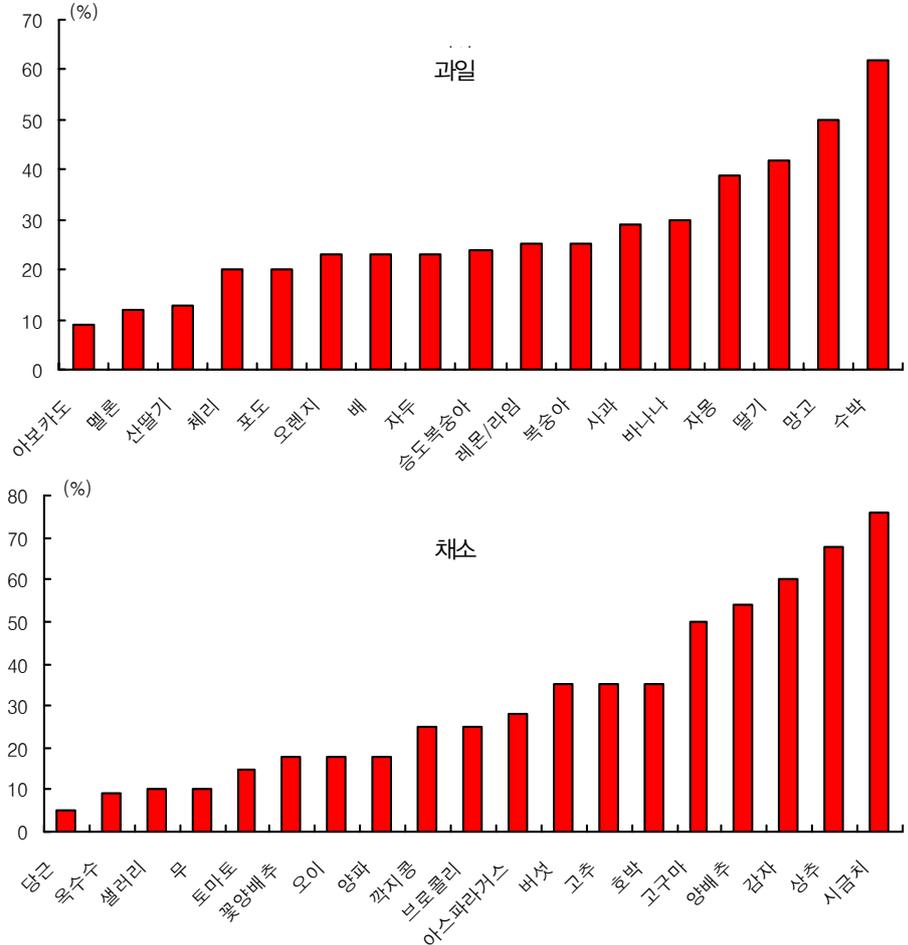
최근의 ERS 연구에 따르면 소매수준에서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우유, 그 두 개의 최고 유기농 식품 판매 카테고리는 일반제품에 비해 상당한 가격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ERS는 2005년의 농산물 구입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18개의 과일과 19개의 채소를 분석한 결과 일반농산물 가격에 비해 유기농 프리미엄이 2/3 이상의 품목에서 30% 이내였다. 단지 하나의 품목인 블루베리만이 100%를 초과하였다. 대조적으로 2006년 기준 1/2 갤런 용기의 유기농우유의 가격 프리미엄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자체 상표 유기농우유(private-label organic milk)는 브랜드 일반우유(branded conventional milk)에 비해 60%의 가격 프리미엄을 가지며, 브랜드 유기농우유(branded organic milk)는 자체 상표 일반우유(private-label conventional milk)에 비해 109%의 가격 프리미엄을 가진다.

유기농 식품은 생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농장 수준에서 상당한 가격 프리미엄을 주문한다. 최근의 ERS의 낙농과 대두의 전국 설문조사의 분석에 따르면 총 경제적 비용은 유기 낙농과 대두 경영이 일반 경영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2005년, 유기 우유에 대해 100파운드당 6.69달러의 평균 가격 프리미엄을 가지고 유기 우유 생산자들은 대부분의 추가적인 유기농 생산비용을 메웠다. 2006년에

악화된 미국 경제와 보다 높은 식품 가격은 자연식품 상표와의 새로운 경쟁과 함께 유기 산업에서 떠오르는 이슈들이 되고 있다.

유기 대두는 일반 대두보다 더 이익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주로 유기 대두에 지불된 가격 프리미엄이 그들의 높은 생산비용을 보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5 유기농 가격 프리미엄(일반농산물 가격의 백분율)



자료: Nielsen Homescan 2005.

유기무역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2/3이상이 유기농 식품을 적어도 ‘가끔’ 구입하고, 28%는 유기농 식품을 매주 구입하고 있다. 조사는 많은 유기농 식품 소비자들이 유기농 식품에 지불되는 가격 프리미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유기농 식품을 자주 구입하는 구매자들은 현재의 경제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기농 식품 구입 습관을 바꾸지 않는 반면에 드물게 구입하는 구매자들은 그들의 유기농 식품 구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유기농 소비자들에 대한 이익률은 감소할 수도 있다.

## 지역재배 상표: 보완 혹은 경쟁?

유기농 상표와 지역 상표의 요건들이 다른 면의 농업(유기농 상표는 식품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지역상표는 그것이 어디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지를 중요하게 다룸)을 목표로 설정하지만 그들은 종종 경쟁하는 상표로 설명된다.

최근의 자연 식품점에 쇼핑을 하는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는 다음의 질문을 하였다: 만약 당신이 어떤 요리의 특정 재료를 구입하고자 하고, 지역의 생산제품 혹은 비지역의 유기농 식품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단 가격과 품질을 동등하다고 가정함). 조사 결과 35%의 응답자가 지역을, 22%가 유기농을(41%는 둘 다 동등하게) 선택하였다. 다른 연구들도 유기농 식품보다 지역식품을 더 선호하며 지역식품에 대해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유기농 취급업자들에 대한 ERS 조사에 따르면 2004년 유기농 판매의 24%가 지역에서(취급업자의 시설로부터 운전거리 한 시간 이내), 그리고 또 다른 30%는 지방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소매체인이 보통 여러 주에 걸친 지역의 지역 생산제품을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지역 생산제품을 집에서 훨씬 더 가까운 곳(그들의 주에서 그들 지역사회 100마일 이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소비자들은 또한 심지어 지역 상표가 전형적으로 생산기준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생산이 환경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믿는 등의 오해를 가질 수 있다.

최근의 농업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대략 136,000 농가가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단지 20,000 농가들만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보고하였다.

유기농 상표와 지역재배 상표가 반드시 경쟁적이지 않다. 오랜 시간 유기농 시장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유기농과 지역 농업을 ‘동전의 양면’으로 인식한다. 어떤 농산물은 생태 친화적임을 나타내는 유기농 상표와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지역재배 상표, 둘 다를 전달할 수도 있다. 미국의 파머스 마켓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많은 시장 경영자들은 유기농 취급업자의 수가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파머스 마켓, 슈퍼마켓, 그리고 기관의 지역 및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지역-유기농 식품 기업심(initiatives)이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 많은 주에서 지역 농업을 지원하는 법률이 제안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Illinois) 주는 지역 및 유기농 식품 생산과 섬유 생산의 중서부 리더가 되기 위한 법률을 2007년에 통과시켰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의 지역 및 유기농 농산물 구매 프로그램들을 늘리는 전략을 개발할 테스트포스를 만들고, 유기농산물 생산

몇몇 연구들은 유기농 식품보다 소비자들의 지역식품 선호와 높은 프리미엄 지불의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유기농과 지역 상표가 필연적 경쟁관계는 아니며 ‘동전의 양면’으로 인식되고 있다.

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을 지원한다. 연방 수준에서 USDA의 농산물 마케팅 서비스는 여러 지역들에서의 많은 지역-유기농 기업심(initiatives)을 돕는 몇 개의 거대한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민간단체는 몇 개의 공립학교에서 지역 및 유기농 식품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지역 및 유기 농산물을 유통하는 몇 개의 마케팅 협동조합이 부상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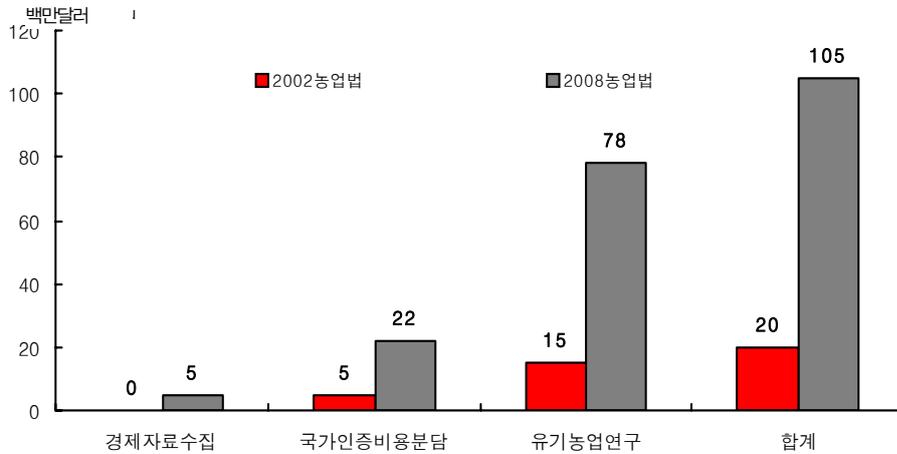
## 4. 미국 유기농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최근까지 연방의 유기농 정책은 시장 지지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쪽으로 향하여 미국 유기농 부문의 성장을 용이하게 해왔다. 2008년 식량, 보존 그리고 에너지 법안에서 미국 연방 유기농 정책이 유기농 생산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에게 직접적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규정으로 진로를 수정하였다. 부분적으로 유기농 식품의 공급 부족에 대응하여 2008년 의회는 인증 비용 분담 프로그램(certification cost-share program)과 자료 이니셔티브(data initiative)를 위한 자금을 후원하였다. 환경질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유기농 전환 지원 제도하에서 유기농 생산 및 전환과 관련된 보존 행위는 6년에 걸쳐 최고 80,000달러까지, 연간 20,000달러 한도의 지원 대상이 된다. 2008 농업법은 의무적인 유기농 연구 자금을 2002년 법보다 다섯배 증가하였다.<그림 6>.

2008 농업법은 많은 다른 규정들을 포함하여 미국 유기농 부문의 성장을 용이하게 한다. 그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유기 보존 행위에 대한 기술적 지원
- 농산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비용 분담 자금 프로그램에 유기농 품목 포함
- 유기 농업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융자금을 사용하는 자격이 있는 빈곤한 생산자들, 소유자들 혹은 소작인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규정
- 유기농 생산 및 마케팅에 관한 자료 수집을 확대하는데 자금 제공
- USDA의 규제적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 유기농 생산 보험 보상범위 개선 연구에 협약하는 규정

그림 6 유기농업에 대한 정부지출 변화(2002~2008년)



자료: Office of Budget and Policy Analysis budget summary data(2002) and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08).

## 5. 결론

유기농 생산 시스템의 도입은 미국의 생산부문과 지역에 걸쳐 아직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공급 부족 문제가 몇몇 유기농 식품 부문에서 부상하였다. 유기농 연구, 기술 지원, 그리고 유기 농가와 취급업자를 위한 지원에의 새로운 공공 투자가 2008 농업법에 포함되었다. 이 공공 투자는 진행되는 민간의 노력을 보완하여 유기농 식품 공급을 확대시키고, 유기농 생산제품을 판매시점에 가깝게 조달하도록 한다. 유기농 생산에의 기술적 지원과 유기농 전환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국내의 유기 곡물 공급-차례로 급성장하는 우유, 고기 그리고 가공류 부문 지원을 확대하고 유기농업 도입 속도가 느린 지역들에서 유기농 생산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대부분의 미국 소비자들은 현재 최소한 '가끔'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보다 폭넓은 접근성과 개선된 제품 선택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신선한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우유, 이 두 개의 최고 유기농 식품 판매 카테고리 에 상당한 가격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이는 공급부족과 높은 유기농 생산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만약 유기농 생산제품의 가격 프리미엄이 유지될 수 있다 할지라도 생물 다양성, 수질과 같은 환경적 서비스들의 공공재적 본질은 가격이 이러한 서비스들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함축한다. 유기농업에의 공공 투자는 소비자들에게는 유기농 식품에 보다 폭넓게 접근하는 것을

---

용이하게 하고 농가들로 하여금 고 가치 시장을 유지·확대하도록 도와주며 농업 소득을 지지한다. 뿐만 아니라 재생할 수 없는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미국의 토양과 물을 보호한다.

참고자료

Catherine Greene et al., “Emerging Issues in the U.S. Organic Industry”, USDA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umber 55, June 2009.

# 일본의 주류제도와 산업실태\*

이동필

## 1. 사례연구의 배경

최근 쌀 소비 감소와 함께 농가소득 성장이 위축되자 전통주산업을 육성하여 국산농산물의 소비촉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주의 산업화는 제철에 그 고장에서 생산된 원료농산물의 소비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의 향토음식이나 지역축제 등과 결합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2007년 주류 총생산액은 3,698,799백만 엔이며 15,870백만 엔 상당의 수출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대표적인 술이라 할 수 있는 청주의 경우 생산액은 439,310백만 엔(합성청주 20,600백만 엔 제외)에 수출이 7,048백만 엔으로 맥주와 소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주류식품통계연보 08~09년판). 최근 우리나라도 ‘사케 바’ 붐을 타고 많은 양의 일본청주를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는데 2006년의 665KL에서 2007년에는 1,069KL로, 금액은 2억8천6백만 엔에서 4억6천5백만 엔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일본에서도 현대적인 양조기법이 보급되고 양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오래지 않다. 우리나라에 주세법이 도입된 것이 일본에 비해 10여년 후인

일본 청주의 경우 생산액은 439,310백만 엔(합성청주 20,600백만 엔 제외)에 수출이 7,048백만 엔으로 맥주와 소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본 내용은 ‘전통주 국내외 산업현황 및 세계화 가능성 조사’ 연구의 일본 현지 조사 내용과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ldphil@krei.re.kr 02-3299-4342)

1909년으로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가 약 100여년의 양조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양조산업의 규모와 주류의 수출실적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즉 2007년의 경우 일본은 3조6,987억9천9백만 엔을 생산하고 158억 7천만 엔 상당을 수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7조3,018억 원을 생산하여 1억9,164만1천 달러 상당을 수출하였다. 더구나 일본은 쌀과 포도 등 국산농산물을 활용하여 전통주인 청주는 물론 위스키나 와인까지도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고부가가치상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수입원료를 사용한 대중주<sup>1)</sup>에 치중한 나머지 대부분의 고급주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슷한 시기에 주세법을 제정하고 주류산업을 육성해 온 일본의 주류관련 제도와 산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전통주로서 세계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주산업을 살펴보고 성공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주산업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2007년의 경우 일본은 3조6,987억9천9백만 엔을 생산하고 158억 7천만 엔 상당을 수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7조3,018억 원을 생산하여 1억9,164만1천 달러 상당을 수출하였다.

## 2. 일본의 주류관련 제도

### 일본 주류제도의 개요

일본은 국가가 주류의 제조 및 유통면허를 하고 주세를 징수하는 엄격한 허가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주세법(1953.3.1시행)」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962.3.31시행)에 기초하여 주류의 종류와 제조방법은 물론 주류의 제조 및 판매면허 요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규정함으로써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세법 체계는 일본 주세법을 모체로 하기 때문에 법제정의 목적이나 주류의 제조 및 유통면허, 과세표준 등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골격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sup>2)</sup>

일본은 「주세보전및주류조합등에관한법률」이란 법률로 주류에 대한 품질관리와 표시방법, 그리고 주류업단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다.

- 1) 일본의 주류산업은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이란 점에서 농가소득 및 농촌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4~05년 무렵에 일본에서는 쌀 28만톤, 보리 98만톤, 고구마 168만톤이 양조용으로 사용되는데 비해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는 쌀 13만2천톤, 보리 21만6천톤, 고구마 9천톤만 사용하고 있음
- 2) 우리나라에서 일본주는 1876년 부산에서 荒木某씨가 탁주를 제조한 것을 효시로 1884년 西峰三郎씨, 福田增兵衛氏 등이 부산에서 청주업을 시작하여 1897년부터 점차 마산, 인천, 서울 등 다른 곳에서 창업하는 사람이 나타남. 1897년 8월(光武 8년) 한일협약에 따라 目賀田種太郎이 재정고문에 취임하면서 주조방면의 조사가 실시되었고, 1909년 2월(康熙 3년) 주세법을 도입하여 양성주, 증류주, 혼성주의 3종으로 구분하고 종별 제조수량에 따라 과세하기에 이룸. 당시 조선의 조세제도는 1872(明治 초년)년에 도입한 일본주세법과 거의 동일하였음 (조선주조사, p.49 및 p.463).

일본의 주세법은 대표적인 징세편의 위주의 규제법이었으나 최근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제조 및 유통 관련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1872년에 도입한 일본의 주세법은 대표적인 징세편의 위주의 규제법이었으나 최근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제조 및 유통 관련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최근 개정안(2006.5.1) 일본주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편의를 위해 주류의 종류를 4가지(발포성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 혼성주류)로 간소화하고 이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새로운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17개 품목으로 구분하고, 청주는 알코올분이 22도 이상, 발포주는 알코올분 20도 이상은 제외한다든지 소주갑류를 연속식증류소주, 소주용유를 단식증류소주로 바꾸는 등 품목별 정의와 명칭을 변경하였다.

청주 또는 증류주류(연속식증류소주, 단식증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원료용알코올 또는 스피리츠)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은 제조장에 있어서 자기가 제조한 청주 또는 증류주를 원료로 하여 리큐르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리큐르의 최저제조수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주세납세신고서 기재방법 중 과세이출과 미납세이출 수출면세를 폐지하고 환입 공제나 재 이출 등 공제 시 용기용량별 명세의 기재를 폐지함으로써 기재방법을 간편화하고 주류에 대한 표시사항을 개선하였다.

### 일본의 주류업무 행정체계

일본의 주세행정은 재무성(구 대장성) 주계국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외청인 국세청과 그 산하에 있는 11개 지방국세국이 면허와 품질관리, 주세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류의 품질관리는 국세청(감정관실), 지방국세국(과세2부-감정관실), 그리고 지방세무서(주류지도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11개 지방국세청에 감정관 68명을 배치하여 ① 간접국세 과세물건의 분석 및 감정, 기타 간접국세의 부과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것, ②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의 발달, 개선 및 조정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것, ③ 양조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 주류의 품질 및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주류산업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양조에 적합한 품종육종 등의 연구와 함께 낙후지역의 진흥 또는 구조개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은 하지만 주류산업에 직접적인 행정적 연계는 없다.

일본의 주세행정은 재무성(구 대장성) 주계국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외청인 국세청과 그 산하에 있는 11개 지방국세국이 면허와 품질관리, 주세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주류의 품목별 정의와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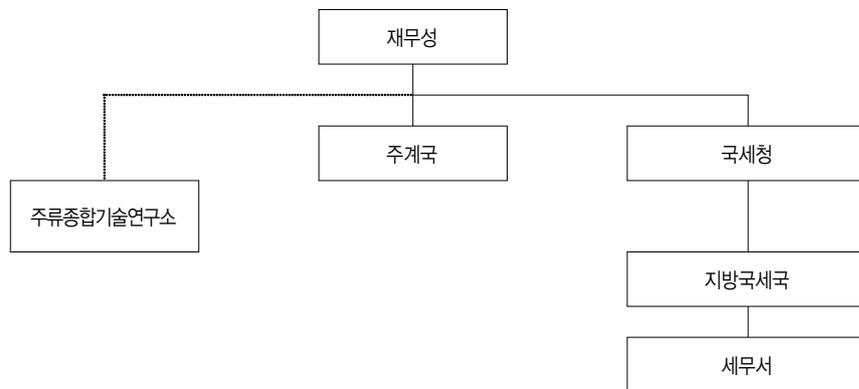
구주세법		신주세법	정의 및 개정내용
종류	품목	품목	
청 주		청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코올분이 22도 이상의 것을 제외</li> <li>- 쌀, 쌀국, 물 및 청주박 이외의 물품중량의 합계가 쌀(쌀국포함)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제외</li> <li>-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서 "보리, 조, 옥수수, 고량, 수수, 피 혹은 전분 또는 이들 국" 을 제외</li> </ul>
합성청주		합성청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코올분이 16도 미만, 엑스분이 5도 이상으로 산도가 일정이상인 것 이외는 제외</li> <li>-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서 "보리, 조, 옥수수, 고량, 수수, 피 혹은 전분 또는 이들 국" 을 제외</li> </ul>
소 주	소주갑류	연 속 식 증류소주	- 명칭 변경
	소주을류	단 식 증류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칭 변경</li> <li>- 원료마다의 규정을 명칭화</li> </ul>
미 림		미 림	- 알코올분이 15도미만, 엑스분이 40도 이상으로 원료포도당 등의 중량이 일정이하의 것 " 이외를 제외
맥 주		맥 주	- 알코올분이 20도 이상의 것을 제외
과실주류	과실주	과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 또는 과실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에 대해서는 알코올분이 20도 이상의 것을 제외</li> <li>- 주류의 원료로 된 과실에 함유하는 당류의 중량을 초과하여 당류를 가하는 것을 제외</li> <li>- 주류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당류를 가한 것 제외</li> </ul>
	감미과실주	감미과실주	- 과실주로 되지않은 것과 과실주로 된 주류의 일부추가
위스키류	위스키	위스키	- 동일
	브랜드	브랜드	- 동일
스피릿츠류	스피릿츠	스피릿츠	- 동일
	원료용알콜	원료용알콜	- 동일
리큐르		리큐르	- 명칭 변경
잡 주	발포주	발포주	- 알코올분이 20도 이상의 것을 제외
	분말주	분말주	- 동일
	기타잡주	기타양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전 주세법 규정에 의한 잡주(기타잡주)의 일부주류에 대해 품목을 신설</li> <li>- 알코올분이 20도 미만, 엑스분 2도 이상의 것 이외의 것을 제외</li> <li>- 알코올 이외의 주류를 원료의 일부로 한 것을 제외</li> <li>- 알코올을 원료의 일부로 한 것으로 알코올분 15도 이상의 것 또는 알코올의 중량이 물 이외의 원료의 100분의 30 이상의 것을 제외</li> </ul>
	잡주	- 이상의 주류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신설)	

2002년 행정개혁 차원에서 독립행정법인 ‘주류종합연구소’로 분리하여 주류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1904년 주류의 품질향상을 위해 대장성 산하에 ‘양조시험소’를 설립, 본격적인 양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주류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하지만 2002년 행정개혁 차원에서 독립행정법인 ‘주류종합연구소(www.nrib.go.jp)’로 분리하여 주류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주류종합연구소는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과와 연구기획지재부문, 품질안전성연구부문, 양조기술기초연구부문, 양조기술응용연구부문, 양조기술개발연구부문, 정보기술지원부문 등 1과 6부문에 52(그중 연구직 38)명의 직원이 양조부문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주류의 감정분석품질평가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1 일본의 주류업무 행정체계



국세청 주류감정관실 및 지방국세국의 감정관은 양조업체들의 기술수준이 낮고, 청주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였을 때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1993년 청주평가제가 폐지되자 기능이 모호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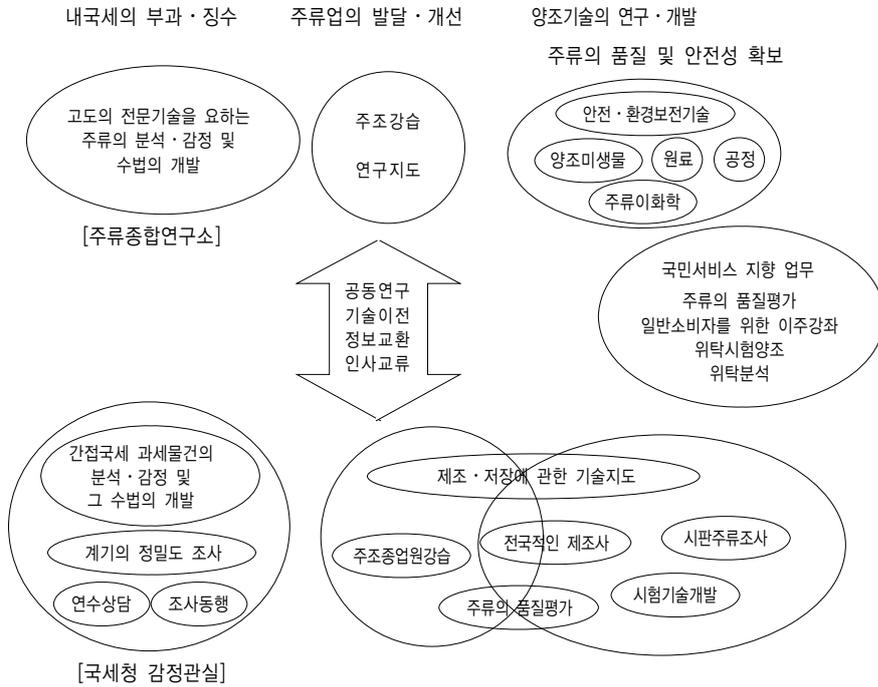
청주 및 소주 등 생산자들이 ‘일본양조조합중앙회(www.japansake.or.jp)’를 결성하여 ① 검사협조 및 주세위반 교도, ② 기준판매가격의 실시, ③ 주류의 판매가격제도 실시, ④ 주류의 표시와 관련시설, ⑤ 원부자재의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통해 주류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조합에서 수행하는 역할에는 조합 소속업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자금의 채무보증과 일본주에 대한 매스컴보도, 박람회 등을 통한 홍보, 전국 술감정·선전대회 개최 등이 있다.

1996년에 설치된 ‘일본주서비스연구소(www.sakejapan.com)’는 일본주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및 계몽활동을 수행하며, 일본산 ‘청주원산지호칭제도’의 운영과 일본산 청주수출기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주 및 소주 등 생산자들이 ‘일본양조조합중앙회’를 결성하여 여러 사업을 통해 주류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2 국세청 감정관실과 주류종합연구소의 관계



자료: 권상일, 일본 행정개혁 이후의 국세청 감정관실 소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지주(地酒) 상품을 소개하거나 좋아하는 제품의 검색은 물론 외국신문이나 잡지 등에 게재된 일본지주 관련 기사를 수집 하는 등 지주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청주원산지호칭제도(Sake Origin Control)는 일본주원산지호칭제도(SOC)와 전통적 원산지호칭제도(TSOC)로 구분되는데 모두가 생산지역에 따른 특징 보호 및 소비자 품질을 보증하는 시스템으로 국산 쌀과 특정지역의 물을 사용하는 등 일본청주의 차별적 유통에 기여하고 있다.

민간단체로서 일본唎酒師(www.enjoy-sake.com), 일본주박물관(www.sakemuseum.com) 과 日本酒銘柄辭典(www.hinocatv.ne.jp), 日本名門酒會(www.meimonsu.jp) 등이 일본 청주산업 발전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일본에 있어서 주류의 종류, 제조 및 판매면어

일본은 주류를 4종류(발포성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 혼성주류)로 구분, 1L당 각기 22만 엔 14만 엔, 20만 엔, 22만 엔의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류의 종류를 11종으로 분류하였으나 2006년부터 주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종은 4종으로 단순화 하는 대신 주류상품의 품목은 17개로 세분화하였다.

원래 주류의 종류를 11종으로 분류하였으나 소비자들의 선호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술이 출현함으로써 2006년부터 주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종은 4종으로 단순화 하는 대신 주류상품의 품목은 17개로 세분화하였다.

주류의 품목별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 없이 품목별로 용어의 정의(일본주세법 제2조)를 하고 개략적으로 규정한 대신 품목별 최저수량을 명시하고 있다.

표 2 주류의 종류별 품목과 최저생산량

종류	품목	품목별 주류의 정의	최저생산량 (KL)
발포성 주류	맥주	맥아, 홉, 물을 원료로 해서 발효시킨 것	60
	발포주	맥아를 원료의 일부로 한 주류로 발포성을 가지고 있는 것(물과 호프를 제외한 주원료에서 맥아비율이 66.7% 미만의 것)	6
양조 주류	청주	쌀, 쌀누룩, 물을 원료로 해서 발효시켜 거른것	60
	과실주	과실을 원료로 해서 발효시킨 것(예 : 포도주, 사과주)	6
	기타양조주		6
증류 주류	연속식 증류소주	알코올 함유물을 연속식 증류기로서 증류한 것으로 알코올성분 36도 미만의 것(감류, 희석식소주)	60
	단식 증류소주	알코올 함유물을 상기 이외의 증류기로서 증류한 것으로 알코올성분 45도 이하의 것(을류, 증류식소주)	10
	위스키	발아시킨 곡류, 물을 원료로 해서 발효시킨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한 것	6
	브랜드	과실, 물을 원료로 해서 발효시킨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한 것	6
	원료용 알코올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한 것으로 알코올성분 45도를 초과하는 것	6
	스피릿츠	청주에서 위스키류까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류로 액기스분이 2도 미만의 것(예 : 진, 위스키, 럼 등 도수가 높은 술)	6
혼성 주류	합성청주	알코올, 소주, 포도당 등을 원료로 해서 제조한 주류로 청주에 유사한 것	60
	미림	쌀, 쌀누룩에 소주 또는 알코올,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물품을 첨가한 것	10
	감미과실주	과실주에 당류, 브랜드 등을 혼합한 것	6
	리큐르	주류와 당류 등을 원료로 한 주류 중 액기스분이 2도 이상의 것 (알콜에 과실, 감미료, 향료 등을 가미해서 만든 것)	6
	분말주	용해한 알코올성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의 것	6
	잡주	청주에서 분말주까지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류	6

주: 기타 발포성주류는 맥주 및 발포주 이외의 주류 중 알코올 성분이 10도 미만으로 발포성을 갖는 것으로 품목에서 제외

다만 일본주세법 시행령에서는 주류의 종류별 사용 가능한 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 및 유기원료표시 등 자율적으로 상품의 특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서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주류제조면허시 특정한 시설요건이 없이 품목별 연간 최저생산량 이상은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일본주세법 제7조)하고 있다(표 2).

다만 2004년부터 지역진흥을 위한 구조개혁특구에서 농원민박이나 레스토랑을 운영할 경우 자기가 생산한 쌀로 탁주(도부로구)<sup>3)</sup>를 생산, 제조장내에서 판매하거나 자기영업장에서 소비할 경우 최저생산량기준(잡주 6KL)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현재 28개의 탁주특구로 지정(제조장구역 이외에서 선물로 판매할 경우는 주류판매면허가 필요)하였다.

이밖에 청주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에서 단식증류소주나 미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연속식증류소주 또는 단식증류소주의 제조면허자가 그 제조장에서 미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과실주 또는 감미과실주 제조면허 자가 그 제조장에서 브랜드를 제조할 경우 등은 최저생산량기준 적용배제(일본주세법 제7조 ②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다.

주류판매업면허시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시설기준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류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업면허도 허용하는 등 특히 소매면허를 대폭 자율화하여 손쉽게 주류판매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①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면허를 취득한 제조장에서 하는 주류판매업 및 술집, 음식점, 기타 주류를 음용하는 자기영업장 영업에 대해 별도의 판매면허를 면제(일본 주세법 제9조)한다든지, ② 제조자가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슈퍼나 소매상과 거래 가능, 도매상과 도매상간의 거래할 수 있는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는 점, ③ 시설이 없는 업체나 판매회사가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OEM방식의 생산을 허용하는 점, ④ 2006년 주세법 개정으로 2km이내 도매상허가금지 조건을 폐지하여 도매상의 면허기준을 완화하였다는 점, 그리고 ⑤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판매 허용<sup>4)</sup>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통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주류제조면허시 특정한 시설요건이 없이 품목별 연간 최저생산량 이상은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판매 또는 대리업면허도 허용하는 등 특히 소매면허를 대폭 자율화하여 손쉽게 주류판매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 도부로구는 일본주세법상 잡주에 해당하는데 쌀과 쌀입국과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하지 않은 술로 우리의 탁주와 유사함. 도부로구의 어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국이나 한반도로부터 배재배와 함께 전해진 쌀로 만든 술덧이 혼합된 상태의 탁주를 濁醪(다구라우)로 부른 것이 사투리로 전해져 도부로구가 되었다고 함. 일본에서는 예부터 수확한 쌀을 신에게 바치는데 이 때 도부로구를 만들어 바치고 이듬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현재도 40개 이상의 신사가 도부로구로 제사를 지내고 있음(일본탁주와 도부로구 특구, 일본주류종합연구소 정보지)

4) 통신판매주류소매업면허는 판매하고자 하는 주류의 범위, 카달로그 등의 발행연월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주류의 품목별 과세출고량이 모두 3천KL미만인 제조자가 제조, 판매하는 주류 또는 수입주류에 부여(일본주세법, 제9조 11호 ④ 통신판매 주류소매업면허의 수급조정 요건)

## 일본의 주류종류별 주세

일본의 주세는 종량세로 주류를 4종류로 분류하고 분류된 주류마다 과세하는 세율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류의 종류별 KL당 주세

분 류	기본세율	특별세율
발포성주류	220,000엔	발포주(맥아비율 25%이상 50%미만) 178,125엔 발포주(맥아비율 25%미만) 134,250엔 기타발포성주류 80,000엔
양조주류	140,000엔	청 주 120,000엔 과실주 80,000엔
증류주류	200,000엔(21도미만) 20도를 초과하는 1도당 가산액 10,000엔)	위 스 키 370,000엔(37도미만) 브 랜 디 370,000엔(37도미만) 스피릿츠 370,000엔(37도미만) (37도 이상 기본세율)
혼성주류	220,000엔(21도미만) 20도를 초과하는 1도당 가산액 11,000엔)	미림 및 잡주(미림유사) 20,000엔 감미과실주 및 리큐르 120,000엔(13도미만) (12도를 초과하는 1도당 가산액 10,000엔) 분말주 390,000엔

주 1 : 발포주로 특별세율이 적용되는 주류는 알코올 성분으로 10도미만의 것에 한정함

주 2 : 기타발포성주류중 특별세율이 적용되는 호프를 원료로 한 주류는 다음의 것에 한정함: ① 당류, 홉, 물 및 대두단백 등(시행령에서 정하는물품)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엑스분 2도 이상의 것), ② 발포주(시행령에서 정한 것)에 스피릿츠(시행령에서 정한 것)를 가한 것(엑스분이 2도 이상의 것)

## 일본주류의 지리적 표시

「주세보전및주류조합등에관한법률」 제86조의 6(주류의 표시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에관한표시기준(일본 국세청고시, 1994.12.28)’ 제2항에 의해 일본에서 보호하는 포도주, 증류주 또는 청주의 산지 중 국세청장관이 지정하는 산지의 지정) 및 일본이 보호하는 단식증류소주의 지리적표시대상은 (표 4)와 같은데 해당 산지외의 지역을 산지로 하는 단식증류소주 등에는 이러한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 5) 장관 지정산지는 ① 특별한 품질특성과 사회적 평가를 얻는 포도주, 증류주 또는 청주를 생산하며, 그 명칭이 당해 포도주 등의 특별한 품질특성과 사회적 평가를 명시하는 포도주 등의 생산지역일 것, ② 지리적표시에 관한 표시기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정산지 이외의 지역을 산지로 하는 포도주 등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해 지정산지는 일본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리적 표시를 특정하게 하는 것일 것, ③ 일본 이외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청주산지를 장관지정 산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에서 당해 청주산지가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어 있을 것 등을 전제로 함(일본주세통달 제8편제86조의 6의 ③)

표 4 일본에서 등록하여 보호하는 지리적표시 대상

산 지	지리적표시 대상의 규격기준
이키 (壹岐)	쌀누룩 및 나가사키현 이키시의 지하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1차 술덧에 보리 및 이키의 지하수를 첨가하여 더 발효시킨 2차 술덧을 나가사키현 이키시에서 단식증류기로 증류하고 용기에 주입한 것이 아니면 '이키'의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
구마 (球磨)	쌀누룩 및 구마강의 복류수인 구마모토현 구마군 또는 구마모토현 히토요시(人吉)시의 지하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1차 술덧에 쌀 및 구마의 지하수를 첨가하여 더 발효시킨 2차 술덧을 구마모토현 구마군 또는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에서 단식증류기로 증류하고 용기에 주입한 것이 아니면 '구마'의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
류큐 (琉球)	쌀누룩(흑누룩균을 사용한 것에 한정)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1차 술덧을 오키나와현에서 단식증류기로 증류하고 용기에 주입한 것이 아니면 '류큐'의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
사쓰마 (薩摩)	쌀누룩 또는 가고시마현산 고구마를 사용한 고구마누룩 및 가고시마현산 고구마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에 가고시마현 내(아마미(庵美)시 및 오시마(大島)군 제외)에서 단식증류기로 증류하고 용기에 주입한 것이 아니면 '사쓰마'의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
하쿠산 (白山)	흰쌀, 쌀누룩 및 이시가와현 하쿠산시의 지하수 또는 이와 양조알콜을 원료로 하여 이시가와현 하무산시에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용기에 주입한 것이 아니면 '하쿠산'의 산지를 표시하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됨. 다만 흰쌀, 쌀누룩에 사용하는 원료쌀은 농산물검사법(1951년 법률 제133호)에서 정하는 양조용 현미 1등 이상의 등급이 매겨진 것으로 정미비율 70% 이하인 것, 누룩쌀 사용비율 20% 이상인 것에 한함. 밀술은 '생원', '산폐원', 또는 '속양원'으로 하고, 술덧은 '증양', '액화제조'는 제외함

### 일본주류에서 유기농 및 유전자조작 등의 표시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류에 대한 유기농표시기준(2000.12.26, 국세청고시 제7호)'에 따라 주류제조시 유기농표시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유기농' 또는 '오르가닉(Organic)'이란 표시는 유기농 농산물가공주류의 제조방법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류에 대해 표시할 수 있으나 이를 의무화 하지는 않고 있다.

주류에 대한 유전자조작표시는 '유전자조작에 관한 표시와 관련한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준(2000년 농림수산성고시 제517호)의 가공식품 규정을 준용(일본주세통달 제8편 제86조의 6의 ①)하고 있다.

'주류에 대한 유기농표시기준에 따라 주류제조시 유기농표시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표 5 일본주류에 대한 의무표시 내용

주류제조업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	주류판매업자가 보세지역으로부터 수취하는 주류, 주류판매업자가 재병입하여 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
-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제조장 소재지	거래선 또는 재병입장소 소재지
용기용량(분말주는 중량)	용기용량(분말주는 중량)
주류의 품목	주류의 품목
주류의 알코올분(분말주는 제외)	주류의 알코올분(분말주는 제외)
세울적용구분(발포성 및 잡주에 한함)	세울적용구분(발포성 및 잡주에 한함)
발포성을 갖는 뜻 및 세울적용구분(기타발포성주류에 한함)	발포성을 갖는 뜻 및 세울적용구분 (기타발포성주류에 한함)

주: 표시사항은 상기주류의 포장에 대해서도 적용.

## 전통주 및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배려

수급조정 필요에 의해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주원료로 연간 100KL미만까지 단순증류소주 제조면허, 청주제조 후 주박으로 증류식소주제조 등은 예외로 신규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특산품 중 쌀, 보리, 고구마 또는 메밀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제조장이 소재하는 도·도·부·현이 신청하고자 하는 날이 속한 연도 앞의 3개년 평균 과세출고수량과 평균 소매수량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작은 경우에 제조면허를 허용(일본주세통달, 제9조 11호 단식증류소주)한다.

구조개혁특구에서 농가민박이나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특정농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쌀로 하는 기타양주(막걸리)를 제조·판매할 경우 제조면허시 필요한 최저생산량기준 적용을 배제하여 보다 쉽게 주류제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라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품목별, 제조장별로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신청자의 법률준수 및 경영기초 상황과 제조기술능력, 제조설비상황, 그리고 제조면허를 받고 1년간 최저생산량 등을 심사하여 제조허가를 하는데, 「구조조정특구법」에 의한 주세법특별조항에 따라 구조개혁특별구역으로 인정받은 지역에서 농가민박이나 농원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농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쌀로 자기 영업장에서 마시는 주류를 생산할 경우 제조허가에 필요한 연간 최저 제조수량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 특구 내 자기영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식사와 함께 제공할 때는 판매면허가 필요 없지만 부설 토산품판매장 등을 통해 특구구역 밖으로 판매할 때는 판매면허가 필요하다.

일본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해 연간 1,300KL이하 소규모 일본주업체가 생산하는 주류 중 200KL까지는 세금의 25%를 감면함으로써 영세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3. 일본 주류산업의 실태

#### 주류시장 연망

2008년 일본의 주류생산액은 대략 3조6천912억 엔으로 추정되는데 2001년의 4조2천155억 원에 비해 생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식품산업은 23조3천124억 엔에서 23조8천885억 엔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주류산업의 비중은 2001년의 18.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15.5%를 차지하고 있다.

주류의 종류별 생산액 규모는 생산량에 있어서 맥주(36.0%)와 잡주(25.1%), 리큐르류(14.7%), 소주(10.6%), 청주(7.4%)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생산액에서는 맥주(37.0%), 잡주(19.5%), 소주(14.9%), 청주(11.5%), 리큐르(8.6%)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소주와 청주가 상대적으로 고가 상품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약 2천500억엔 상당의 주류를 수입하는 한편 158억 7천만 엔 상당의 술을 수출하고 있다. 수입물량을 고려하여 일본의 주류 과세수량 변화추세를 보면 전통적으로 과세수량의 점유율이 높은 맥주, 발포주, 청주, 위스키류의 과세 수량이 줄어들고 소주(특히 증류식소주) 및 저알콜 주류인 스피리츠류, 리큐르류의 과세수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해 연간 1,300KL 이하 소규모 일본주업체가 생산하는 주류 중 200KL까지는 세금의 25%를 감면함으로써 영세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08년 일본의 주류시장은 대략 3조6천912억 엔으로 추정되는데 2001년의 4조2천155억 원에 비해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표 6 주류의 종류별 생산실태

단위: KL, 백만엔

구 분	2001		2005		2008(P)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청주	949,068	618,560	729,458	477,165	651,600	424,400
합성청주	64,140	24,317	65,170	24,728	49,400	20,600
소주	776,067	418,250	963,568	522,107	933,800	549,600
미린	106,017	46,076	110,724	48,103	113,700	46,000
맥주	4,777,660	1,981,663	3,613,177	1,502,040	3,170,000	1,367,000
과실주류	110,511	77,219	102,858	71,982	86,700	76,400
위스키	89,067	162,599	67,118	115,276	58,100	106,600
브랜드	13,284	30,663	7,537	17,447	5,800	13,900
스피리츠류	21,444	18,426	74,669	26,697	220,600	50,200
리큐르류	486,160	141,017	743,023	217,724	1,295,500	316,500
잡주	2,344,690	696,702	2,719,098	766,521	2,208,800	720,000
합 계	9,738,110	4,215,492	9,196,428	3,789,790	8,784,000	3,691,200

자료: 일간경제통신사, 일본 주류식품통계연보 08~09년판.

표 7 주류과세수량(일본산+수입주) 변화

단위 : 천KL

품 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청 주	898	842	753	729	715	676	652	
합성청주	67	64	64	65	59	56	49	
소 주	연속식	483	511	519	505	465	498	
	단 식	395	471	534	539	545	511	
	소 계	878	982	1,053	1,044	1,036	1,034	1,009
미 린	107	109	108	112	117	115	115	
맥 주	4,299	3,955	3,837	3,642	3,606	3,466	3,197	
과 실 주 류	과실주	270	248	241	257	263	238	267
	감미과실주	10	8	7	7	10	10	8
	소 계	280	256	248	264	272	248	275
위 스 키 류	위스키	106	97	86	84	78	74	70
	브랜드	15	13	11	10	9	9	8
	소 계	121	110	97	94	86	83	78
스피리츠류	29	52	81	83	102	129	228	
리큐르류	587	615	732	770	706	1,066	1,364	
잡 주	발포주	2,646	2,527	2,308	1,699	1,455	1,535	1,427
	기 타	12	54	272	1,047	1,325	856	793
	소 계	2,658	2,581	2,579	2,746	2,780	2,391	2,220
합 계	9,922	9,566	9,553	9,549	9,481	9,264	9,187	

### 일본의 주류시장 규모 변화추세

2007년 기준 일본의 전체 주류 소비액(시장규모)은 약 5조197억 엔으로 추정되며, 주류수입은 2006년의 2천283억 엔에서 2007년에는 2천386억 엔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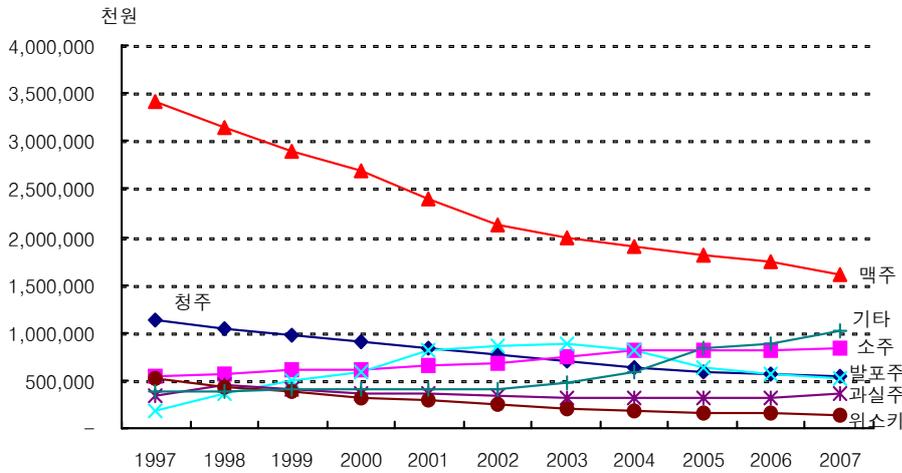
2007년 기준 일본의 전체 주류 소비액(시장규모)은 약 5조197억 엔으로 추정되는데, 주종별로는 맥주(31.9%) > 기타(20.3%) > 소주(16.6%) > 청주(10.7%) > 발포주(10.5%) > 기타(8.3%) > 과실주(7.3%) > 위스키(2.9%)의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 주류시장의 변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맥주와 소주, 청주를 많이 소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기타주류와 증류식소주, 스피리츠류 및 리큐르류의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맥주와 청부, 발포주, 위스키 및 브랜드 등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주류수입은 2006년의 2천283억 엔에서 2007년에는 2천386억 엔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 일본의 주류수입액을 주종별로 보면 포도주가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밖에 스파클링와인 18%, 위스키 10% 등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맥주나 탁주의 경우 수량측면에서는 각기 6.2% 및 0.6%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에서는 2.5% 및 0.1%만 차지하고 있으며, 와인이나 포도주, 위스키 등 고가의 주류는 수입량보다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주류의 종류별 매출액 변화추이



수입국을 보면 맥주의 경우 주로 아일랜드와 멕시코, 벨기에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스파클링와인은 프랑스, 포도주는 미국과 프랑스, 아르헨티나, 에칠알콜은 브라질, 브랜디는 프랑스, 위스키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8 일본의 주류수입 실태

단위: KL, 백만엔

구 분	2006		2007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맥주	37,707(7.3)	6,142(2.7)	31,830(6.2)	5,867(2.5)
스파클링와인	19,799(3.8)	39,111(17.1)	20,713(4.1)	42,832(18.0)
포도주	152,780(29.6)	96,389(42.2)	152,826(30.0)	103,451(43.4)
청주·탁주	3,534(0.7)	359(0.2)	2,928(0.6)	314(0.1)
발포주(과즙첨가)	9,798(1.9)	3,494(1.5)	3,541(0.7)	2,358(1.0)
맥아발포주	19,762(3.8)	1,666(0.7)	28,393(5.6)	2,421(1.0)
사과주 등	9,112(1.8)	2,310(1.0)	10,483(2.1)	2,567(1.1)
에칠알콜	96,956(18.8)	6,001(2.6)	94,694(18.6)	6,196(2.6)
브랜디·브랜디원주	4,600(0.9)	12,272(5.4)	4,463(0.9)	11,863(5.0)
위스키·위스키원주	17,996(3.5)	25,655(11.2)	16,929(3.3)	25,354(10.6)
리큐르등	18,752(3.6)	12,077(5.3)	21,014(4.1)	12,191(5.1)
기타 증류주	90,311(17.5)	14,052(6.2)	86,465(17.0)	13,425(5.6)
합성청주, 백주	17,362(3.4)	1,517(0.7)	17,693(3.5)	1,671(0.7)
합 계	515,477	228,315	509,676	238,614

주: 합계는 전체 주류수입 전체로 ( )는 주요 품목별 비중을 의미.

일본의 주류수출은 2006년의 141억6천만 엔에서 2007년에는 158억7천만 엔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주류수출은 2006년의 141억6천만 엔에서 2007년에는 158억7천만 엔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종별로는 청주가 4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밖에 맥주 17.7%, 위스키 7.5%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청주를 수출하는 대상 국가는 미국이 4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밖에 대만 24.1%, 한국과 홍콩이 각기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표 9 일본의 주류수출 실태

단위: KL, 백만엔

구 분	2006		2007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맥 주	27,029(57.4)	2,897(20.5)	23,130(51.7)	2,816(17.7)
포도주	422(0.9)	210(1.5)	340(0.8)	230(1.4)
청 주	10,269(21.8)	6,105(43.1)	11,334(25.3)	7,048(44.4)
사과주 등	680(1.4)	282(2.0)	829(1.9)	344(2.2)
에칠알콜	81(0.2)	152(1.1)	112(0.3)	146(0.9)
위스키	915(1.9)	1,070(7.6)	914(2.0)	1,192(7.5)
리큐르등	2,434(5.2)	1,347(9.5)	2,710(6.1)	1,586(10.0)
합 계	47,099	14,160	44,750	15,870

주: 합계는 전체 주류수입 전체로 ( )는 주요 품목별 비중을 의미.

2007년 일본의 대 한국 주류수출은 11억3,745만 엔, 수입은 151억2,647만 엔으로 같은 해 일본의 전체 주류수출액 158억7천만 엔 및 수입액 2천386억1천만 엔의 7.2% 및 6.3%를 차지하고 있다.

주종별로는 일본맥주 및 청주와 위스키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으로부터 기타증류주와 맥아발포주, 보드카 등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들의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2001년의 95.7리터에서 2006년에는 86.5리터로 감소하였다. 주종별로는 소주가 7.9리터에서 9.8리터로 늘어난 외에 대부분 주류의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 맥주가 46.2리터에서 32.3리터로, 청주가 9.4리터에서 6.7리터로 각각 감소하였다.

1인당 연간 주류소비에 지출한 금액도 1999년의 61,303엔에서 2006년의 48,644엔으로 줄어들고 있음. 주종별로는 소주가 6,012엔에서 7,972엔으로 증가한데 비해 맥주는 28,841엔에서 16,799엔으로, 청주는 9,721엔에서 5,375엔으로 각기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주류소비의 감소는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증대와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술에 취하기보다 조금씩 즐기면서 마시는 새로운 음주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10 일본의 대 한국 주류수출입 실태

단위: 천엔

구 분	수 출		수 입	
	2006	2007	2006	2007
맥주	293,567(34.0)	440,431(38.7)	179,305(1.2)	136,653(0.9)
스파클링와인	5,874(0.7)	555(0.0)	0	-
포도주	7,668(0.9)	4,203(0.4)	542(0.0)	2,277(0.0)
기타포도주	3,693(0.4)	3,024(0.3)	0	-
베르못	0	4,696(0.4)	0	-
청주	286,306(33.1)	465,185(40.9)	0	-
탁주·청주	-	-	282,666(1.9)	222,675(1.5)
사과주	2,911(0.3)	1,608(0.1)	153,291(1.1)	248,689(1.6)
발효주		-	11,269(0.1)	5,823(0.0)
맥아발포주			1,272,721(8.8)	1,988,931(13.1)
에칭알코올	1,814(0.2)		0	0
브랜디	2,352(0.3)	10,524(0.9)	0	0
위스키	183,628(21.2)	124,877(11.0)	19,636(0.1)	-
리큐르	34,722(4.0)	39,916(3.5)	127,683(0.9)	259,643(1.7)
럼	422(0.0)	0	0	0
보드카	0	0	1,178,645(8.1)	1,422,273(9.4)
기타증류주	-	-	11,282,340(77.8)	10,839,502(71.7)
기타알콜음료	-	-	2,891(0.0)	0
기타	41,441(4.8)	42,435(3.7)	0	0
합 계	864,398	1,137,454	14,499,720	15,126,466

주: 합계는 전체 주류수입 전체로 ( )는 주요 품목별 비중을 의미.

자료: 일간경제통신사, 주류식품통계연보 08~09년판.

표 11 일본의 1인당 연간 주류소비추세

단위: 리터, 엔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청주	수량	-	-	9.4	8.7	8.1	7.3	7.1	6.7
	금액	9,721	8,887	8,326	7,593	8,093	7,275	5,770	5,375
합성청주	수량	-	-	0.6	0.6	0.6	0.6	0.6	0.6
	금액	320	331	340	338	623	612	351	304
소주	수량	-	-	7.9	8.1	9.1	9.7	9.8	9.8
	금액	6,012	6,034	6,479	6,700	9,164	9,720	7,972	7,910
맥주	수량	-	-	46.2	40.7	37.2	35.6	33.5	32.3
	금액	28,841	26,723	23,898	20,976	37,374	35,643	17,467	16,799
위스키류	수량	-	-	1.4	1.2	1.1	1.0	0.9	0.8
	금액	3,729	3,146	2,847	2,492	1,095	967	1,562	1,467
과실주류	수량	-	-	2.7	2.7	2.4	2.3	2.4	2.3
	금액	4,008	3,667	3,480	3,426	2,429	2,294	3,134	3,006
합계	수량	-	-	95.7	93.1	89.7	89.0	88.7	86.5
	금액	61,303	58,387	57,055	53,760	90,112	89,217	49,596	48,644

자료: 일간경제통신사, 주류식품통계연보 08~09년판.

참고자료

- 김완배, 한국과 일본의 주류산업 비교, 서울대학교, 2007
- 권상일, 일본 행정개혁 이후의 국세청 감정관실 소개  
대한민국법제처, 주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008
- 배상면역, 조선주조사, 우곡출판사, 2007
- 윤석황, 일본의 전통주시장 동향, 농수산물무역정보, 2004.5
- 이동필, 일본청주산업출장복명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일본국세청, 일본주세법, 대한주류공업협회(역), 2008.10
- 일본국세청, 일본주세통달, 대한주류공업협회(역), 2008.10
- 일간경제통신사, 일본주류통계연보 2008~09년판  
\_\_\_\_\_, 주류식품통계월보, 2009 2월호
- 일본국세국, 특산품소주제조면허신청 등의 요령, 2008
- 일본세무서, 일반 주류소매업면허신청요령, 2009
- 일본세무서, 구조개혁특구에 있어서 제조면허 요령(특정농업자에 대한 탁주제조용), 2009
- 주류종합연구소, 주류종합연구소 개요, 2009
- 小鳥喜市郎, 야마나시현 주조조합의 수요개발활동, 일본양조협회지 Vol.97 No4 pp.236~  
239, 2002
- 山口隆英, 일본주의 해외시장에서 수용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2005
- 條田次郎, 일본의 술만들기, 음양고주의 등장, 중공신서, 2002
- 高兵春男, 두씨 천년의 지혜, 양전사, 2003
- 稻垣眞美, 일본의 명주 160선, 신조사, 2001
- 小川喜八郎.永山久春, 본격소주, 미야자기문고, 2002

# 중국 산동성 채소 생산 및 수출실태\*

신용광 · 윤종열

## 1. 중국의 채소생산 실태

### 주요 채소류 생산지역

중국의 채소 재배면적은 전체 농경지면적의 11%에 해당하  
는 17,720천ha이며 이 가운데 산동성이  
1,848천 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  
고 있다.

중국의 주요채소류 생산지역의 농산물 생산구조는 <표 1>과 같다. 중국 전체 농경지면적은 155,490천 ha이며 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55,029천 ha가 관개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채소 재배면적은 전체 농경지면적의 11%에 해당하는 17,720천 ha이며 이 가운데 산동성이 1,848천 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내몽골 자치구와 운남성은 현재 채소 재배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상 조건이 우수하여 채소생산 인프라가 정비된다면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 품목별, 산지별 출하시기

중국에서 채소 수출지역의 주요 출하시기는 <그림 1>과 같다. 중국 채소의 최대 수출지역인 산동성은 주요 채소 출하시기가 여름철이지만 기타 지역은 기후여건이 달라 4계절 모두 채소가 생산되고 있다.

\* 본 내용은 중국 산동성 현지조사(2009.5.12.~14.) 내용과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용광 부 연구위원과 윤종열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ykshin22@krei.re.kr, 02-3299-4333)

표 1 중국의 지역별 농산물 생산 구조 (2005년)

단위: 백만 톤

구분	농경지면적 (천ha) A	관개면적 (천ha) B	비율 B/A	채소면적 (천ha) C	비율 C/A	1인당 경작면적(ha)
전체	155,490	55,029	35%	17,720	11%	0.40
산동성	10,736	4,837	45%	1,848	17%	0.34
내몽고	6,216	2,817	45%	222	4%	1.39
허북성	8,786	4,579	52%	1,105	13%	0.39
강소성	7,641	3,835	50%	1,194	16%	0.45
감숙성	3,726	1,063	29%	307	8%	0.45
상해시	404	206	51%	131	32%	0.40
절강성	2,838	1,431	50%	667	23%	0.20
복건성	2,481	953	38%	632	25%	0.16
운남성	6,054	1,51	25%	492	8%	0.25

자료: 중국통계연감

그림 1 주요 채소의 품목별·지역별 출하시기

품목	출하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양배추	산동성												
	내몽고												
	허북성												
	상해시·절강성												
	광둥성·복건성												
대파	산동성												
	상해												
	복건성												
양파	산동성												
	감숙성												
	복건성												
	운남성												
당근	산동성												
	내몽고·허북성· 산서성												
	복건성·광둥성												
마늘	산동성												
무	산동성												
	내몽고·요녕성· 허북성												
	복건성												

## 2. 산동성의 주요 채소류 생산 실태

### 건고추

금년 중국 고추 재배 면적은 지속된 가격 약세로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하였으며 특히, 신강, 감숙, 내몽고, 길림 지역의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금년 중국 고추 재배 면적은 지속된 가격 약세로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하였으며 특히, 신강, 감숙, 내몽고, 길림 지역의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고추 가격 약세의 영향 뿐만 아니라 작년 곡물 과잉의 영향에 따른 중국 정부의 식량작물 생산 장려 정책으로 옥수수 등 식량작물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동지역 건고추 수확기는 한국보다 2달 정도 느린 11~12월이다. 이는 중국 건고추 수확 특성상 홍고추가 성숙된 후 노지에서 고추 성목을 뿌리 채 뽑아 2달 정도 노지에서 건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달리 수확기에 태풍 피해 등 기후적인 영향이 적어 노지에서 일괄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동지역은 기후여건이 좋아 1년에 2번 수확하고, 동북, 내몽골, 신장 지역은 산동지역에 비해 기온이 낮아 1년에 1회 수확한다. 최근 산동지역은 청도, 위해, 연태 등 항구 중심으로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산지가 점차 내륙인 내몽고, 신강, 동북 3성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 마늘

중국 마늘의 최대 주산지는 창산, 금향 지역이며, 금년 중국 마늘 재배 면적은 작년 가격 약세로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하였다.

금년 중국 마늘 재배 면적은 작년 가격 약세로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하였다. 주요 대체 작목은 밀로써 중국 정부에서 밀 재배 시 소득보전 직접 지불 혜택을 주고 있어 많은 농가들이 마늘 대신 밀 재배를 늘리고 있다. 마늘 후작으로는 배추, 옥수수, 대파, 부추 등이 재배되고 있다.

중국 마늘의 최대 주산지는 창산, 금향 지역이다. 창산 지역에서는 육쪽마늘, 금향 지역에서는 스페인산 마늘이 재배되고 있으며, 창산 지역의 금년 마늘 재배 면적은 1만 7천 ha로 작년보다 15% 감소하였고, 금향 지역의 마늘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20% 감소한 5만 3,600ha로 추정된다. 창산 지역의 10a당 마늘 생산량은 1,500kg이며 금향 지역의 10a당 마늘 생산량은 2,200kg이다.

금년 마늘 산지 가격은 창산 지역이 500g당 2.5위안이며 금향 지역이 500g당 65전으로 작년보다 각각 20%, 16%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마늘 재배 단지



그림 3 양파 재배 단지



## 양파

금년 중국 양파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20% 내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속된 양파 가격 약세로 양파 재배 농가의 소득 불안을 초래하였고, 양파의 저장, 가공업자들이 영업에도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산지인 산둥 동남 지역, 감숙, 내몽고 지역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양파 단수는 구 비대기 기온으로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여 생산량 감소폭은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5월 하순에는 조생종 수확이 마무리되고 중생종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기상 여건에 따라 5~7일 가량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양파 작황 부진으로 상품성이 저하되어 수출물량 확보에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동성 평도지역의 양파 재배 면적은 마늘 재배 면적보다 규모가 작으며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농가당 경지면적은 2~3무 내외이다. 5월 현재 조생종 양파가 출하되기 시작하였고, 산지 가격은 재배 면적 감소로 kg당 1.4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금년 중국 양파 재배 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속된 양파 가격 약세로 양파 재배 농가의 소득 불안을 초래하였고, 양파의 저장, 가공업자들이 영업에도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 3. 주요 채소류 수출 실태

### 양념채소류 수출 실태

청도다해식품유한공사의 양념채소류 수출량은 건고추와 마늘이 각각 3,000톤, 양파가 4,000톤이다.

이 중 건고추는 대부분 유통공사의 MMA 입찰 물량이고 민간 수출은 소량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유통공사와의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민간 업체보다 거래의 신뢰도가 높아 입찰 품질 기준을 유지할 경우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양념채소류 거래 방식은 과거의 선물량 후대금에서 선대금 후물량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고추 수출형태는 건고추, 냉동고추, 고춧가루, 고추장, 양념다데기 등이다. 냉동고추는 중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전량 수출되고 있다.

2009년 5월 상순 마늘 수출 가격(FOB 청도 가격)은 통마늘이 톤당 250달러, 창산마늘이 톤당 270달러이다.

고추 수출형태는 건고추, 냉동고추, 고춧가루, 고추장, 양념다데기 등이다. 냉동고추는 중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전량 수출되고 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냉동고추는 마진이 적지만 물량이 많아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냉동고추는 수확 시기에 홍고추를 일괄 구입하여 제조하고 냉동저장한 후 방출한다. 금탑은 동북 3성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데 수확기 때 산지를 순회하여 직접 물량을 확보한다. 익도홍은 취급 비율이 낮아 인근의 덕주 지역에서 물량을 확보한다. 2009년 5월 현재 익도홍 산지 가격은 톤당 5,500~6,000위안, 금탑은 6,800위안~7,000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건고추 CIF 가격(익도홍 기준)은 톤당 2,100달러이며, 꼭지를 제거한 건고추는 톤당 1,500달러이다.

한편, 2009년 5월 상순 마늘 수출 가격(FOB 청도 가격)은 통마늘이 톤당 250달러, 창산마늘이 톤당 270달러이다. 한국으로 수출된 마늘은 대부분 음식점, 요식업체로 판매된다. (주)황보마을에서는 국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소포장한 다진마늘 납품을 계획하고 있다.

명승국제무역의 작년 신선양파 수출 단가(CIF 기준)는 톤당 170달러로 청도 관내 경쟁업체보다 5% 저렴한 가격에 수출하였다. 이 물량은 저장 비용이 톤당 10달러 저렴한 양파로 이는 단기적으로 수확 후 즉시 수출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톤당 유통비용(170달러 기준)은 원료구입비 105달러, 포장비 5달러, 내륙운송비 20달러, 해상운임비 30달러, 수출자 이윤 10달러이다.

### 김치 수출 실태

청도삼구식품유한회사는 2006년에 설립하였고 김치 수출이 주력 사업이다. 최근에는 건강식품인 “나또(なっとう)” 생산 체계를 갖추어 일본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공장의 전체 부지는 8,500평이며, 이 중 김치 가공 공장 4,000평, 고춧가루 가공 공장 1,500평, 나또 생산 공장 1,000평과 나머지 부지는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4 삼구일품 김치



그림 5 식품 및 상품 기준 인증서



원재료 특히, 배추는 산동, 내몽고 지역에 4개의 재배 단지를 직접 운영하여 조달하고 있다. 배추는 현지 농가와의 계약 재배로 생산하고 회사에서 규격화된 종자, 비료, 농약 등을 지정·공급한다. 계약 단가는 배추 수확기 산지 시세를 고려하여 책정하는데 계약 재배의 목적이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 단가는 산지 가격보다 5% 높게 책정하고 있다.

연도별 김치 생산량은 창립연도인 2006년에는 5,000톤, 2007년은 1만 톤, 2008년은 7,000톤이며 현재 공장 규모를 고려할 경우 연간 최대 김치 생산량은 약 1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생산공정은 배추납품→절단→세척→절임→탈염 및 세척→탈수→양념→포장→숙성→출고의 단계를 거치며 김치 1일 생산량은 25~28톤이다. 김치의 재료별 수율은 배추 75%, 양념류 25%이다.

전체 김치 생산량 중 95% 이상이 수출용이고, 내수용은 5%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수출량은 2006년 4,000톤, 2007년 9,800톤, 2008년 6,650톤이며 주요 수출국은 한국과 일본으로 한국 수출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배추 구매에서 가공, 수출까지는 대략 5일 정도가 소요되며 거래 중인 한국회사는 (주)초록식품이다. 한국에서는 '초록옥' 김치로 유통되며 대부분 대형요식업체, 식자재 업체로 납품되고 있다.

국가별 수출 단가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톤당 500달러, 일본으로의 수출이 톤당 700달러로 일본 수출용 김치 단가가 한국 수출용 김치 단가보다 40%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김치는 수출 적합 기준이 까다로워 이러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생산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치 가공공장 위생 시설은 A등급으로 관리가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중국인들도 김치 공장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져 오히려 한국인 소유의 중국내 김치 공장보다 우수한 경우도 많다.

최근 한국으로의 김치수출량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 감소 원인은 첫째, 2008년 하반기 금융 위기에 따른 고환율 및 경기 불황 둘째,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의 원산지 표시제 강화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김치 납품은 외상거래가 관행적으로 행해지는데 최근 경기 불황으로 자금 회전에 차질이 생겨 영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김치 수출 둔화는 경기 불황 여파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 보따리상 (파이공)에 의한 농산물 반출 실태

보따리상 일명 '파이공'은 한국의 공산품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판매한 금액으로 농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전문 파이공은 청도, 연태, 위해 등 항구의 여객터미널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상점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며 주요 품목은 건고추, 참기름, 참깨, 검정콩, 흑미, 찹쌀

연도별	수출량은
2006년	4,000톤,
2007년	9,800톤,
2008년	6,650톤이

며 주요 수출국은 한국과 일본으로 한국 수출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 타이공은 청도, 연태, 위해 등 항구의 여객터미널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상점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며 주요 품목은 건고추, 참기름, 참깨, 검정콩, 흑미, 참쌀 등이다.

등이다. 농산물은 전문 타이공 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객들도 구매할 수 있으며 전문 타이공의 1인당 연간 구매 횟수는 100회 정도로 추정된다.

그림 6 보따리상 거래장면(항구)



그림 7 압축 건고추



표 2 청도 농산물 가격

단위: 위안/kg

건고추	참깨	참기름	녹두	땅콩	검정콩	잣
18~20	16~20	24~28	8	10	9	140

청도 터미널에서 휴대 반입되는 농산물은 건고추, 참깨, 땅콩 등이며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농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국정부의 반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청도 터미널에서 휴대 반입되는 농산물은 건고추, 참깨, 땅콩 등이며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농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국정부의 반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2009년 3월 9일부터 참기름 및 잡곡류 휴대반출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다.

중국의 농식품 안전조치에 따른 반출 통제 강화 및 한국의 물량한도 단속강화로 월간 농산물 반입량은 900톤 정도로 추정된다. 반입품목은 시세차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품목 위주로 반입되는데 최근에는 고추, 참깨, 땅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인당 휴대반입물량은 50kg이며 품목별 한도량은 5kg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따리상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90년대 후반('99년: 고추 5,500톤, 참깨 7,200톤, 간마늘 900톤)에는 수천 톤 단위로 반입되었다.

표 3 품목별 월간 반입량 추정

구분	고 추	참 깨	땅 콩	기 타	계
물량(톤)	130(250)	260	260	130	780(900)
비율(%)	17	33	33	17	100

주: ( )는 건고추 수율(52%) 적용.

보따리상은 고추, 참깨, 땅콩, 술, 잡화 등을 운반하는 일반 보따리 무역상과 회사 단위나 개인의 급송화물 등을 운반하는 수화물 운반책 보따리상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보따리상 수집책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후자는 주로 양국에 있는 운송전문 회사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수집상의 주요 유통경로는 5단계이다. 이들은 일부 소매상으로 판매하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도매상을 통해 판매된다.

보따리상은 고추, 참깨, 땅콩, 술, 잡화 등을 운반하는 일반 보따리 무역상과 회사단위나 개인의 급송화물 등을 운반하는 수화물 운반책 보따리상으로 구별된다.

그림 8. 보따리상 휴대농산물 유통경로



그림 9. 보따리상 수화물 유통경로



일반적으로 파이공의 입국 편도 1회당 순수익은 3만 원 정도로 파악되며 출국시 반출하는 물품의 마진 및 50kg 한도 초과물량 등을 감안할 시 왕복 수익은 6만 원 ~7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4 보따리상 순수익 내역

구 분 (1항차/편도기준)			산출기준(50kg기준)
물품 구입가격(a)	50kg	144,160원/고추,참깨, 땅콩	(a) 품목별 구매가격('09.3.13기준) 압착고추(5kg): 18,500원×2개= 황색참깨(5kg): 18,550원×4개= 땅콩(5kg): 8,240원×4개= 팥(5kg): 10,300원×1개= 간혹두(5kg): 9,270원×1개=
도착 비자비용(b)	1인	32,980원(160위안)	
선박(페리)비용(c)	1인	50,000원(이코노미)/ 선사 상인회 할인적용	
터미널 이용료(e)	1인	3,200원	
계(f)		230,340원	
한국 판매가격(g)	50kg	261,000원	(g) 주반입품목 판매가격(50kg기준) 압착고추(5kg): 37,500원×2개= 황색참깨(5kg): 29,000원×4개= 땅콩(5kg): 17,500원×4개=
순수익	(g-f)	30,660원	

## 4. 국내 채소시장에 대한 시사점

산동지역은 한국과 기후조건이 비슷하여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채소류의 재배 시기와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산동지역은 넓은 평야지대가 분포하고 있어 농산물의 대규모 재배에 유리하다. 대한민국 주요 수출 품목인 건고추, 마늘, 양파는 대규모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품목의 생산비는 국내산의 15% 이상 낮은 수준이다.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김치,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류의 대한민국 수출이 부진하였다.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김치,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류의 대한민국 수출이 부진하였다. 더욱이 금년 중국의 주요 양념채소류 생산량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한민국 수출여력이 현재보다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치는 한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계약 업체의 대금 결제 지연과 소비둔화로 중국의 김치공장 가동률이 작년에 비해 50% 떨어진 상황으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의 수입 부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식량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식량안보차원에서 곡물 재배에 대한 소득 보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옥수수, 밀 등 곡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무당 260위안을 직접 보조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곡물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반대로 양념채소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중국 채소류의 대한민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 참고자료

일본농축산농업진흥기구. 2009. “中國における品目別野菜産地の概況と生産・出荷動向”. 「野菜情報」

중국통계연감.

# 몽골의 농업\*

허 장

## 1. 서론

몽골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연계된 해외 투자가 확대되면서 경제의 확대성장을 꾀하고 있으며, 넓은 영토와 지리적 근접성 등에서 해외 농업개발을 위한 투자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몽골은 1991년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구 소련으로부터 받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이 무너지고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후 풍부한 광물자원과 연계된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경제의 확대성장을 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늘어나고 있다. 넓은 영토와 지리적 근접성 등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투자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 1. 독립 과정

- 몽골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수흐바타르(D.Sukhebaatar)는 몽골인민(혁명)당을 창당, 소비에트 적군과 연합하여 중국군을 몰아내고 독립선포(1921.7.11)
- ※ 몽골은 이날(7.11)을 혁명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으며, 7.11~13간을 몽골민족 최대의 축제인 “나담축제”기간으로 선정
- 1924.11.26 새로이 제정된 헌법에 따라 몽골인민공화국 선포
- ※ 세계 2번째의 사회주의 국가
- 1939. 5월~8월 할хин골 전쟁: 일본이 몽골지역에 침입하자 러시아와 연합하여 격퇴
- 중국은 1946년 2월 외몽골을 몽골인민공화국으로 인정하였으나, 내몽골은 중국의 자치구로 편입(1947.5)
- 1961년 UN 가입

\* 본 내용은 몽골 현지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heojang@krei.re.kr, 02-3299-4357)

2. 개혁·개방정책 추진

- 구 소련의 개혁·개방의 영향을 받아 몽골도 개혁·개방시작
  - 인민혁명당은 몽골판 페레스트로이카인 신칠렐(Shinechlelt) 정책 채택(1988.12)
  - 인민혁명당 일당독재 포기 및 자유총선 실시 (1990.7)
- 1990.9월 인민혁명당 소속으로 대통령에 선출(간선)된 Ochirbat는 민주화 및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
  - 정부조직법, 인권법, 사유재산법 등 제반입법 추진
  - 1991년 마르크스·레닌주의 포기를 선언(인민혁명당)하고 신헌법 제정에 착수
- 1992.1.13 신헌법 제정
  - “사회주의 국가건설” 문구 삭제(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로서는 최초)
  - 국호를 「몽골인민공화국」에서 「몽골국 (Mongolia)」으로 변경
  - 자유시장경제체제 지향 및 중립·비동맹 민주국가 표방
- 1993.6 Ochirbat 대통령 선출
  - 인민혁명당 대선인후보 실패후 야당 단일후보로 출마, 당선
- 1996.6 총선실시
  - 야당연합(민족민주당+사회민주당)인 「민주연합」 압승으로 「인민혁명당」의 75년 통치 종식 및 「민주연합 연립정권」 출범
- 1997.5 N.Bagabandi 대통령 선출(직선)
  - 인민혁명당 소속이었으나 법규정에 따라 취임전 당적 이탈
- 2000.7.2 총선실시
  - 인민혁명당의 압승(76석중 72석 획득)
- 2000.12.14 헌법개정
- 2001. 6 대통령선거 실시 - N. Bagabandi 대통령 재선
- 2004. 6. 27 총선 실시
  - 인민혁명당의 과반 확보 실패로 민주연합의 Elbegdorj 총리를 수반으로 연립내각 구성
- 2005. 6 대통령 선거 실시, E. Enkhbayar 대통령 선출
- 2006. 2 Enkhbold 총리를 수반으로 인민혁명당의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각 구성



## 1. 일반 개황

몽골의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7.4배이나 대부분 목초지와 산림으로, 농경지는 전체 경지면적의 1%인 약 1,200천 ha에 불과하여 우리나라보다 적다. 인구는 약 260만 명이며 그 가운데 100만명 가까운 인구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몰려 살고 나머지는 21개의 아이막(우리의 도에 해당)에 흩어져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내시장이 협소하며 도로, 통신 등 사회 기반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농경지 면적의 협소, 인구의 과소로 농업 생산이 부족하여 해마다 많은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저개발 국가이다.

자연조건으로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겨울(10월경부터 4월경)에 몹시 춥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몹시 기온이 높고 평균 일조량(3,000시간, 125일 정도)이 높아 작물생장에 도움이 된다.

울란바토르에서 제2의 도시인 에르데네트, 제3의 도시인 다르항까지는 2차선 포장도로가 있으며 각각 약 3시간 소요된다. 다르항에서는 러시아까지 도로가 이어지며 국경까지 1~2시간정도 걸린다. 그러나 주요 도시를 잇는 주 도로 이외에는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다. 철도는 중국에서 울란바토르, 다르항을 지나 러시아까지 가는 철도가 있으며 보통 하루에 한 번 운행한다.

농경지 면적의 협소, 인구의 과소로 농업 생산이 부족하여 해마다 많은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저개발 국가이다.

- 국토면적 : 1,567천km<sup>2</sup> (한반도의 7.4배)
  - 국토이용 : 목축지(80%), 산림(10%), 경작지(1%), 기타(9%)
  - 경지면적 : 130백만ha(농경지 1,200천ha)
- 인구 : 259만명(약 96만명이 수도에 거주, 2006)
- 인구증가율 : 1.4%
- 인구밀도 : 1.52명/km<sup>2</sup>
- 평균수명 : 65.2세 (남62.9세, 여 67.6세)
- 인구구성 : 0~14세(38%), 15~64세(58%), 65세 이상(4%)
- 종족 : 할호몽골족(90%), 카자흐족(5.9%), 브리아드계(2%) 등 17개부족
- 행정구역 : 수도 울란바토르, 21개 아이막(우리의 도에 해당)과 348개 슝(우리의 군에 해당)과 박(우리의 면에 해당)이라는 하부단위 조직
- 지형 : 고원국가로 사막이 전국토의 40%(평균고도 : 1,500m), 서고동저
- 기후 : 건성냉대기후
- 평균기온
  - 연평균 -2.9℃
  - 11월~3월까지 영하(1월~2월은 -20℃), 여름에는 33~38℃
- 강수량
  - 연평균 강수량 233mm
  - 알타이산맥 북서면 600~1,000mm, 흡수굴 산악지대, 향가이 산맥 400~500mm, 동부평원 250~300mm, 서남부 100~150mm

## 2. 경제 개황

최근의 몽골 경제는 10% 가까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7년 GDP는 전년에 비하여 9.9% 성장하였고, 2003~2006 기간에는 평균 8.7%를 기록하였다. 물가상승률은 6.2%(2006)로 한자리 수였다. 하지만 아직도 1인당 GDP는 2006년 기준으로 1,000달러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국의 하나로서 구리, 금, 형석 등 지하자원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산물 중에서는 전 세계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캐시미어, 섬유, 동물기죽, 육류 등이 주된 수출 품목이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미국이다. 주된 수입 품목은 소비재, 석유, 기계류, 식료품, 금속 등이며 수입국은 러시아, 중국이다.

표 1 월별 온도, 습도, 강우량

월별	온도(섭씨)	습도 (%)	강우량 (mm)
1	-26.1	75	1.5
2	-21.7	73	1.9
3	-10.8	66	2.2
4	0.5	50	7.2
5	8.3	47	15.3
6	14.9	56	48.8
7	17.0	65	72.6
8	15.0	65	47.8
9	7.6	64	24.4
10	-1.7	65	6.0
11	-13.7	72	3.7
12	-24.0	75	1.6
연간	-2.9	64	233.0

자료: 국립중자원(2008).

표 2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국내경제	GDP	억 달러	17	19	27	..	..
	1인당 GDP	달러	652	745	1,047	..	..
	경제성장률	%	10.7	6.3	8.4	9.9	..
	재정수지 / GDP	%	-3.8	3.2	3.9	2.2	-2.5
	소비자물가상승률	%	8.2	12.7	5.1	9.0	10.5

표 2 주요 경제지표(계속)

	경제지표	단 위	2004	2005	2006	2007	2008
대외거래	환율(달러당, 연중)	Tug	1,185.3	1,205.3	1,165.4	1,171.1	..
	경 상 수 지	백만 달러	-25	-5	109	..	..
	상 품 수 지	"	-29	-29	189	..	..
	수 출	"	872	1,069	1,545	..	..
	수 입	"	901	1,097	1,357	..	..
	서 비 스 수 지	"	-165	-62	-37	..	..
	자 본 수 지	"	-23	46	181	..	..
외채현황	외 환 보 유 액	"	236	430	926	1,195	..
	총 외 채 잔 액	"	1,518	1,327	1,444	..	..
	단 기 외 채	"	167	25	50	..	..
	총외채잔액/GDP	%	89.3	69.8	53.0	..	..
	D S R	%	2.9	2.6	2.2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돼지고기, 닭고기가 쇠고기 값보다 비싸며, 특히 돼지고기는 세 배가 넘는다. 육류에서는 양고기가 가장 저렴하며, 채소 등 신선농산물은 몽골 내부에서의 생산은 적고 대부분 인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몽골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00년대 들어 증가속도가 커져 가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2억불 정도에 그치고 있다. 주요 투자국은 2004년 까지 보면 중국이 전체 투자액의 40%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이어서 캐나다(14%), 미국(10%), 한국(7%), 일본(5%), 러시아(3%) 순이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광업이 대부분이며 그 뒤를 무역업, 경공업, 금융업, 원료가공업, 건설업 등이 있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관련한 식품음료산업부문은 16백만 달러, 농업부문은 10백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조사된 몽골의 생활경제는 다음과 같다(Tg/kg, 1 Tg는 약 1원). 밀가루 700, 쌀 1,300, 돼지고기 9,500, 양고기 2,800, 닭고기 3,700, 쇠고기 3,100, 배추 600, 양파 800, 설탕 800, 소금 350, 감자 950으로, 특이한 것은 돼지고기, 닭고기가 쇠고기 값보다 비싸며, 특히 돼지고기는 세 배가 넘는다. 육류에서는 양고기가 가장 저렴하다. 채소 등 신선농산물은 몽골 내부에서의 생산은 적고 대부분 인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 3. 농업 개황

유목에 의존하던 몽골에서 본격적인 정착농업의 역사는 극히 짧다. 부분적으로 정착, 경종농업이 영위되기는 하였겠지만 몽골이 공식적으로 경작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1959년으로 2009년에 50주년이 된다.

구 소련의 지원을 받던 1976년 273,000ha에 밀을 파종할 정도이어서 1991년 시장

경제 도입 전까지는 식량(밀) 자급을 이루었고 러시아에 밀, 감자를 수출하기도 하였다. 이후 국영농장을 해체하고 사유화하면서 기상변화와 농기계 부족, 전문가 부족 등으로 농업 생산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이제는 80%에 이르는 식량을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농지가 경작면적의 1%인 1,300천 ha이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재배면적은 70만ha 정도이며, 관개재배 가능면적은 25,000ha이다. 따라서 경지의 절반 가량이 15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몽골 정부로서는 경작지의 정비, 파종면적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농지가 경작면적의 1%인 1,300천 ha이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재배면적은 70만ha 정도이며, 관개재배 가능면적은 25,000ha이다.

표 3 농지 이용형태

단위 : 천ha

이용형태	1989	1995	1999	2004	2005	2006
농업용지(a)	125,532	118,469	130,358	(125,000)	(125,000)	(125,000)
-경작지(b)	1,375	1,322	1,191	(1,300)	(1,300)	(1,300)
-목초지(c)	124,157	117,147	129,091	(123,700)	(123,700)	(123,700)

주: ( )수치는 이전(1989, '95, '99년)의 면적을 감안한 추정치.  
 자료: 국립중자원(2008).

국내총생산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1.7%(2008)이며, 총 노동인력의 40%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2007년 성장률은 15.8%(Asian Development Bank, 2008)로 GDP 성장률 9.9% 중 3.7% 포인트를 차지하였고, 이 해의 온난한 겨울철 기온으로 인해 2008년에도 농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축산업을 제외하고는 몽골에서는 밀, 감자, 채소가 주작물이다. 밀의 생산량은 상당히 가변적이다. 관개면적이 적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낮아 1톤 정도에 불과하며, 자급률은 50% 이하로서 연간 4만톤 정도를 수입한다(가츠오르트 농장과 같은 일부 생산성이 뛰어난 외국인 합작농장에서는 ha 당 5톤 가까이 생산한다고 한다).

그나마 2008년에 비가 많이 와 밀 25만 톤이 수확되었고, 이에 따라 자급률이 27%에서 50%로 크게 늘었다. 밀의 파종 시기는 5월 10일 정도로, 관개지역은 4월 말에도 가능하다.

축산업을 제외하고는 몽골에서는 밀, 감자, 채소가 주작물이며, 관개면적이 적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낮아 1톤 정도에 불과하며, 자급률은 50% 이하로서 연간 4만톤 정도를 수입한다.

표 4 주요 작물별 생산현황

단위: 천 톤, (수량; 톤/ha)

	1989	1995	1999	2004	2005	2006
곡류	839.1 (1.25)	261.4 (0.73)	169.5 (0.61)	138.5 (0.80)	75.2 (0.47)	138.6 (1.10)
- 밀	686.9 (1.05)	256.7 (0.74)	166.7 (0.61)	135.6 (0.81)	73.4 (0.48)	127.8 (1.08)
감자	155.6 (12.35)	52.0 (8.39)	63.8 (7.25)	80.2 (8.83)	82.7 (8.48)	109.1 (10.17)
채소	59.5 (14.17)	27.3 (8.53)	39.0 (8.13)	49.2 (10.00)	64.0 (10.87)	70.4 (11.97)
사료작물	551.0 (3.73)	18.7 (3.12)	5.3 (3.12)	850.5	845.1	983.3

자료: 몽골 통계청 ('04~'07년의 사료작물은 건조생산량)(농촌진흥청, 2008에서 재인용).

표 5 주요 작물별 생산현황(2008)

구 분	생산량(톤)	재배면적(ha)	생산성(톤/ha)
곡 물	114,500	112,900	1.01
감 자	113,600	11,600	9.79
채 소	79,100	6,100	12.97

자료: 녹색농업기술원 제공.

표 6 주요 작물별 자급률

구 분	자 급 률 (%)	
	2007년	2008년
밀	27	57
감 자	86	100
채 소	40	60

자료: 국립종자원(2008).

감자는 100% 자급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러나 종서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감자 바이러스 감염이 심하여 수량증대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ha당 생산량은 평균 10 톤 정도(우리나라는 ha당 약 27~28톤)이며, 재배기간은 5월 중순에서 9월 하순 정도까지이다.

<가츠오르트(Gatsourt) 농장>

- 셀렝게 아이막의 캐나다-몽골 합작 대규모 농장
- 2009년에는 21,000ha 식재(총 65,000ha이나 매년 그 중 3분의 1만 재배)
- 밀 이외에 감자는 ha당 40톤, 유채 ha당 4톤을 생산
- 관수기 50m, 80m 짜리 여러 개 보유하고 있음.
- 밀 저장 사일로(개당 300톤 저장)에서 건조 중, 건조저장시설은 중국제
- 종사인원은 여름엔 300명, 겨울엔 70명
- 420마력 트랙터
- 밀 2만톤 수확

농업생산의 80%는 축산업 부문이 담당하고 있으며, 2008년 총 가축 수는 42백만 마리로 추산된다. 이는 몽골 전체 인구의 15배가 넘는 엄청난 숫자이다. 최근 늘어난 가축은 주로 양과 염소인데, 힌티, 투브, 불간, 셀렝게 아이막 등에서는 늘어난 가축으로 인해 농장에 피해를 주고 그에 따른 분쟁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목민이 집약농장으로 정착하여 육류와 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몽골 유목민의 돼지 사육 경험이 적어 생산량도 적다. 돼지가 추운 날씨로 인해 열량을 많이 소비함에 따라 체중은 90kg 내외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는 쇠고기 값의 3배 정도로 비싸다. 양계는 울란바토르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으며 사료공급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계란은 6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농지의 임차시 임차 허용규모는 2008년까지는 3,000ha였으나 최근 20,000ha로 대폭 늘어났고, 채소재배시에는 200ha이다. 이는 자본과 기술을 갖춘 국내외 업체의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함과 아울러 방치된 농경지를 활용하려는 몽골 정부의 의도가 담긴 정책변화이다. 임차기간은 최대 60년이나, 초기 임차에는 5~15년 정도가 보통이라고 한다.

농지는 채소 농경지, 밀 농경지, 과수 농경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농경지는 수자원 확보 여부에 따라 임차료가 다르다. 즉, 물 확보가 여의치 않은 곳은 386~700 Tg/ha, 물가 근처는 700~1,250 Tg/ha이며, 채소의 경우 물가 근처인 농경지는 1,200~8,000 Tg/ha까지 이르기도 한다. 수자원은 흙스굴 등 호수와 강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관정 100미터 정도에서 용수를 확보할 수 있으나(충적층) 오염의 가능성이 있고 조사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몽골정부는 농업발전 국책사업으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3개년 계획(2008~2010)’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식량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2007년 3급지(휴경

농업생산의 80%는 축산업 부문이 담당하고 있으며, 2008년 총 가축 수는 42백만 마리로 추산된다. 이는 몽골 전체 인구의 15배가 넘는 엄청난 숫자이다.

농지는 채소 농경지, 밀 농경지, 과수 농경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농경지는 수자원 확보 여부에 따라 임차료가 다르다.

몽골정부는 농업발전 국책사업으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3개년 계획(2008~2010)'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지) 이용을 위하여 300억 Tg를 지원하는 국책사업이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새로 24만 ha에 경운작업을 하였다. 이 사업을 위하여 각종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즉, 트랙터 등 농기계, 과수, 비료, 농약 등에 면세혜택을 주고 밀 생산도 면세를 한다. 농기계에 대한 지원으로는, 농기계 구입시 50%를 정부가 보조하며, 융자는 10% 선수금(자부담)에 4년 동안 10%씩 상환한다. 트랙터는 기존 50%에서 90%로 융자지원 비율을 높이고 3년에서 5년까지로 상환기간을 연장하였다.

관수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의 수리시 30~35%를 지원하고, 휴경지에 트랙터 작업시 기름값도 지원한다.

2007년까지 밀을 재배하여 밀가루공장에 납품하면 톤당 6만Tg를 지원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8만Tg로 인상하였다. 밀의 톤당 수매가는 40만Tg 정도이다. 채소의 경우 안정적인 판매를 위하여 정부가 60%를 수매한다.

300개가 넘는 각 군마다 비닐하우스, 소형 창고, 트랙터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인데, 동 국책사업이 종료되는 2010년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연장될 수 있으나 아직 미확정 상태이다.

#### 4. 몽골 농업의 SWOT

표 7 몽골의 일반적 SWOT

강점(Strengths)	기회(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부한 광물자원(석탄, 몰리브덴, 구리, 우라늄 등): 개발가능 광물자원이 80여 종</li> <li>- 광대한 초원과 축산물</li> <li>- 아름다운 자연환경</li> <li>- 적극적인 시장경제 및 대외개방 추구</li> <li>- 낮은 문맹률</li> <li>-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등 잠재시장이 인접한 지정학적 교통요지 및 남북한 동시외교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혁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높은 의지와 지지</li> <li>- 정부의 적극적인 광물자원 개발 및 인프라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ia Highway, 범아시아 횡단철도 등 국제물류 개선 프로젝트 추진</li> <li>· IT 및 지식산업 투자 확대</li> </ul> </li> <li>- 인접시장인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잠재성 연계 확대</li> <li>- 선진국 및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원에 의한 외국인 사업기회 확대</li> <li>- 우호적인 한국관 및 한류 열풍 지속</li> <li>- 환경 및 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 등</li> </ul>
약점(Weakness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륙국이라는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li> <li>- 인프라 부족(철도와 도로 부족 등)</li> <li>- 기상조건 불리(혹독하고 긴 겨울)</li> <li>- 인구의 절대 부족, 내수시장 협소</li> <li>- 시장경제 경험 미숙, 낮은 재정자립도</li> <li>- 낙후된 기술과 제조업 미비 등</li> <li>- 낮은 재정자립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선발 진출국들의 자원에 대한 탐사 및 채굴 강화</li> <li>- 수송비 과다부담에 따른 경제성 저조(자원 개발)</li> <li>- 중국의 상권 장악</li> <li>- 과다한 대외 채무, 불안한 안보요인 등</li> </ul>

자료: 정재원, 유민우(2006), p.72.

## 몽골 농업의 SWOT

몽골 농업의 강점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에 내외국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몽골 외국인투자법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불법 몰수 금지(8조 2항), 외국인 투자자 차별 금지(9조), 자본금 국외송금, 수입, 이윤 등 국외 송금 권리 향유(10조), 외국인 투자기업(및 외국법인 지사)은 계약에 따라 토지사용권 획득 가능(21조) 등이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11조). 넓은 영토에 경작되지 않고 있는 유휴지가 많다는 점과 정부의 농경지 확대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고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외농업 개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고려할 때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몽골의 인구가 적고 국민소득 수준이 낮아 내수시장이 협소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들 수 있다. 인구과소는 또한 대규모 영농에 필요한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낳는다. 영농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북한 인력 등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대규모로 이를 활용한 예는 아직 없다. 또한 별도의 협정이 없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몽골에서 취업하게 되면 일정금액(월 21만 6천Tg)을 몽골 노동부에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자금은 몽골 실업자 구제기금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이 밖에 단모작 지역인데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연중 농산물 공급능력이 낮다는 점, 그리고 용수부족과 운송망, 관개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부족도 약점이다.

몽골 농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적 요인으로는 이 나라가 유목국가에서 근대적 정착 국가로 바뀌면서 고기류 위주에서 밀 등의 곡류와 채소류의 소비가 늘어날 전망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농업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밀의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경지확대, 생산성 증대를 통한 생산량 증대가 몽골 정부의 농정에서의 지상과제의 하나이며, 따라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9년 1월 몽골과 중국 내몽골(중국 관문인 자민우드)을 연결하는 철도가 착공되는 등 내륙국가인 몽골이 외부로 진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UNESCAP이 검토중인 유라시아 횡단철도 노선 가운데 부산~신의주~베이징~몽골~울란바토르~모스크바~유럽이 가장 짧은 수송거리로 유망한 상태이다(김주영, 2003).

몽골 농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일교차와 연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으며, 작물 생육기간이 짧아 일반적인 농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다. 기후 등 불리한 자연여건을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몽골 농업의 강점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에 내외국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약점으로는 몽골의 인구가 적고 국민소득 수준이 낮아 내수시장이 협소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들 수 있다.

몽골 농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적 요인으로는 밀 등의 곡류와 채소류의 소비가 늘어날 전망에 따라, 이 분야에서 농업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협요인은 무엇보다도 일교차와 연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으며, 작물 생육기간이 짧아 농업에 불리하다는 점이다.

## 5. 몽골 해외농업 진출 방향

몽골에서 농장개발에 진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 토양, 인프라 등 현지 농업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시범농장 경영 절차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규모의 농지를 개발하여 새로운 기술과 집약적 농업투자로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농산물(채소 등)을 생산하는 방안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몽골에서 농장개발에 진출하려는 경우에는 기후, 토양, 인프라 등 현지 농업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시범농장 경영 절차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접영농의 경우 기계를 사용하는 대규모 농장(500ha 이상) 경작을 위한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들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와 기계화영농에 대한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습득이 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농기업체는 대부분의 진출대상국가가 저개발국가로서 ha당 농지 임차료가 저렴하여 대규모 농지를 임차하려는 경향이 많다. 특히 몽골과 같이 미개척 농지가 매우 많으나 영농인력은 과소한 곳에 진출하는 경우에 대규모의 농지를 임차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몽골의 경우 실제 대규모 농지를 임차할 적지가 부족하고 각지에 분산된 경우가 많다. 과거 경작지가 아닌 지역은 자연보호를 위하여 신규 개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차대상지는 버려진 농지 혹은 휴경지가 대부분이어서 농지용도로의 회복에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농지를 임차하여 2년 동안 경작을 하지 않거나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토지임차가 취소되므로 필요한 면적 이외의 임차는 신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농지의 단계별, 연차별 확대가 필요하며 초기에는 넓은 토지를 활용한 농업투자보다 적절한 규모의 농지를 개발하여 새로운 기술과 집약적 농업투자로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농산물(채소 등)을 생산하는 방안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가령 도시 인근에서 농지의 집약적 이용을 위하여 채소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즉 울란바토르 인근에서 채소를 재배하여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혹한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과도하게 필요하게 되므로 시설재배가 거의 불가능하다.

몽골에서 밀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 및 현지수매에 따른 몽골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곡인 밀은 현재 자급이 안 되어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생산성을 높여 내수공급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2008년부터 톤당 8만 Tg이며, 정부가 지정하는 제분공장에 수매하는 경우 40만 Tg에 판매가 가능하다. 수매하지 않는 경우 주정회사 등에 판매할 수 있다. 밀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술 전수는 몽골 농업의 자급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몽골과의 농업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다.

감자의 경우 우량종서의 보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 현재 감자 자급률이 100%에 가깝긴 하지만 생산성이 낮으므로 몽골과 함께 양질의 씨감자를 공동연구 및 개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과 재배방식을 도입하고 우량종서를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생산된 감자는 몽골 내에서 1차 가공하여 우리나라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여름의 혹서와 겨울의 혹한기를 보낼 수 있는 저장시설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물 운송을 위한 교통여건이 불리하고 농장이 산재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단순 저장시설을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대 몽골 농업개발 지원 차원에서 1 아이막 1 저장시설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최근 한국정부는 동몽골 지역에 약 27만 ha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을 농업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지원을 시작하였는데, 이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이 지역에 대한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동몽골 사업단의 할호골 지역 농촌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 도르노드 아이막 할호골 촌(인구 3,072명)
  - 2007년 중국쪽에서 전기 인입
  - 27만ha 영농기술 전수 및 인프라 구축
  - 농업인력 확보가 문제: 탈북자 정착촌을 활용하는 방안
  - 시범농장 200ha 건설하여 실습과 영농인력 양성 예정
  - 도르노드 농업연구소가 농장경영을 맡게 될 것임. 인력은 현재는 7~8명 정도
  - 주도인 초이발산에 국립농업대 분교(2년과정)가 있음.
  - 밀, 감자, 옥수수, 채소류 등과 현지 자생과일 등 재배 가능
  - 이 가운데 밀을 주로 생각함.
  - 농업시설로는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저장시설과 제분공장을 고려하고 있음.
  - 축산업은 조방에서 집약으로 해야 하고 우량종의 보급이 일부 되었지만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곳에는 연간 4만 ha의 초지가 사막화되고 있음.
  - 돼지는 별로 키운 적이 없어서 경험이 적음.
  - 계절적으로 세관이 임시로 설치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에 제한이 있음. 상설세관 설치가 과제
  - 현재 초이발산(동몽골 개발지역까지 27km)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있고 국경까지 주 1회 운영중

참고자료

국립종자원. 2008. 「몽골 사료작물 종자 생산기지기능성 조사결과 보고」.

김주영. 2003. “유라시아 철도를 통한 몽골의 경제협력 가능성 있어.” 「수은해외경제」. 2003. 3월호.

농업기반공사. 2000. 「몽골 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농촌진흥청. 2008. 「몽골 농업환경조사 출장보고」.

정재완, 유민우. 2006. 「몽골경제와 한·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sian Development Bank. 2008. Asian Development Outlook 2008.

# 세계 농산물 수급·가격 동향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9.7)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9.7)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9.7)

#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9. 7)\*

성명환

2006년 후반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곡물가격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중립종 쌀가격을 제외한 곡물가격은 2008년 6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2009년 1월부터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국제 곡물가격이 점차 상승하였으나 7월 들어와 다시 하락하였다.

## 1. 국제 연물가격

### 쌀의 본선인도가격

2009년 7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5.3% 상승한 톤당 1,091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3.9% 하락한 톤당 575달러이다.

미 농무부(USDA)가 2009년 7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7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5.3% 상승한 톤당 1,091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3.9% 하락한 톤당 575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쌀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동일한 가격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까지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가 2006년 4월에는 톤당 485달러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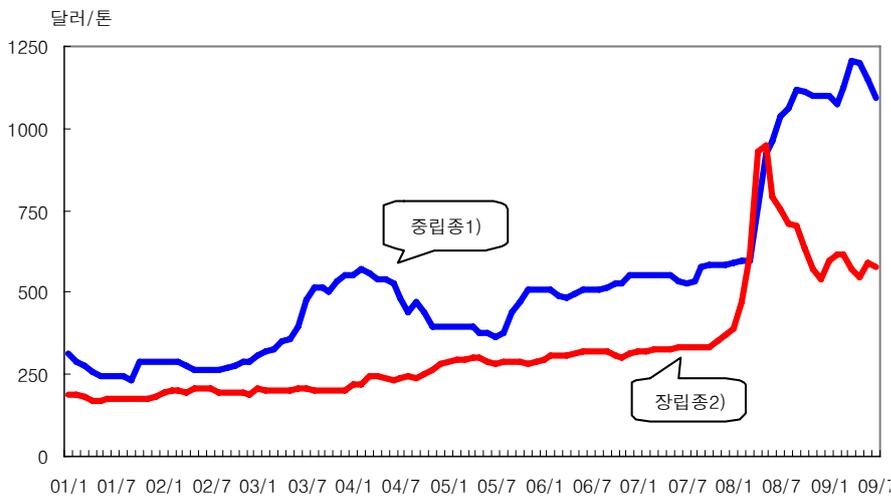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2006년 5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2007년 상반기 550달러, 하반기에는 5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부터 중립종 쌀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4월 758달러, 9월에는 1,11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약간 하락하여 2009년 2월까지 1,075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에는 톤당 1,208달러로 상승하였다. 2009년 7월 현재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은 톤당 1,091달러로 전월보다 5.1% 하락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전년 동월보다는 5.3% 높은 수준이다. 2009년 미국의 중·단립종 쌀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태국 수출 수요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321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1월에는 302달러까지 내려갔다. 이후 2007년 10월까지 톤당 320~3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에는 474달러, 3월 615달러, 4월에는 929달러, 5월에는 94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여 12월에는 548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2009년 3월에는 615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다시 하락세로 반전되어 2009년 7월 현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3.9% 하락한 톤당 575달러이다. 2009년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주요 수출국의 생산 및 재고 증가로 보험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중립종 쌀 가격은 앞으로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장립종 쌀가격은 주요 수출국의 생산 및 재고 증가로 보험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월별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주: (1) 중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 1등급. (2) 장립종은 태국 100% grade B.  
 자료: USDA, Rice Outlook, July 13, 2009. Riceonline.

표 1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국 가	2006/07	2007/08	2008.7	2009.6	2009.7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미국	CA 중립종 <sup>1)</sup>	538	694	1,036	1,150	1,091	5.3	△5.1
	남부 장립종 <sup>1)</sup>	407	621	854	502	496	△41.9	△1.2
태 국 <sup>2)</sup>	320	551	756	592	575	△23.9	△2.9	
베 트 남 <sup>3)</sup>	292	629	712	415	405	△43.1	△2.4	

주: 1) 남부 장립종은 2등급, California 1등급 정곡기준. 2) 태국 100% grade B.. 3) 베트남 5% broken.  
 자료: USDA, Rice Outlook, July 13, 2009. Riceonline.

###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

2009년 7월 17일 현재 운임포함 현물가격은 옥수수가 톤당 220달러, 대두가 톤당 448달러, 대두박이 톤당 433달러로 나타났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C&F: cost and freight)은 2006년 상반기 14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에는 424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188달러 수준이었다. 2009년 7월 17일 현재 톤당 220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월대비 44.6%, 전월대비 7.9%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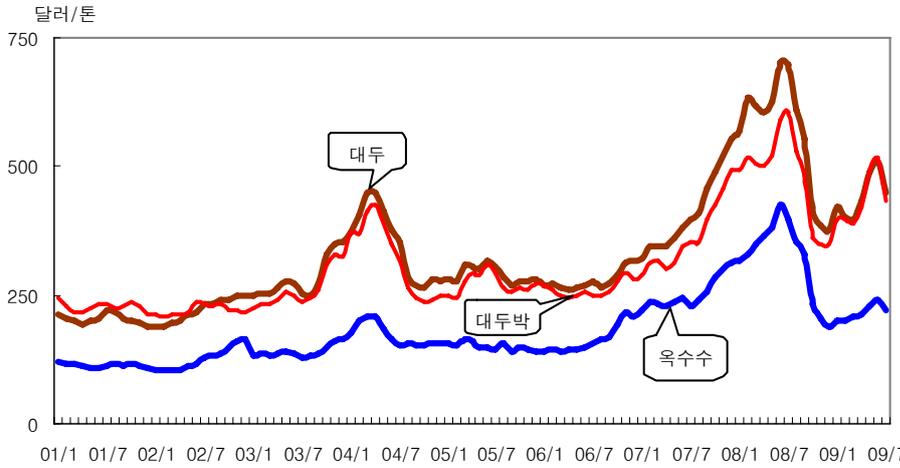
### 대두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3월 톤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4년 10월에는 26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280-30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에는 톤당 700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375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7월 17일 현재 톤당 448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35.7%, 전월대비 12.0% 하락하였다.

###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4월 톤당 4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25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8월 248달러를 시작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8년 7월 60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34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2009년 6월에는 톤당 518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최근 대두박 수요는 늘어나지만 재고가 증가되고 있어 2009년 7월 17일 현재 톤당 433달러로서 전년 동월대비 28.4%, 전월대비 26.4% 하락하였다.

그림 2 월별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9년 7월 17일 기준 가격.

표 2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C&F)

품 목	2006	2007	2008.7	2009.6	2009.7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옥 수 수	164	252	397	239	220	△44.6	△7.9
대 두	278	410	697	509	448	△35.7	△12.0
대 두 박	261	362	605	518	433	△28.4	△16.4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9년 7월 17일 기준 가격.

## 2. 국제 선물가격

2009년 7월 17일 현재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09년 9월물 인도분 밀 선물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3.1% 하락한 톤당 208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09년 9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50.0% 하락한 톤당 127달러, 2009년 9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2.9% 하락한 톤당 371달러이다.

### 밀의 선물가격

2005년 상반기까지 밀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

2009년 7월 현재 캔사스 상품 거래소의 2009년 9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208달러이며,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9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127달러, 2009년 9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371달러이다.

---

달러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10월에는 19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밀 선물가격은 톤당 1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5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42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12월에는 20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226달러까지 상승하여 6월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9년 7월 17일 현재 2009년 9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톤당 208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7.3% , 전월대비 10.7% 하락하였다. 2009/10년도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공급량 및 재고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맥가격은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옥수수 선물가격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는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7년 2월에는 162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소 하락한 후 10월까지 톤당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7년 11월 톤당 150달러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6월에는 27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12월에 145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154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9년 7월 17일 현재 2009년 9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127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0.0%, 전월대비 21.6% 하락하였다. 2009/10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하고,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고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9/10년도 옥수수 선물가격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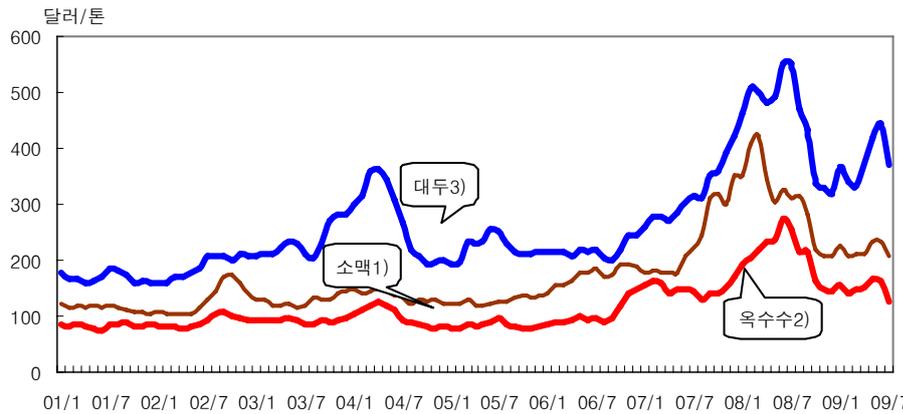
### 대두의 선물가격

2001년 이후 대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두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도 대두 생산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으로써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톤당 19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10월까지 톤당 210~220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 508달러, 6월에는 55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에 319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36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9년 3월에는 332달러로 하락하였으나 6월에는 다시 톤당 445달러로 상승하였다. 2009년 7월 17일 현재 2009년 9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2.9%, 전월대비 16.6% 하락한 톤당 371달러이다. 2009/10년도 대두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고 기말재고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대두 선물가격은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월별 소맥·옥수수·대두 선물가격 동향



주: 1) 소맥은 Kansas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3 소맥·옥수수·대두의 선물가격 동향

품 목	2006/07	2007/08	2008.7	2009.6	2009.7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소 맥 <sup>1)</sup>	181	315	311	233	208	△33.1	△10.7
옥 수 수 <sup>2)</sup>	140	203	254	162	127	△50.0	△21.6
대 두 <sup>2)</sup>	267	462	553	445	371	△32.9	△16.6

주: 1)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물연도 9~8월. 2009년 7월 17일 기준 선물가격임.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4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 달러/톤

연도 <sup>1)</sup>	쌀(FOB 가격)				선물가격		
	미국 <sup>2)</sup>		태국		소맥 <sup>3)</sup>	옥수수 <sup>4)</sup>	대두 <sup>4)</sup>
	장립종	중립종	100% Grade B	5% parboiled			
1987/88	421	366	273	261	108	87	251
1988/89	324	301	292	276	152	106	274
1989/90	342	352	292	259	144	100	217
1990/91	331	347	296	270	103	94	214
1991/92	368	384	287	269	131	99	212
1992/93	322	383	244	227	124	87	218
1993/94	439	451	294	244	123	103	242
1994/95	314	375	290	276	136	96	211
1995/96	414	445	362	344	188	150	271
1996/97	450	415	338	323	164	110	281
1997/98	415	396	302	292	130	101	239
1998/99	366	470	284	276	110	85	182
1999/00	270	454	231	242	105	83	182
2000/01	275	304	184	186	114	82	174
2001/02	207	285	192	197	108	85	174
2002/03	223	327	199	195	137	94	213
2003/04	360	533	220	221	136	104	295
2004/05	312	405	278	278	126	83	219
2005/06	334	484	301	293	142	88	214
2006/07	407	538	320	317	181	140	267
2007/08	621	694	551	571	315	203	462

주: 1) 곡물년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대두(9~8)평균임. 2)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등급 4% broken California, 3) 소맥(HRW) 2등급 (KCBOT)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자료: USDA ERS.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Outlook>

<http://www.ers.usda.gov/Data/PriceForecast/>

<http://www.ams.usda.gov/mnreports/lstdgr.pdf>

#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9. 7)\*

성명환

## 1. 전세계 곡물

2009/10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1.7% 감소한 21억 8,884만 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21억 7,701만 톤으로 전망된다.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7월 10일에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9/10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1.7% 감소한 21억 8,88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과 옥수수 생산량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소맥 생산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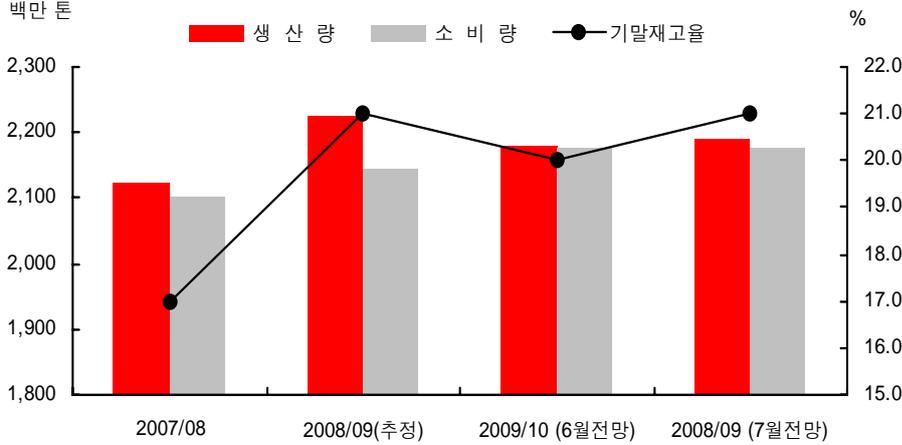
2009/10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4,294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6억 3,178만 톤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보다 약 4,400만 톤 늘어난 수준이다.

2009/10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도 전년보다 1.5% 증가한 21억 7,701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10년도에는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1,20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로 전년보다 3.7% 감소된 2억 6,15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10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4억 5,477만 톤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2008/09년도보다 0.2% 포인트 높은 2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그림 1 전체 곡물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72, July 10, 2009.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09.6	2009.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121.48	2,226.26	2,179.07	2,188.84	-1.7	0.4
공 급 량	2,462.72	2,587.84	2,619.85	2,631.78	1.7	0.5
소 비 량	2,101.14	2,144.90	2,176.53	2,177.01	1.5	0.0
교 역 량	275.84	271.69	259.92	261.57	-3.7	0.6
기말재고량	361.58	442.94	443.33	454.77	2.7	2.6
기말재고율(%)	17.2	20.7	20.4	20.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72, July 10, 2009.

## 2. 쌀

2009/10년도 쌀 생산량은 2008/09년보다 1.0% 증가한 4억 4,898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을 제외한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생산량도 전년보다 3.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4억 4,342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3,603만 톤보다 약 740만 톤 정도 많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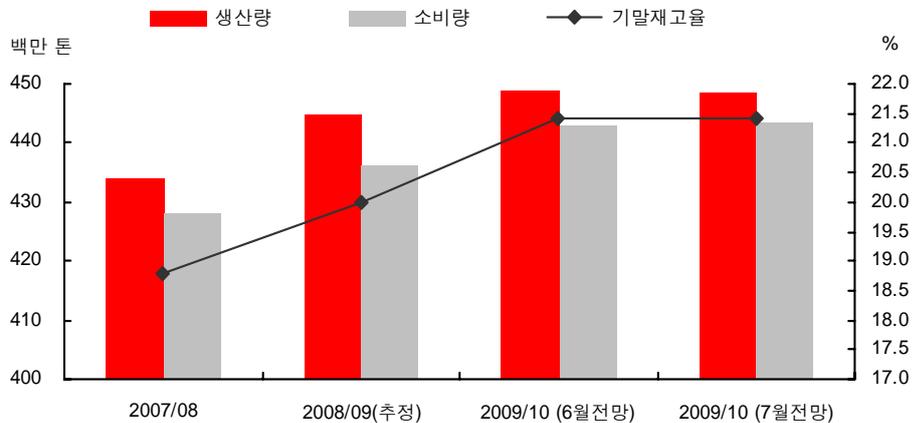
2009/10년도 쌀 생산량은 4억 4,898만 톤 수준으로 아시아 지역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쌀 소비량은 4억 4,342만 톤으로 예상된다.

2009/10년도 세계 쌀 교역량은 3,023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며,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량은 전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재고율은 21.3%로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보다 5.3% 늘어난 3,023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량의 경우 미국은 전년대비 3.0% 증가할 것이지만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베트남 수출량은 전년대비 9.1%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쌀 수출량 중에서 태국이 28.1%, 베트남 16.5%, 미국이 10.5%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비중이 5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9,451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09/10년도 기말재고율은 21.3%로 전년도보다 0.9% 포인트 상승될 전망이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각각 35.3%, 3.5%, 3.2%, 5.5%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의 재고량도 전년대비 5.8% 늘어난 7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쌀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72, July 10, 2009.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09.6	2009.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433.38	444.72	448.51	448.98	1.0	0.1
공급량	508.48	524.97	538.42	537.92	2.5	-0.1
소비량	428.23	436.03	443.43	443.42	1.7	0.0
교역량	31.17	28.70	29.73	30.23	5.3	1.7
기말재고량	80.25	88.94	94.99	94.51	6.3	-0.5
기말재고율(%)	18.7	20.4	21.4	21.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72, July 10, 2009.

### 3. 소맥

호주와 중국을 제외한 미국, 캐나다, 유럽,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9/10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3.8% 감소한 6억 5,64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9/10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8/09년보다 1.0% 증가한 6억 4,256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러시아, 파키스탄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러시아는 전년대비 3.4% 늘어날 전망이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전년대비 9.1% 감소한 1억 2,400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9/10년도 미국의 소맥 수출량은 전년보다 8.9% 줄어든 2,517만 톤이지만 전체 수출량의 20.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의 수출량도 전년보다 2.9% 줄어든 1,70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기말재고량은 1억 8,128만 톤으로 전년보다 8.3%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23.3%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의 재고량도 전년대비 6.0% 늘어날 전망이지만 EU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22.7% 감소될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지난해의 26.3%에서 28.2%로 1.9%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미국, 캐나다, 유럽,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6억 5,648만 톤, 소비량은 러시아, 파키스탄의 소비가 늘어나 6억 4,25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09.6	2009.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10.93	682.32	656.06	656.48	-3.8	0.1
공 급 량	737.91	803.52	824.46	823.83	2.5	-0.1
소 비 량	616.71	636.17	641.81	642.56	1.0	0.1
교 역 량	117.51	136.35	123.22	124.00	-9.1	0.6
기말재고량	121.20	167.35	182.65	181.28	8.3	-0.8
기말재고율(%)	19.7	26.3	28.5	28.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72, July 10, 2009.

### 4. 옥수수

중국, 멕시코, EU의 옥수수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미국, 아르헨티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2009/10년도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0.2% 증가된 7억 8,983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각각 1.6%, 15.4%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10년도의 소비량은 전년보다 약 1,900만 톤 많은 7억 9,448만 톤이 될 것으로

미국,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2009/10년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0.2% 증가한 7억 8,983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 소비량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7억 9,448만 톤으로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47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1.0% 포인트 줄어든 17.5%가 될 전망이다.

로 보이며 미국, 중국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4.0%, 3.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EU의 소비량은 4.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9/10년도에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47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2009/10년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3.9% 증가한 8,176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6%, 11.0%로 이들 두 국가가 전체 수출량의 71.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8.3%, 아르헨티나는 28.6%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3.2% 감소한 1억 3,91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470만 톤 줄어든 수준이다. 2009/10년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1.0% 포인트 줄어든 17.5%가 될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09.6	2009.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791.65	788.63	781.46	789.83	0.2	1.1
공 급 량	900.65	919.38	920.00	933.65	1.6	1.5
소 비 량	769.91	775.56	794.53	794.48	2.4	0.0
교 역 량	98.61	78.70	81.49	81.76	3.9	0.3
기말재고량	130.75	143.82	125.46	139.17	-3.2	10.9
기말재고율(%)	17.0	18.5	15.8	17.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72, July 10, 2009.

## 5. 대두

2009/10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4,373만 톤, 소비량은 2억 3,192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의 비중은 31.1%로 전망되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다.

2009/10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4,373만 톤으로 전년대비 1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전년대비 각각 10.2%, 5.3%, 59.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은 2.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08/09년 2억 2,195만 톤보다 약 1,000만 톤 늘어난 2억 3,192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중국, 일본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2.5%, 7.5%, 12.3%, 4.1%, 6.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7,586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1.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 중에서 미국이 45.7%, 브라질이 31.6%, 아르헨티나가 12.4%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약 90.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1.2%, 57.5%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브라질은 12.7%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두의 기말재고량은 5,183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4,104만 톤과 비교하여 26.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3.8% 포인트 상승한 22.3%가 될 전망이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09.6	2009.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21.18	210.62	241.67	243.73	15.7	0.9
공 급 량	284.07	263.54	283.52	284.77	8.1	0.4
소 비 량	229.69	221.95	231.55	231.92	4.5	0.2
교 역 량	79.61	73.77	75.35	75.86	2.8	0.7
기말재고량	52.92	41.04	51.02	51.83	26.3	1.6
기말재고율(%)	23.0	18.5	22.0	22.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72, July 10, 2009.

## 6. 대두박

2009/10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5,858만 톤으로 전년대비 4.4% 증가, 소비량은 1억 5,780만 톤으로 전년보다 3.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78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여 거의 균형상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3.3% 증가한 5,505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4.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 중에서 브라질 21.5%, 아르헨티나 48.2%, 미국이 15.2%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수출 비중은 84.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523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4.8%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과 동일한 3.3%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도 세계 대두박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4.4%, 소비량은 3.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은 생산량의 34.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의 수출 비중이 84.9%에 이를 전망이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09.6	2009.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8.52	151.95	158.38	158.58	4.4	0.1
공 급 량	165.04	158.06	163.10	163.57	3.5	0.3
소 비 량	157.43	152.52	157.61	157.80	3.5	0.1
교 역 량	55.81	53.31	55.03	55.05	3.3	0.0
기말재고량	6.11	4.99	4.96	5.23	4.8	5.4
기말재고율(%)	3.9	3.3	3.1	3.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72, July 10, 2009.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09.6	2009.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08.48	524.97	538.42	537.92	2.5	-0.1
기초재고량	75.10	80.25	89.91	88.94	10.8	-1.1
생산량	433.38	444.72	448.51	448.98	1.0	0.1
미국	6.34	6.52	7.04	6.75	3.5	-4.1
태국	19.30	19.40	20.00	20.00	3.1	0.0
베트남	24.38	23.66	23.76	23.80	0.6	0.2
인도네시아	37.00	38.30	37.60	37.60	-1.8	0.0
중국	129.85	134.33	134.40	135.10	0.6	0.5
일본	7.93	8.03	7.71	7.71	-4.0	0.0
수입량	29.21	26.37	26.32	26.94	2.2	2.4
인도네시아	0.35	0.35	0.30	0.30	-14.3	0.0
중국	0.30	0.33	0.35	0.35	6.1	0.0
일본	0.60	0.70	0.70	0.70	0.0	0.0
소비량	428.23	436.03	443.43	443.42	1.7	0.0
미국	4.06	4.23	4.22	4.22	-0.2	0.0
태국	9.60	10.29	10.40	10.40	1.1	0.0
베트남	19.40	19.15	19.15	19.15	0.0	0.0
인도네시아	36.35	37.65	37.40	37.69	0.1	0.8
중국	127.45	129.30	131.85	131.85	2.0	0.0
일본	8.18	8.37	8.20	8.20	-2.0	0.0
수출량	31.17	28.70	29.73	30.23	5.3	1.7
미국	3.37	3.13	3.10	3.17	1.3	2.3
태국	10.01	8.50	8.50	8.50	0.0	0.0
베트남	4.65	5.50	5.00	5.00	-9.1	0.0
기말재고량	80.25	88.94	94.99	94.51	6.3	-0.5
미국	0.94	0.69	1.16	0.73	5.8	-37.1
태국	2.21	3.12	4.22	4.22	35.3	0.0
베트남	2.02	1.43	1.77	1.48	3.5	-16.4
인도네시아	5.61	6.60	6.81	6.81	3.2	0.0
중국	37.64	42.20	44.45	44.50	5.5	0.1
일본	2.56	2.72	2.73	2.73	0.4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72, July 10, 2009.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09.6	2009.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37.91	803.52	824.46	823.83	2.5	-0.1
기초재고량	126.98	121.20	168.40	167.35	38.1	-0.6
생산량	610.93	682.32	656.06	656.48	-3.8	0.1
미국	55.82	68.03	54.86	57.49	-15.5	4.8
호주	13.84	21.50	23.00	23.00	7.0	0.0
캐나다	20.05	28.61	25.00	23.50	-17.9	-6.0
EU27	120.24	151.64	135.96	134.65	-11.2	-1.0
중국	109.30	112.50	113.50	113.50	0.9	0.0
러시아	49.40	63.70	59.00	60.00	-5.8	1.7
수입량	113.65	133.54	118.00	118.80	-11.0	0.7
EU27	6.94	7.00	6.50	6.50	-7.1	0.0
브라질	6.71	6.00	5.70	5.70	-5.0	0.0
북아프리카	21.74	22.40	18.80	18.80	-16.1	0.0
파키스탄	1.49	3.20	1.00	1.00	-68.8	0.0
인도	1.89	0.01	0.00	0.00		0.0
러시아	0.44	0.15	0.30	0.30	100.0	0.0
소비량	616.71	636.17	641.81	642.56	1.0	0.1
미국	28.57	33.97	34.10	34.37	1.2	0.8
EU27	116.54	127.50	127.50	127.50	0.0	0.0
중국	106.00	102.50	101.00	101.00	-1.5	0.0
파키스탄	22.40	22.80	23.30	23.30	2.2	0.0
러시아	37.70	38.70	40.00	40.00	3.4	0.0
수출량	117.51	136.35	123.22	124.00	-9.1	0.6
미국	34.40	27.63	24.49	25.17	-8.9	2.8
캐나다	16.38	17.50	17.50	17.00	-2.9	-2.9
EU27	12.27	24.50	18.00	18.00	-26.5	0.0
기말재고량	121.20	167.35	182.65	181.28	8.3	-0.8
미국	8.32	18.15	17.61	19.23	6.0	9.2
EU27	12.45	19.08	17.44	14.74	-22.7	-15.5
중국	38.96	48.56	59.71	59.86	23.3	0.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72, July 10, 2009.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09.6	2009.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900.65	919.38	920.00	933.65	1.6	1.5
기초재고량	109.00	130.75	138.54	143.82	10.0	3.8
생산량	791.65	788.63	781.46	789.83	0.2	1.1
미국	331.18	307.39	303.16	312.18	1.6	3.0
아르헨티나	22.00	13.00	15.00	15.00	15.4	0.0
EU27	47.55	62.42	56.50	56.41	-9.6	-0.2
멕시코	23.60	25.00	24.00	24.00	-4.0	0.0
동남아시아	24.32	24.37	25.05	25.00	2.6	-0.2
중국	152.30	165.90	162.50	162.50	-2.0	0.0
수입량	98.37	76.92	79.73	79.93	3.9	0.3
이집트	4.15	3.70	4.20	4.20	13.5	0.0
EU27	14.02	2.50	2.50	2.50	0.0	0.0
일본	16.61	16.50	16.30	16.30	-1.2	0.0
멕시코	9.56	7.40	7.50	7.50	1.4	0.0
동남아시아	4.28	3.60	4.30	4.30	19.4	0.0
한국	9.31	7.00	7.50	7.50	7.1	0.0
소비량	769.91	775.56	794.53	794.48	2.4	0.0
미국	261.67	258.33	268.24	268.62	4.0	0.1
EU27	63.40	61.70	59.10	59.10	-4.2	0.0
일본	16.60	16.40	16.30	16.30	-0.6	0.0
멕시코	32.00	32.60	32.20	32.20	-1.2	0.0
동남아시아	27.35	27.80	28.50	28.50	2.5	0.0
한국	8.63	7.60	7.60	7.60	0.0	0.0
중국	149.00	152.00	158.00	158.00	3.9	0.0
수출량	98.61	78.70	81.49	81.76	3.9	0.3
미국	61.87	45.72	48.26	49.53	8.3	2.6
아르헨티나	14.80	7.00	9.00	9.00	28.6	0.0
중국	0.55	0.25	0.50	0.50	100.0	0.0
기말재고량	130.75	143.82	125.46	139.17	-3.2	10.9
미국	41.26	44.97	27.70	39.38	-12.4	42.2
아르헨티나	1.99	1.41	1.54	1.54	9.2	0.0
EU27	4.96	6.18	4.10	3.99	-35.4	-2.7
중국	39.39	53.09	56.74	57.14	7.6	0.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72, July 10, 2009.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09.6	2009.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84.07	263.54	283.52	284.77	8.1	0.4
기초재고량	62.89	52.92	41.85	41.04	-22.4	-1.9
생산량	221.18	210.62	241.67	243.73	15.7	0.9
미국	72.86	80.54	86.95	88.72	10.2	2.0
아르헨티나	46.20	32.00	51.00	51.00	59.4	0.0
브라질	61.00	57.00	60.00	60.00	5.3	0.0
중국	14.00	16.00	15.60	15.60	-2.5	0.0
수입량	78.16	73.21	74.40	74.84	2.2	0.6
중국	37.82	39.10	38.10	38.10	-2.6	0.0
EU27	15.12	12.80	12.90	12.90	0.8	0.0
일본	4.01	3.45	3.95	3.95	14.5	0.0
소비량	229.69	221.95	231.55	231.92	4.5	0.2
미국	51.57	49.25	50.26	50.49	2.5	0.5
아르헨티나	36.16	34.16	36.73	36.73	7.5	0.0
브라질	35.07	34.77	34.64	34.64	-0.4	0.0
중국	49.82	51.34	53.45	53.45	4.1	0.0
EU27	16.11	13.73	13.73	13.73	0.0	0.0
일본	4.22	3.85	4.11	4.11	6.8	0.0
멕시코	3.71	3.25	3.65	3.65	12.3	0.0
수출량	79.61	73.77	75.35	75.86	2.8	0.7
미국	31.60	34.29	34.29	34.70	1.2	1.2
아르헨티나	13.84	5.97	9.40	9.40	57.5	0.0
브라질	25.36	27.50	24.00	24.00	-12.7	0.0
기말재고량	52.92	41.04	51.02	51.83	26.3	1.6
미국	5.58	2.98	5.72	6.79	127.9	18.7
아르헨티나	21.76	15.24	20.88	20.61	35.2	-1.3
브라질	18.90	13.68	15.46	15.20	11.1	-1.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72, July 10, 2009.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7/08	2008/09 (추정)	2009/10(전망)		변동율(%)	
			2009.6	2009.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65.04	158.06	163.10	163.57	3.5	0.3
기초재고량	6.52	6.11	4.72	4.99	-18.3	5.7
생산량	158.52	151.95	158.38	158.58	4.4	0.1
미국	38.36	35.76	36.14	36.23	1.3	0.2
아르헨티나	27.07	25.65	27.45	27.45	7.0	0.0
브라질	24.89	24.65	24.49	24.49	-0.6	0.0
인도	6.52	6.23	6.94	6.94	11.4	0.0
중국	31.28	32.48	34.23	34.23	5.4	0.0
수입량	54.32	52.76	54.50	54.51	3.3	0.0
EU27	24.07	22.60	23.10	23.10	2.2	0.0
중국	0.20	0.23	0.20	0.20	-13.0	0.0
소비량	157.43	152.52	157.61	157.80	3.5	0.1
미국	30.11	27.81	27.94	28.03	0.8	0.3
아르헨티나	0.62	0.63	0.68	0.68	7.9	0.0
브라질	12.25	12.44	12.74	12.74	2.4	0.0
인도	2.06	2.48	2.27	2.27	-8.5	0.0
EU27	35.17	32.72	32.74	32.74	0.1	0.0
중국	30.85	31.86	33.80	33.80	6.1	0.0
수출량	55.81	53.31	55.03	55.05	3.3	0.0
미국	8.42	8.07	8.35	8.35	3.5	0.0
아르헨티나	26.82	25.00	26.56	26.56	6.2	0.0
브라질	12.14	12.77	11.85	11.85	-7.2	0.0
인도	4.79	3.55	4.80	4.80	35.2	0.0
기말재고량	6.11	4.99	4.96	5.23	4.8	5.4
미국	0.27	0.27	0.27	0.27	0.0	0.0
아르헨티나	1.11	1.13	1.11	1.36	20.4	22.5
브라질	2.59	2.18	2.23	2.23	2.3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72, July 10, 2009.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급량 <sup>1)</sup>	소비량 <sup>2)</sup>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75/76	123,682	143,575	121,682	15,228	21,893	18.0
1976/77	134,221	156,114	128,119	15,344	27,995	21.9
1977/78	131,952	159,946	132,149	16,054	27,798	21.0
1978/79	144,550	172,348	139,046	17,674	33,302	24.0
1979/80	140,994	174,296	141,523	19,410	32,773	23.2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720	242,170	203,159	25,347	39,011	19.2
2006/07	200,081	239,015	204,819	26,029	34,196	16.7
2007/08	212,148	246,272	210,114	27,584	36,158	17.2
2008/09(E)	222,626	258,784	214,490	27,169	44,294	20.7
2009/10(P)	218,884	263,178	217,701	25,157	45,477	20.9

주: E(추정치), P(전망치), 1) 공급량=전년도 재고량+생산량, 2)소비량=공급량-재고량.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참고자료

<http://www.usda.gov/oc/commodity/wasde/latest.pdf>.

#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9. 7)\*

이 정 민

지난 7월 17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의 축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0년 2분기 쇠고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하며,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1. 쇠고기

CWT의 영향으로 젓소 암소 도축이 진행중이며, 이러한 암소 도축은 2009년 7월 말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봄철 강우량 증가에 따른 사육여건 호전으로 비육우 암소도축은 감소하였다. CWT<sup>1)</sup>의 영향으로 젓소 암소 도축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암소 도축은 2009년 7월 말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농산물통계원(NASS)에 의하면, 옥수수 재배면적은 1946년 이래 두 번째로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났으며, 콩 재배면적은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2009~10년 옥수수 가격은 지난 2008~09년의 3.95~4.15달러/부셸<sup>2)</sup>보다 낮은 3.35~4.15달러/부셸로 예상되어 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콩 가격 역시 2008~09년의 3.2달러보다 낮은 2.55~3.15달러/부셸로 예상된다.

2009년 5월 현재 1,00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였다. 이는 사료가격 및 비육밀소 가격의 상승과 공급초과에 따른 비육우 가격 하락으로 촉발된 사육두수 조정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단지 600파운드 이

\* 본 내용은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2009년 7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민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fantom99@krei.re.kr, 02-3299-4198)

1) CWT(Cooperative Working Together): 낙농업자들이 조직한 낙농협 공동사업  
2) 1부셸(bushel) = 60파운드(미국식) = 27,216kg

하의 저체중 비육우가 증가하였을 뿐이며, 특히 텍사스 지역의 저체중우 증가율이 62%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지역의 가목이 심하기 때문이다.

6~7월 출하된 비육우의 사료비는 연중 최저치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 비육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도 약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쇠고기 교역

미국의 2009년 쇠고기 수입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28억 5,900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1~5월까지의 수입량은 전년보다 3% 증가한 2억 3,800만 톤이었다. 이는 미국 달러화가 지난 3월 이후 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의 중요한 쇠고기 수입 대상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통화보다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ABARE에 따르면, 호주의 사육두수 증가 정책으로 가목에도 불구하고 2009~10년 사육두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경제의 침체로 호주의 쇠고기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일본과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장악했던 미국산 쇠고기가 점차 호주산 쇠고기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본, 미국, 한국은 호주산 쇠고기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따라서 대체시장 부재와 쇠고기 생산 증가로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호주산 쇠고기가 미국으로 추가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CWT에서는 최근 젓소 암소 101,040두를 도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양의 암소가 도축되면서 가공육 공급이 증가하였으며, 가공용 수입육과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7월 10일 CWT는 올해 2차 도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가공용 쇠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될 것으로 보여, 3분기 및 4분기 가공용 쇠고기 예상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캐나다 등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요가 없을 경우, 쇠고기 공급량 과잉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 증가와 임금 하락, 소비자의 소득 하락으로 쇠고기 수요가 감소하여 쇠고기 가격 역시 악영향을 받고 있다.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수출이 허용되었으나, 경제여건 변화로 수출업체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의 수요 감소로 큰 영향을 받았으며, 한국의 원화도 크게 변동하였다. 따라서 미국 및 호주산 쇠고기의 소비도 감소하였다.

미국의 2009년 쇠고기 수출은 지난해보다 8% 감소한 17억 4,400만 파운드로 전망되었으나, 5월까지 미국의 쇠고기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 증가하였다. 멕시코, 캐나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일본으로의 수출은 증가하였다. 이는 각국의 환율 변화가 각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의 2009년 쇠고기 수입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28억 5,900만 파운드로 전망되며, 수출은 지난해보다 8% 감소한 17억 4,400만 파운드로 전망되었으나, 5월까지 미국의 쇠고기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 증가하였다.

미국 달러화에 대해 유일하게 평가절상된 국가이며, 그 결과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캐나다, 멕시코, 한국의 통화는 모두 달러화에 대해 평가절하되었으며 그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요가 감소하였다. 2010년 미국산 쇠고기의 예상 수출량은 국제 경기 회복에 따른 쇠고기 수요 증가로 전년보다 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 양돈

2009년 7월 1일 기준 미국의 번식돈 사육두수는 5백 97만마리로 2008년 7월보다 2.7% 감소하였다.

USDA는 2009년 6월 26일 발표한 분기별 양돈 리포트에서 미국의 번식돈 사육두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였다. 2009년 7월 1일 기준 미국의 번식돈 사육두수는 5백 97만마리로 2008년 7월보다 2.7% 감소하였다. 7월 1일의 사육두수 감소로 분기별 감소가 4분기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 양돈산업의 번식여력 감소는 양돈산업부문에서 수익성 회복을 위해 필요하고도 예측가능한 방안이다. 아이오와주립대학은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한 2007년 10월 이후 월 평균 두당 22\$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봄에 수태율이 증가하여 양돈산업의 이익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월의 두당 산자율은 9.6마리로 전년(9.38마리)보다 2%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매년 분기별 1%의 증가를 나타냈고, 2007년 이후 2% 이상 증가하고 있다. 수태율 향상은 번식, 분만, 사육장 관리, 유전학 등에 집중된 경영관리에 의한 것으로 폐사율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9년 2분기의 돼지고기 생산량과 성돈 및 돼지고기 가격은 생산에 대한 의지저하로 전년보다 약세를 보였다.

2009년 2분기의 돼지고기 생산량과 성돈 및 돼지고기 가격은 생산에 대한 의지저하로 전년보다 약세를 보였다. USDA는 2009년 2분기 돼지고기 생산량이 55억 파운드인 2008년 동기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성돈가격은 100파운드당 42.74\$로 전년보다 19% 하락하였다. 2009년 2분기 돼지 부분육 생산도 전년 동기보다 22% 감소하였다.

3~4분기 돼지고기 생산량 역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의 생산량은 54억 7천만 파운드로 전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4분기는 60억 파운드로 전년보다 2%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하반기 도축마리수는 분만율이 낮아지고 캐나다로부터 성돈수입이 감소하면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가격이 낮아져 정육율이 높아짐에 따라 도축마리수 감소가 완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 돼지고기 생산수요는 2009년 하반기 성돈 추정가격이 반영되어 3분기 가격은 100파운드당 44~46\$로 2008년 3분기보다 21%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 가격은 100파운드당 39~41\$로 전년 동기보다 5%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225억 파운드로 2009년보다 1%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성돈가격은 평균 46~50\$로 2009년보다 13%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5월 돼지고기 수출량은 3억 7백만 파운드로 2008년 5월보다 36% 감소하였다. 5월의 3대 수출대상국은 일본(전년 동월대비 15% 감소), 멕시코(3% 감소), 러시아(1% 감소)이다. 5월 수출은 인플루엔자 H1N1의 부정적 영향에 의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5월 돼지고기 총수입량은 63백만 파운드로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은 해마다 5% 증가한 반면 덴마크산 돼지고기 수입은 전년 5월보다 28% 감소하였다. 2009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량 중 캐나다산 수입비중은 81%, 덴마크산은 1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5월 캐나다산 생돈 수입은 36% 감소하였다. 5월에 49만 6천 마리가 수입되었는데 85%가 정육상태로 수입되어 전년 5월보다 33% 감소하였다. 도축상태로 수입된 양은 15%로 전년 5월의 20%보다 감소하였다.

5월 돼지고기 수출량은 3억 7백만 파운드로 2008년 5월보다 36% 감소하였으며, 수입량은 7% 감소하였다.

### 3. 낙농

사료가격이 전년도 최고치보다 낮아졌다. 옥수수는 2008/09 수확년도에 부셸당 3.95~4.15\$로 추정되며 2009/10 수확년도에는 3.35~4.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두박 가격은 2008/09 수확년도보다 약간 낮고 2009/10 수확년도에도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료가격은 옥수수와 대두박 모두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조사료가격은 2010년까지 곡물가격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사료가격만으로는 생산자의 수익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는 유제품가격을 2009년 초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시킬 것이다.

2009년 미국 젖소 사육두수는 2008년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는 2.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사육두수 감소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것이다. CWT(Cooperatives Working Together)프로그램은 7월까지 10만 1천 마리의 젖소를 도축시킬 계획이다. 2009년 미국 젖소 사육두수는 2008년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는 2.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두당 1일 산유량은 1%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2%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 우유 생산량은 1,876억 파운드, 2010년 생산량도 1,864억 파운드로 전월 전망치와 동일하다.

금년과 내년 수출량은 유장을 제외하고 지난 2년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에 38억 파운드, 2010년에는 39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멕시코와 중국으로 수출되는 유장의 수출량은 탈지유 수출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수출량은 199억 파운드도 전망되며 2010년에는 231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유제품 가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치즈가격은 파운드 당 1.210~1.2402\$로 예상되고 버터가격은 파운드 당 1.175~1.23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분유 가격은 탈지분유가 파운드 당 82.5~85.5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

장 가격은 파운드 당 24~26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준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 할 것이다. 2010년 치즈가격은 파운드 당 1.530~1.63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버터가격은 완전한 회복세를 보여 파운드 당 1.435~1.565\$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지분유는 파운드 당 0.990~1.060\$가 될 전망이며 유장가격은 파운드 당 28~31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제품 가격은 금년에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제품 가격은 금년에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Class III 가격은 100파운드 당 10.45~10.75\$로 전망되며 2010년에는 약간 상승하여 13.90~14.9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lass IV 평균 가격은 100파운드 당 9.95~10.35\$로 전망되며 2010년에는 12.45~13.5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우유가격은 100파운드 당 11.85~12.15\$로 전망되며 2010년에는 14.85~15.85\$로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닭고기

2009년 1~5월 닭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7% 감소한 145억 파운드였다. 이러한 큰 폭의 감소는 생체중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도계마리수 또한 2008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 1~5월 닭고기 생산량은 2008년보다 7% 감소한 145억 파운드였다. 이러한 큰 폭의 감소는 생체중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도계 마리수 또한 2008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6월초 종계 마리수는 전년 동기보다 6% 감소한 5천 4백만 마리였다. 종계 마리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입란/발생율은 지난해와의 격차를 많이 좁힌 것으로 보인다. 출하 예정일과 부화율을 감안하면, 2, 3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1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3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각각 89억 3천만 파운드, 90억 5천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9년 닭고기 총생산량은 355억 파운드로 2008년보다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옥수수과 콩 가격은 2008년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내 경기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6월 6일~7월 7일까지 병아리 생산수수는 2008년 동기간보다 5% 감소한 1억 7천만 마리였다. 이러한 병아리는 사육기간(대략 7, 8주)을 감안하면 7, 8월에 도계될 물량이다. 최근 몇 주 동안의 종란 입란실적 또한 전년과 격차를 많이 좁히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5월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9% 감소한 29억 파운드였다. 이는 2008년보다 도계일수가 하루 적었으며, 출하체중 또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6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큰 폭의 감소는 가격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며, 향후 계열업체는 병아리 생산수수를 증가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8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닭고기 생산량이 2008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고량이 감소하여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2분기 12개 도시 통닭 도매가격은 2009년보다 약 2% 상승한 파운드당 82센트에 거래되었다. 6월 북동부시장의 날개가격은 파운드당 1.40\$로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빼없는 가슴살 가격은 2008년보다 다소 상승한 파운드당 1.47\$에 그쳤다. 다리살의 경우 가격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1/4 다리살은 전년보다 다소 상승하였으나 복채와 넓적다리살 가격은 전년보다 다소 하락하였다.

2009년 5월 닭고기 수출량은 5억 8천만 파운드로 2008년 동기보다 9% 감소하였다. 이는 멕시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의 수출이 37% 감소한 1억 3천만 파운드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 3개월 동안 수출이 금지되었던 우크라이나의 경우 5월에만 5천 6백만 파운드가 수출되었다. 그리고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량도 2천 9백만 파운드였다. 6월 닭고기 수출은 5월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5. 계란

2009년 5월 계란 생산량은 2008년보다 다소(1.5%) 증가한 5억 4천만 판(12개 들이)이었다. 최근 6개월 중 5개월 연속 전년보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5월 산란계 사육수수가 2008년보다 다소 증가한 2억 8천 만마리였다.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산란 실용계 입식 마리수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하반기 계란 생산량은 2008년보다 1% 증가한 33억만 판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계란 생산량 증가는 부활절 이후 계란 가격의 가파른 하락으로 이어졌다. 2009년 1분기 뉴욕시장의 A등급 도매가격(대란)은 1.1\$(12개 들이)로 2008년 1.59\$보다 크게 하락하였다. 부활절 직전의 계란 가격이 1.30\$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계란 가격은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 89센트를 기록하였다. 3분기 뉴욕시장의 A등급 도매가격(대란)은 92~96센트, 4분기 계란가격은 0.95~1.01\$로 예상된다.

부활절 이후 미국내 계란 도매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5월 계란 수출량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2천 1백만 판(12개 들이)이었다. 이는 캐나다, 홍콩,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 증가와 멕시코로의 계란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 5월 계란 생산량은 2008년보다 다소(1.5%) 증가한 5억 4천만 판(12개 들이)이었다. 2009년 하반기 계란 생산량은 2008년보다 1% 증가한 33억만 판으로 전망된다.

###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LDP-M-180/July 17, 2009 발췌정리

표 1 U. S. 육류 및 기금류 전망

구 분	2008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
생산량, 백만 파운드									
- 쇠고기	26,561	6,248	6,640	6,880	6,530	26,298	6,100	6,680	25,950
- 돼지고기	23,347	5,811	5,500	5,470	6,000	22,781	5,670	5,400	22,535
- 양고기	174	42	42	40	43	167	43	41	166
- 닭고기	36,906	8,574	8,930	9,050	8,950	35,504	8,650	9,000	36,025
- 칠면조고기	6,246	1,385	1,430	1,450	1,525	5,790	1,415	1,460	5,790
- 전체 육류	93,937	22,210	22,704	23,043	23,207	91,167	22,031	22,728	91,193
- 계란, 백만판/12개	6,403	1,594	1,600	1,620	1,655	6,469	1,600		6,510
1인당 소비량, 파운드									
- 쇠고기	62.8	15.3	16.0	16.1	15.1	62.8	14.7	15.9	61.4
- 돼지고기	49.5	12.5	12.1	11.9	12.6	49.1	11.9	11.5	47.3
- 양고기	1.0	0.3	0.2	0.2	0.3	1.0	0.3	0.2	1.0
- 닭고기	83.5	19.3	20.4	20.9	20.2	80.8	19.4	20.4	81.3
- 칠면조고기	17.6	3.7	3.8	4.1	5.4	17.0	3.8	4.1	17.2
- 전체 육류	216.1	51.5	53.0	53.6	54.2	212.3	50.5	52.5	209.7
- 계란, 개수(백만더즌)	248.9	62.0	61.6	62.3	63.7	249.5	61.5	61.4	248.1
시장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Neb,\$/cwt)	92.27	80.98	84.53	84-88	88-94	84-87	84-92	86-94	87-94
- 비육밀소(Ok City,\$/cwt)	102.98	92.83	98.63	101-97	98-104	96-100	94-102	96-104	98-104
- 유틸리티급 정육(S. Falls,\$/cwt)	54.92	46.42	49.46	47-49	49-53	48-50	47-45	48-52	49-53
- 초이스급 양고기(San Angelo,\$/cwt)	85.91	90.14	91.88	88-92	88-94	89-92	89-97	87-95	88-95
- 돼지고기(N. base, l.e. \$/cwt)	47.84	42.11	42.74	47-49	41-45	43-45	46-50	46-50	48-51
- 닭고기(12도시, cents/lb)	79.70	79.70	81.90	81-85	79-85	80-83	80-86	81-87	80-87
- 칠면조고기(동부, cents/lb)	87.50	73.80	79.10	83-87	82-88	80-82	71-77	77-83	79-86
- 계란(뉴욕, cents/doz)	128.30	109.70	89.00	92-96	95-101	96-99	101-109	97-105	99-107
교역량, 백만 파운드									
- 쇠고기 수출량	1,888	384	445	465	450	1,744	420	500	1,905
- 쇠고기 수입량	2,537	704	780	710	665	2,859	715	785	2,975
- 양고기 수입량	185	51	42	38	46	177	54	45	180
- 돼지고기 수출량	4,668	1,033	975	1,000	1,175	4,183	1,050		4,450
- 돼지고기 수입량	831	205	195	190	210	800	215	205	840
- 닭고기 수출량	6,962	1,753	1,600	1,475	1,600	6,428	1,550	1,550	6,300
- 칠면조 고기 수출량	676	117	120	125	145	507	120	125	545
- 모든 수입두수(천두)	9,348	1,761	1,650	1,550	1,550	6,511	1,550	1,550	6,200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2 낙농업 전망

구 분	2008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연간
젖소 (천두)	9,315	9,297	9,240	9,110	9,035	9,171	8,970	8,939
두당 산유량 (파운드)	20,396	5,093	5,255	5,055	5,040	20,443	5,185	20,850
우유 생산량 (십억 파운드)	190.0	47.4	48.6	46.1	45.5	187.5	46.5	186.4
- 농가소모분	1.2	0.3	0.3	0.3	0.3	1.2	0.3	1.2
- 남유량	188.8	47.1	48.3	45.8	45.2	186.3	46.2	185.2
유지방 (원유 환산, 십억 파운드)								
- 남유량	188.8	47.1	48.3	45.8	45.2	186.3	46.2	185.2
- 연초 재고량	10.4	10.0	12.5	13.9	12.2	10.0	9.8	9.8
- 수입량	3.9	1.0	0.8	0.8	1.2	3.7	0.9	3.8
- 총공급량	203.1	58.0	61.6	60.5	58.6	200.0	56.9	198.8
- 수출량	8.8	1.0	0.9	0.9	0.9	3.8	1.0	3.9
- 연말 재고량	10.0	12.5	13.9	12.2	9.8	9.8	11.7	8.7
- 소모분	0.0	0.1	0.0	0.1	1.4	3.4	0.0	0.0
- 집유량	184.3	44.4	46.8	47.2	47.7	186.1	44.3	186.2
전지방분유 (원유환산, 십억 파운드)								
- 남유량	188.8	47.1	48.3	45.8	45.2	186.3	46.2	185.2
- 연초 재고량	9.9	10.9	11.2	11.7	11.1	10.9	10.4	10.4
- 수입량	3.8	0.9	0.9	0.9	1.1	3.7	0.9	3.7
- 총공급량	202.5	58.8	60.4	58.3	57.4	200.9	57.5	199.3
- 수출량	26.6	5.1	4.9	4.9	4.9	19.9	5.6	23.1
- 연말 재고량	10.9	11.2	11.7	11.1	10.4	10.4	10.2	9.3
- 소모분	1.3	1.1	0.6	0.3	0.9	2.8	0.1	0.1
- 집유량	163.7	41.4	43.2	42.0	41.2	167.8	41.6	166.8
우유가격 (달러/100 파운드) <sup>1)</sup>								
- 우유	18.29	12.23	11.55	11.35	12.70	11.95	13.85	15.10
			-11.75	-11.85	-13.50	-12.35	-14.85	-16.00
- III 등급	17.44	10.18	10.10	10.52	11.58	10.60	12.80	14.30
			-10.30	-11.02	-12.38	-11.00	-13.80	-15.30
- IV 등급	14.65	9.56	9.97	10.27	10.74	10.10	11.47	12.55
			-10.27	-10.87	-11.64	-10.60	-12.57	-13.65
유제품 가격 (달러/파운드) <sup>2)</sup>								
- 체다 치즈	1.895	1.236	1.184	1.208	1.317	1.235	1.433	1.580
			-1.204	-1.258	-1.397	-1.275	-1.533	-1.680
- 유장 분말	0.250	0.164	0.219	0.245	0.245	0.213	0.255	0.260
			-0.239	-0.275	-0.275	-0.243	-0.285	-0.290
- 버터	1.436	1.097	1.191	1.220	1.252	1.184	1.322	1.439
			-1.231	-1.300	-1.362	-1.254	-1.452	-1.569
- 탈지방분유	1.226	0.823	0.822	0.840	0.880	0.835	0.932	1.000
			-0.842	-0.880	-0.940	-0.875	-1.002	-1.070

주: 1) 매월 가격을 단순 평균한 가격으로써 연평균과 다를 수 있음.

2) AMS에서 각 등급별 가격을 취합한 뒤 합산한 값임.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3 생산 지표

구 분	단위	2008. 6월	2009		
			4월	5월	6월
비육우					
사육두수 /*	1,000 두	10,815	11,162	10,822	10,407
입식두수	1,000 두	1,458	1,531	1,537	1,334
출하두수	1,000 두	1,978	1,871	1,952	1,989
육계					
입란물량 /1	1,000 개	673,711	624,921	628,222	634,425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805,793	755,862	786,471	770,970
총계수수	1,000 수	57,595	54,346	54,135	54,181
6개월 미만 총계수수 /1	1,000 수	7,154	6,158	7,402	7,038
총계 도태수수 /2	1,000 수	7,406	6,752	5,883	6,295
칠면조					
입란물량 /1	1,000 개	31,854	29,659	28,770	29,160
새끼칠면조 생산수수	1,000 수	25,557	23,988	22,975	24,174
계란					
생산량 /2	백만 더즌(12개)	521.8	534.0	542.1	523.8
산란용 마리수 /1	1,000 수	279,430	283,188	281,705	277,410
산란율 /1	%	73.9	76.5	74.6	75.4
실용계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40,928	40,621	37,774	43,453
노계 도태수수 /2	1,000 수	6,229	5,296	5,692	6,265

주: /\* 조사대상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임.  
/1 월초 기준임.  
/2 월말 추정량임.

표 4 소득 추정표 - 비육우

단위: 센트/파운드

구 분	2008 7월	2009		
		5월	6월	7월
대평원주 비육장 기준				
손익분기점 /*	101.61	86.29	81.90	80.26
판매가격	98.58	84.64	81.97	82.65
순이익	-3.03	-1.65	0.07	2.39

주: /\* Does not include capital replacement cost.

표 5 소득 추정표 - 기금류

단위: 1998 ~ 2000=100

구 분	2008 7월	2009		
		5월	6월	7월
육계(지수)				
사료비	184.9	147.0	153.1	167.8
시장가격	127.4	142.0	144.8	144.3
이윤(가격-비용)	107.1	140.2	141.9	136.0
칠면조(지수)				
사료비	204.2	156.3	158.0	166.0
시장가격	140.7	119.1	122.8	124.8
이윤(가격-비용)	111.9	102.2	106.7	106.1
계란(지수)				
사료비	242.5	164.2	180.6	185.7
시장가격	138.5	94.2	102.4	88.1
이윤(가격-비용)	84.1	57.6	61.5	37.1

주: /\* 추정치임.

표 6 육류 통계

구 분	2008. 1~7	2009. 1~7	2009년				
			3월	4월	5월	6월	7월
육류 생산량(백만파운드)							
- 쇠고기	15,642	15,104	2,145	2,133	2,180	2,289	2,254
- 송아지고기	81	79	12	11	10	12	11
- 돼지고기	13,469	13,104	1,969	1,924	1,716	1,848	1,805
- 양고기	103	99	16	16	13	14	14
적색육 전체	29,295	28,385	4,142	4,084	3,919	4,162	4,084
- 육계	21,811	20,607	2,999	2,998	2,890	3,047	3,098
- 기타 계육	333	296	43	44	41	45	49
- 칠면조육	3,642	3,318	471	475	451	494	513
백색육 전체	25,787	24,221	3,513	3,516	3,382	3,586	3,660
전체 육류 생산량	55,083	52,607	7,654	7,600	7,301	7,748	7,744
도축두수(천두)							
소	20,390	19,479	2,730	2,772	2,850	2,981	2,900
- 거세우	10,432	9,827	1,335	1,410	1,492	1,548	1,525
- 미경산우	6,046	5,778	848	833	830	863	830
- 경산우	2,064	1,815	258	261	263	259	235
- 젖소	1,494	1,736	243	219	215	260	265
- 비거세우	354	322	46	49	50	51	45
- 송아지	519	527	80	68	65	77	78
양	1,483	1,407	222	229	185	203	199
돼지	67,004	64,635	9,653	9,431	8,451	9,181	9,084
- 비육돈	64,624	62,527	9,350	9,130	8,174	8,855	8,760
- 모돈	2,104	1,847	269	264	242	277	286
육계	5,297,104	4,993,903	727,605	722,083	693,017	737,427	761,795
칠면조	156,707	142,952	20,112	20,297	19,564	21,684	22,990

구 분	2008 7월	2009년				
		3월	4월	5월	6월	7월
정육량(파운드)						
소	779	791	774	769	772	781
송아지	141	154	165	158	149	136
양	67	73	69	74	72	70
돼지	196	204	204	204	202	200
재고 입고량(백만파운드)						
쇠고기	428.1	434.5	425.9	410.7	417.9	435.0
돼지고기	530.1	624.5	594.1	614.7	584.5	579.0
- 내장	74.4	75.7	79.3	79.3	78.8	76.0
- 햄	130.0	96.2	70.9	77.6	95.3	117.0
닭고기	768.8	647.8	635.5	658.2	641.9	658.5
칠면조고기	562.7	462.4	513.4	571.7	585.7	595.9
냉동달걀	16.1	22.1	20.3	18.2	21.7	21.6

표 7 생축 가격

구 분	2008 7월	2009년				
		3월	4월	5월	6월	7월
소 (100파운드당 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 1,100 ~ 1,300 파운드급						
텍사스 팬헨들	98.58	82.35	86.70	84.64	81.97	82.65
네브라스카	98.83	81.66	87.02	85.27	81.31	82.45
- 암소(수풀스지역)						
유틸리티급 1,200 ~ 1,600파운드	64.90	48.13	53.19	55.00	51.50	NA
유틸리티급 800 ~ 1,200파운드	63.35	46.88	49.33	53.17	45.88	NA
- 비육밀소(오클라호마)						
거세우						
1) 500 ~ 550 파운드	120.58	110.88	117.33	120.21	110.74	108.90
2) 600 ~ 650 파운드	112.47	103.27	107.47	110.12	103.75	104.95
3) 750 ~ 800 파운드	110.85	90.02	98.30	99.26	98.34	101.95
미경산우						
1) 450 ~ 500 파운드	104.42	97.70	105.15	110.27	100.59	100.75
2) 700 ~ 750 파운드	105.55	83.59	91.52	93.93	93.88	97.65
돼지 (100파운드당 가격)						
- 비육돈						
·살코기 51 ~ 52% 기준	56.48	42.47	42.83	43.18	42.21	42.50
- 모돈						
·아이오와 #1-2, 300 ~ 400파운드	22.70	38.91	38.69	40.14	39.35	32.50

표 8 곡물 및 사료가격

구 분	2008 7월	2009년				
		3월	4월	5월	6월	7월
곡물(\$/부셀)						
- 옥수수, #2 Yellow, Cen. III	0.00	NA	NA	N/A	N/A	N/A
- 밀, HRW Ord., K.C. (\$/부셀)	0.00	NA	NA	N/A	N/A	N/A
사료(\$/톤)						
- SBM, 48% Solvent, Decatur	0.00	NA	NA	N/A	N/A	N/A
- 알팔파, U.S. Avg.(\$/톤)	177.00	137.00	133.00	138.00	128.00	N/A
- 건초, U.S. Avg.(\$/톤)	130.00	109.00	117.00	113.00	107.00	N/A

표 9 축산물 도매가격 현황

구 분	2008 7월	2009년				
		3월	4월	5월	6월	7월
<b>쇠고기 (\$/100파운드)</b>						
- 쇠고기 절단 포장육						
초이스급 1-3, 600 ~ 900 lb	167.33	135.91	144.42	146.22	140.00	138.00
셀렉트급 1-3, 600 ~ 900 lb	160.33	134.11	143.04	141.94	132.40	132.15
- 뼈없는 냉장 쇠고기, 90%	181.19	139.86	145.59	148.78	135.94	141.35
- 수입 냉동 쇠고기, 90%	188.58	128.13	129.90	133.84	135.34	135.30
- 가죽 및 내장	N/A	N/A	N/A	N/A	N/A	N/A
<b>돼지고기 (\$/100파운드)</b>						
- 지육	82.71	57.87	58.49	59.26	55.94	61.50
- 등심, 14-19 lb Bl 1/4" trim	117.11	90.46	92.10	97.73	91.58	96.00
- 삼겹살, 12-14 lb skin on trmd.	78.75	65.25	N/A	57.00	50.00	76.00
- 후지, 20-23 lb Bl trmd. TS1	82.43	48.92	47.49	46.73	45.86	51.00
- 잡육, 72% fresh	75.03	49.15	47.11	44.72	39.60	45.00
<b>육계 (센트/파운드)</b>						
- 12개 도시 평균	84.60	77.01	76.39	82.96	86.22	83.50
- 조지아 독(Georgia dock)	86.77	85.20	84.89	86.63	87.85	87.30
- 북동부						
· 뼈없는 가슴살	138.79	137.60	139.23	147.69	147.14	149.90
· 뼈있는 가슴살	81.89	81.43	82.34	91.43	97.67	100.90
· 다리(전체)	72.40	54.58	56.93	66.70	64.94	61.40
· 다리(1/4도체)	53.63	36.16	38.24	47.31	50.59	48.80
<b>계란, A등급, lg, 12개 기준</b>						
- 12개 대도시 평균	101.23	89.76	103.54	68.85	74.84	64.40
- 뉴욕	105.41	101.50	107.68	80.70	80.64	88.00

표 10 육계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셸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8년 5월	325.48	5.61	178.3	128.2	110.4
2008년 6월	370.92	6.56	185.2	126.7	106.1
2008년 7월	412.25	6.00	184.9	127.4	107.1
2008년 8월	355.35	5.04	208.3	126.0	97.0
2008년 9월	352.70	4.95	206.4	118.4	87.3
2008년 10월	260.66	3.66	180.8	123.1	102.8
2008년 11월	267.37	3.43	178.9	122.2	102.1
2008년 12월	268.24	3.29	141.8	117.6	109.1
2009년 1월	306.85	3.66	139.2	131.5	128.8
2009년 2월	297.42	3.49	137.1	132.3	130.6
2009년 3월	292.22	3.64	149.8	133.5	127.8
2009년 4월	324.27	3.67	145.4	134.8	131.1
2009년 5월	380.37	3.97	147.0	142.0	140.2
2009년 6월	418.47	3.93	153.1	144.8	1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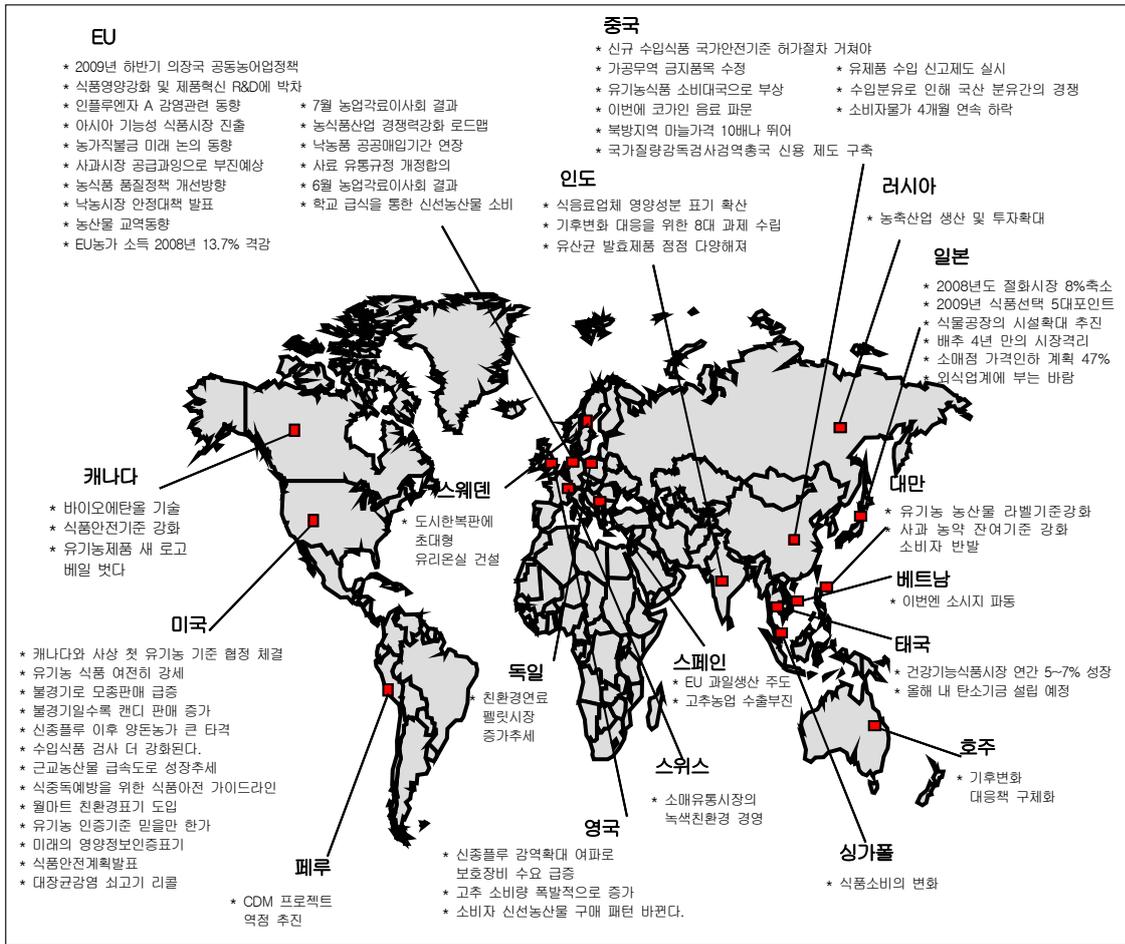
표 11 계란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셸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8년 5월	325.48	5.61	211.9	129.2	85.9
2008년 6월	370.92	6.56	211.9	153.2	122.5
2008년 7월	412.25	6.00	242.5	138.5	84.1
2008년 8월	355.35	5.04	235.5	146.4	99.9
2008년 9월	352.70	4.95	202.8	158.8	135.8
2008년 10월	260.66	3.66	200.1	149.0	122.3
2008년 11월	267.37	3.43	153.7	159.0	161.8
2008년 12월	268.24	3.29	149.1	158.8	163.8
2009년 1월	306.85	3.66	145.8	163.7	173.1
2009년 2월	297.42	3.49	161.1	133.7	119.3
2009년 3월	292.22	3.64	155.4	122.8	105.7
2009년 4월	324.27	3.67	158.3	141.6	132.9
2009년 5월	380.37	3.97	164.2	94.2	57.6
2009년 6월	418.47	3.93	180.6	102.4	61.5

# 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2009.7)

세계 농업 브리핑 (2009.7)\*



1. 아시아/오세아니아

○ 일본, 외식업체에 부는 바람

- \* 일본 외식업체는 점차 심해지는 경기불황과 함께 나날이 증가하는 식품안전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는 외식시장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음.

\* 세계 농업 브리핑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교통상부, 주유럽연합대표부 등 국내외 유관기관의 정보를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일본의 수입상사 및 대기업은 중국 이외에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등지의 동남아시아에서 현지법인을 통해 재배하거나 직접 제조를 관리, 지도하고 있으며, 음식 재료 수입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안정성과 안정적인 공급, 가격 순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식품의 원산지 표기를 확인하는 현상이 늘고 있으며, 고가여도 국내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과 유기농 및 저농약 채소, 무첨가 가공식품을 전용 인터넷, 전화, 팩스 등으로 구입하는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일본, 2008년도 절화시장 8% 축소**

- 농림수산성은 6.18일 2008년도 절화 도매거래량이 전년대비 8% 감소한 3,112 억엔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출하량 전체의 40%를 점하는 국화는 도매가격이 8% 저렴한 본 당 48엔, 카네이션가격은 7% 저렴한 43엔에 거래되었으며, 장미가격은 1% 하락에 그친 반면 판매량이 6% 감소한 3억 7,934만본으로 떨어졌음.
- 생산자의 고령화에 이어 중유가격의 급등이 농가의 부담이 되어 생산규모의 축소로 이어졌으며, 불황의 영향으로 양란류, 관엽식물의 도매가격이 하락하였음.

○ **일본, 식물공장의 시설확대 추진**

- 일본 정부가 실내에서 인공적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미래형 농업시설인 ‘식물공장’ 보급 확대를 추진함. 7.29일 니혼게이지아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재 50개 규모인 식물공장을 3년 뒤 150개까지 늘리고, 건설비를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움.
-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식물공장 기술 관련 연구소를 5~6개 대학에 설치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또 식물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들의 판로 개척도 지원할 방침임.
- 식물공장은 날씨 변화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고품질 채소를 공급할 수 있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식품가공 및 외식업체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음. 또한 농업 분야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 젊은 구직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 배추 4년 만의 시장격리**

- 농림수산성은 7.21일,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여름 배추의 긴급수급조정(시장격리)을 4년 만에 발동함.

- 6월의 좋은 날씨로 인한 풍작기조와 염장수요의 미증가 등으로 인해, 동경시장에서는 7월 중순 배추 1kg 평균가격이 53엔으로 관동블록의 시장격리 지표가격이 되는 58엔을 밑돌았음.
- 농수성은 금후에도 입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가격하락이 한층 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동 이유를 설명함.

○ **일본, 소매점 가격인하 계획 47%**

- 6.24일 일본경제신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부진 등으로 소매점의 47%의 기업이 연내 상품의 가격인하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사 업계 중 슈퍼와 생협이 60%를 넘어 가장 높았고, 백화점 45%, 저가중심의 편의점도 30%에 달함.
- 가격인하는 PB상품, 개발판매상품, 기존 메이커 제품순이며, 세븐아이홀딩스도 콜라, 닛신식품 등 잘 팔리는 상품 중심으로 가격 인하가 시작되고 있음.
- 경기불황으로 인해 불요불급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규모적 확대보다는 전문성과 가격경쟁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 **일본, 2009년 식품선택 5대 포인트**

- 베루메존생활스타일 연구소는 일본 전역의 20~50대 여성 3,34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 180개 항목에 대해 1년 전과 비교, 달라진 점과 앞으로 하고 싶은 것 등을 물어본 결과 최근 1년간 식생활에 있어 안전 및 절약에 신경을 쓰는 여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일본인들의 식생활 포인트는 1) 음식 관련 안전이나 절약에 대한 의식은 1년 전과 비교해 급속히 높아지고 있고, 2) 외식보다는 가정식을 위주로 3) 향후에는 건강과 비용에 좋은 식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 이번엔 '코카인 음료' 때문**

- 중국은 식품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발효된 첫날인 6.1일 '코카인 음료수' 파문이 터져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 이번 사건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기능성 음료수 '홍뉴'의 오스트리아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에 마약인 코카인이 검출되면서 중국 본사 생산 제품에서도 코카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었음.
- 대만 당국은 5.28일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한 홍뉴에서 코카인이 검출됨에 따라 77만2천500달러 상당의 홍뉴 1만8천 상자를 전격 압수하였고, 독일 정부도 지난달 29일 실험 결과, 홍뉴 콜라에서 코카인이 검출되자 판매 금지령을

내렸음. 또한 홍콩 정부는 6.1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홍뉴 제품 3종을 긴급 수거해 화학실험을 실시한 결과, 1당 0.1~0.3mg의 코카인이 검출돼 대만에 비해 코카인 함유량이 10배나 높았다고 발표함.

○ 중국, 신규 수입식품 국가안전기준 허가절차 거역야

- 지난 6.12일 진행된 “2009 중국식품안전회의”에서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수출입식품 안전국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입한 식품이 국가 안전기준이 없는 식품이면 반드시 위생부문의 심사와 허가 절차를 거쳐 수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 수입상들이 국가 안전기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려면 위생부문의 허가를 거쳐야 하며 위생부문의 허가가 없으면 식품이 항구에 도착하더라도 검역 등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6.1일 이전에 수입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6.1일부터 실시되는 <식품안전법>에 의하면 국가안전기준이 없는 식품에 대한 수입 및 처음 수입되는 첨가제 등은 반드시 국가 위생행정부문에 수입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수정에

- 지난 2일 중국 상무부와 하이관총수(海關總署)가 공동으로 상품코드 1,770개가 포함된 ‘2009년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발표하였음.
- 이 발표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번에 가공무역 금지 품목 조정은 계속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에너지 소비량이 큰 가공무역을 엄격히 금지하는 동시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제품을 금지품목에서 제외시켜 기업 신뢰 증진과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 유기농 식품 소비대국으로 부상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유기농 식품산업이 비교적 빠르게 발전하면서 발전기 반과 함께 브랜드 영향력도 커진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세계 4위의 유기농 식품 소비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중국 유기농 및 유기농 가공 상품은 채소, 콩, 잡곡, 수산물, 야생채집 등 50가지에 400~500개 품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농업부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유기농 식품시장은 20~30%의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세계 유기농 식품 시장규모는 1,000억 달러로 예상됨. 그 중에서 중국 유기농 식품 식품시장의 수요는 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북방지역 마늘 가격 10배나 뛰어

-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북방의 채소가 대량 시장에 출시되고 있어 대다수 채소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지만 마늘 가격만은 상승세를 보여 2007년 이후 최고 가격인 2.2위안/kg에 달하고 있음.
- 6월 초 마늘 가격은 1.8위안/kg에서 2.2위안/kg로 상승하여, 2008년 동기대비 112.5% 상승하였으며 연초의 최저가격에 비해 10배가량 상승하였음.
- 가격상승원인은 2007~2008년 사이, 마늘 풍작으로 인해 재배농가들이 심각한 손실을 보게 되면서 2009년에는 마늘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였기 때문임.

○ 중국, 유제품 수입 신고제도 실시

- 중국 상무부는 8.1일부터 외국산 신선우유, 분유, 유청 등 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검역당국 및 해관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힘.
-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新정책은 2008년 발생한 “산루사건(멜라민과동)”으로 인해 현재 유제품 유통에서 약 7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유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산유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음.

○ 중국, 수입 분유로 인해 국산 분유간의 경쟁 심화

- 2009년 1~2월 사이에 중국으로 수입된 분유량은 4.15만톤에 달하여 2008년 동기대비 101.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국은 뉴질랜드와 호주로 나타났다.
- 분유 수입량이 많아지면서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입 분유의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분유업계 생산제품의 가격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처럼 지난 ‘산루사건’이 중국 우유시장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유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중국 유업협회 회장인 왕딩맨(王丁楠)은 소비자들의 중국산 우유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시장 살리기에 나섰으며, 문제 분유에 대한 수매를 실시하여 이미 5만 톤에 달하는 불량우유를 수매한 바 있다고 밝혔음.

○ 중국, 소비자물가 4개월 연속 하락

-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동월에 비해 1.4% 하락했으며,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음.

- 또한 5월 생산자물가지수가 7.2% 하락해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것과 관련하여, 디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비교대상인 작년의 물가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신용 제도 구축**

- 최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신용 블랙리스트 제도를 구축하여 품질안전사고, 품질문제, 및 범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구축하여 엄격한 감독 관리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외에 공개 발표한다고 함.
- 중국은 향후 3년간 완벽한 품질신용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등 생명안전과 관련된 제품들을 중심으로 품질신용분류 감독관리를 실시하게 되며, 현재 중국은 이미 17가지 대분류의 89,699건의 기업품질관리, 제품품질, 품질감독 관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업품질대장을 구축하여 품질신용체계구축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인도, 식음료업계 영양성분 표기 확산**

- 인도에 진출해있는 유니레버(Unilever), 켈로그(Kellogg), 코카콜라(Coca-Cola), 펩시(PepsiCo), 콘아그라(Conagra) 등의 세계적인 식음료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표준 영양성분 표시를 도입하기로 계획함.
- 이에 인도 식음료업체들은 올해 말로 예상되는 통합식품법(Integrated Food Law) 시행에 앞서 글로벌 자회사들이 도입한 프로그램과 같은 전략을 시행하려 함.
- 인도 식음료업체들은 현 시장 트렌드에 맞춰 영양성분표 표기를 모든 제품 포장으로 확대하고, 기능성 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8대 과제 수립**

- 인도는 지난 2008년 6월에 인도의 첫 번째 ‘기후변화 관련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NAPCC)’을 발표한 바 있으며, 수행을 올 해 말까지 착수시킬 예정임.
- 이번 계획은 8대 핵심 국가적 과제를 수립하고 2017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과제로는 태양에너지(National Solar Mission), 에너지효율 제고, 지속가능한 주거, 물, 히말라야 생태계 보존, 녹색 인도, 지속가능한 농업, 기후변화 관련 전략 지식으로 나누어서 시행함.

○ **인도, 유산균 발효제품 점점 다양해져**

- 인도는 다양한 식습관과 문화 및 전통을 가진 11억 이상의 인구가 공존하는 국가로 우유 생산과 소비에 있어 오랜 역사와 함께 연간 1억 톤 이상의 우유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우유 생산국임.
- 최근 인도 유통시장의 성장과 발전으로 제품 공급망이 구축되고 냉장, 운반 등의 시설이 향상되어 제조업체들은 생산과 공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인도 중상층을 중심으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몸에 이로운 프로바이오틱이나 유산균 발효음료 같은 기능성음료를 선택하는 추세로 인해 인도 기능성 유제품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됨.

○ **태국, 건강기능식품시장 연간 5~7% 성장**

- 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중상류층이 주로 구매하고 있는데, 간단한 비타민 알약에서부터 각종 노화방지 및 질환치료제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음.
- 최근 몇 년간 태국경제는 침체했으나 태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음.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들은 경쟁사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의 제품에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 **태국, 올해 내 탄소기금 설립 예정**

- 세계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태국 자원환경부는 2007년 내각에 온실가스 감소 프로젝트와 CDM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Thailand Greenhouse Gas Management Organization(TGO)를 설립함.
- 탄소기금은 CDM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대출하거나 공동투자하는 데 지원하고, CDM 프로젝트 개발자에게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국제 탄소거래시장에 판매함을 목적으로 함.
- TGO에서는 탄소기금 설립 계획서를 현재 작성 중이며, 위원회의 승인이 이뤄지면 민간분야와 협력해 탄소기금을 설립할 예정임.

○ **대만, 유기농 농산물 라벨기준 강화**

- 다음 달부터 대만의 농산물 생산자들은 “유기농(organic)”이라는 라벨을 사용하기 전에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국내 유기농 상품은 포장에 인증된 농산물기준 등록상표와 인증 일련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수입 유기농 식품은 안전성을 검증받은 일련번호, 생산지, 인증기관명을 표기해야 함.

○ 베트남, 이번에는 소시지 파동

- 베트남 보건부 식품 안전국은 최근 벨기에산 수입 소시지(BALLERING)에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함.
- 이번 결과에 대해 관계식품전문가들은 “요즘 식품위생 안전 불감증이 도처에 만연하고 있어 이 기회에 수입산은 물론 국내산 소시지도 다이옥신 오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악덕업주를 색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음

○ 싱가포르, 식품소비의 변화

- 최근 발표된 닐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제불황으로 싱가포르인들이 외식을 줄이고 가정에서 식사하는 것을 늘임에 따라 신선 식품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닐슨은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타난 원인이 식품 가격이 오르고, 많은 싱가포르인들이 집에서 직접 요리하여 먹음으로써 생활비를 절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고소득 가정에서의 소비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범주의 가정에서는 신선 식품 소비가 무려 27%나 증가했음.

○ 대만, 사과 농약 잔여기준 완화.. 소비자 반발

- 대만 건강부는 사과의 농약 잔여기준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소비자 단체는 이러한 완화조치가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취해진 거라며 반발하고 있음.
- 대만정부는 전에 국내에서 팔리는 사과에 대해서 살충제인 엔도설판(endosulfan)의 잔여가 남겨지는 것을 금지했었으나, 지금은 0.5ppm까지는 수용될 수 있다고 3.29일에 밝혔음. 식품안전청 담당자는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재배되는 모든 사과는 새로운 엔도설판 검열수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국립대만대학 생물자원&농학 단과대학의 교수이자 비영리 소비자 설립단체의 멤버인 Sun Lih-chyun(孫立群)은 미국이 대만에 식품안전 기준을 낮추라는 정치적 압력행사를 했다는 것을 언급함.

○ 러시아, 농축산업 생산 및 투자 확대

-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러시아에서도 수입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제품 수입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분야가 러시아 식품산업임.
- 그동안 상당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입 식료품의 가격이 최근 크게 인상되면서 각종 식료품의 국내생산이 증가세를 보임. 현지 기업들도 정부지원을 등에

업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이전에 수입품에 내어준 시장을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한편 러시아 정부는 최근 자국 내 농자재 생산업체 육성을 위해 각종 농·축산 장비의 수입관세 인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남.

## 2. 유럽

### ○ EU, 2009 하반기 의장국 공동농어업정책 중점추진과제

- 2009년 하반기 EU 의장국을 수입하는 스웨덴의 농어업분야 중점추진과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스웨덴 농무장관(Eskil Erlandsson)의 인터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1. EU 공동농어업정책 중점추진과제

가. 장기 지속가능한 어업(공동어업정책 개혁)

-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야만 자원양을 늘려나갈 수 있으며, 새로운 어업통제 시스템과 2010년 어획쿼터 할당을 결정할 예정임.

나. 농식품과 기후변화

- 농림업분야가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게 유지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증가시켜야 함.

다. 건전한 축산 및 건강한 동물 (동물복지)

- 건전한 축산이 동물복지, 소비자의 신뢰, 보건, 농가의 소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복지 이슈(도축장, 실험실, 가축운송 시 동물복지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2. 스웨덴 농무장관 인터뷰 (농업전문지 AGRA FACT)

- 농어업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과 기후변화, 동물복지와 위생, 공동어업정책 개혁에 중점을 둘 것임.
- 2013년 공동농어업정책의 미래와 관련, 공동농어업예산중 1영역(시장관리 및 농가직불금)에서 2영역(농촌개발)으로 예산을 이전하고 공동농어업정책을 위한 EU 예산비중을 줄이기를 바람.
- WTO/DDA 협상과 관련하여 DDA 협상이 금년 말까지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하며 EU의 수출보조금 폐지를 지지함.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낙농분야 문제 (우유 등 낙농품 가격 폭락)는 우유 생산권터와는 관계가 없으며 우유 생산을 시장 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함.

○ EU, 인플루엔자 A(H1N1) 감염 관련 동향(6.11 기준)

- 2009.6.11 세계보건기구(WHO)가 인플루엔자 A(H1N1)에 대한 전염병 경보 수준을 5단계에서 6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와 체코 이사회 의장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음.
- WHO의 전염병 경보 6단계 발표에 따라 EU 지역에서는 회원국별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및 대응 계획이 시행될 것임.
- 아울러 2009.4.30일 개최된 보건장관 특별 이사회에서 우선 조치사항(공중보건조치, 모니터링, 진단·치료, 정보 제공, 백신 개발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집행위원회와 체코 의장국은 인플루엔자 A(H1N1)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기획·조정 및 독려할 계획임.

○ EU, 사과시장 공급과잉 등으로 2010년까지 부진 예상

- EU 사과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EU의 사과 시장이 수입산 사과 재고 과잉 등으로 인해 2010년 사과 시즌도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함.
- 2009년 4월초, EU시장의 사과 재고는 1.6백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나 높은 수준인데, 사과 종류별 전년대비 재고 수준은 Ida red 131%, Red Delicious 55%, Golden Delicious 19%, Jona gold / Jonago red 14% 순으로 각각 높은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네덜란드의 초대형 신선 농산물 유통업체인 그리너리(Greenery) 사과, 배 책임자는 러시아 시장에서의 사과 판매 격감부진이 결정적으로 EU 사과 시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었고, 여기에 동구 유럽 국가들에서의 사과 풍작이 맞물려, 올해 EU의 사과 시즌 기간을 넘기고도 못 팔리는 엄청난 재고 물량을 앓고 2010년 시즌까지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EU 사과업계에는 엄청난 재앙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음.

○ EU, 불황에도 식품영양 강화 및 제품 혁신 R&D에 박차

- 유럽의 세계적인 식품업체들인 스위스의 네슬레(Nestle)사와 프랑스의 다농(Danone)사가 5월에 발표한 새로운 R&D계획에 따르면, 양사 모두 불황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영양 강화 및 혁신 제품 개발에 더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식품 제조 판매 다국적 기업인 네슬레(Nestle)사는 설립 이래 최초로 일본 동경대학교 공동으로 일본에 건강과 영양에 관한 기초과학 연구 R&D 센터를 세운다고 5.20일자로 발표했음.

- 프랑스 다농(Danone)사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 유아 건강 영양을 연구하고 혁신 제품을 개발하는 R&D 센터를 네덜란드에 설립, 2012년에 오픈한다고 발표했는데, 프랑스 다농(Danone)사는 많은 R&D 부문을 네덜란드에서 수행하고 있음.

○ **EU, 아시아 기능성 식품시장의 EU진출 가능성 있다.**

- 유력한 식, 음료 전문 기관인 GIA(Global Intelligence Alliance)와 Fusion Consulting 사는 전 세계 굴지의 20개 식,음료 다국적 기업을 공동 분석 연구 후, 아시아 식,음료 제조 기업들이 발효성 음료(preboitic drinks) 및 인스턴트 누들과 같은 특정 식품부문에 있어서 EU 시장의 소비자 니즈에 맞추는 것은 물론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 아시아 브랜드가 EU시장에서의 점증하고 있는 아시아 식,음료수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서구인의 기호에 맞도록 제품을 개발(customize)하는 것과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brand identity)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 **EU, 농가직불금 미래 논의동향**

- 2009.5.30~6.2일 체코 Brno시에서 비공식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2013년 이후 EU 농가직접지불금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함.
- 2009년 상반기 EU 의장국 체코는 비공식 각료회의를 준비하면서 현재 중기 재정계획이 끝나는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미래, 특히 농가 직접지불금 정책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① 2013년 이후 농가직접지불금의 역할과 기능 ② 직접지불금과 농촌개발정책수단과의 관계 ③ 회원국간 불균형한 직접지불금 지원수준 개선방안에 대해 회원국들과 논의함.
- EU 회원국들은 농가의 소득안전망 제공,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가, 식량안보 유지차원에서 EU가 농가직접지불금 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공감은 하였지만 지급수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임.
- 피셔보엘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2013년이 되면 EU 농가직불금의 90% 이상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게 될 예정이고 신규가입국의 전환기 적용기간도 마무리되는 만큼 2013년 이후에는 농가직불금의 소득안전망 기능 유지여부 및 수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연계성 유지방안, 직불금 제도 변경시 농촌개발 정책 수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EU, 농식품 품질정책 개선방향**

- EU 집행위는 농식품 품질정책방향 독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09.5.28일 농식품 품질정책 개선방향 보고서(communication) 을 발표함.

- EU 농식품 품질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역내 농민들이 환경보호, 동물복지, 농약 및 수의약품 사용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이러한 농식품 품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농식품의 물리적 특성과 영농방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함으로써 품질에 상응한 가치를 부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1) 농식품 품질 인증기능을 개선하고 EU 전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2) EU 농산물 공동시장체제에 적용되는 마케팅 표준을 개발, 3) 기존의 인증제도 및 마케팅 표준 간소화, 명확화가 있음.

○ **EU, 2009년 7월부터 못생긴 과일과 채소 본격 판매**

- 비정형 신선 농산물의 판매에 관한 EU의 신규 신선 농산물 거래 품질규정 (EC Regulation 1221/2008)이 발효됨에 따라 외관이 매끈하게 생기지 못해 정식 유통채널에서 판매되지 못하던 과일·채소가 다시 EU 대형 슈퍼마켓 판매대에 오름.
- 영국 식품 및 농업관할 장관은 신규 규정 도입으로 인해 신선 농산물 소비가 장려되고, 신선 농산물 공급업자와 농가들의 신선 농산물 재고 유지 부담 감소 및 음식 쓰레기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함.

○ **EU, 낙농시장 안정대책 발표**

- EU 집행위는 2009.07.22. 농업각료이사회에서 요구한 EU 낙농시장상황 분석 및 시장안정대책 보고서를 발표함.

1. **낙농시장 안정대책 내용**

- 집행위는 현 EU 법규 하에서 낙농시장상황을 분석하고 낙농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모든 수단을 망라하여 정리하였으나, 농민단체나 프랑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요구한 우유생산쿼터 증량 중단 또는 감축조치는 거부함.
- 집행위가 제시한 낙농시장 안정대책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가. 민간저장 지원: 금년 1월부터 버터 113,500톤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
- 나. 구매: 금년 3월부터 버터 81,900톤, 탈지분유 231,000톤을 구매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구매기간 연장, 낙농시장이 불안할 경우 내년도도 구매 지속
- 다. 수출보조: 1월 낙농품수출보조지원을 재개하였으며 필요시 계속 지원

- 라. 학교 우유급식: 과일 함유 우유제품도 급식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정개정 모색
- 마. 직접지불금: 회원국이 농가직불금의 70%를 10.16일 조기 지급가능하도록 조치
- 바. 국가보조 또는 용자지원: 경쟁법 저촉이 되지않는 de-minimis 범위내에서 회원국 지원가능
- 사. 임시 금융위기 국가보조: 현재 농가당 7,500유로까지 가능하나 2010년말까지 농가당 15천유로 지원가능하도록 규정개정
- 아. 낙농품 소비촉진 프로그램 추진
- 자.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시 합의한 대로 69조(직접지불금의 일부를 유보하여 취약분야 농가에 재분배)를 활용하여 취약한 지역의 낙농부문 농가 지원 가능
- 차. 농촌개발정책 수단 활용: 조기은퇴, 투자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친환경 우유생산농가 지원, 동물복지개선 농가 지원
- 카. 유럽식품가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타. 식품공급망(특히 낙농품)에 반 경쟁법적 관행 조사 및 낙농생산자 단체의 시장 교섭력 강화
- 그러나 EU집행위는 6월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의 결정대로 작년말 합의된 낙농쿼터 증량 및 2015년 폐지는 예정대로 추진

## 2. 관찰 및 평가

- 낙농쿼터 증량 중단 및 추가적인 낙농부문 지원을 주장해 온 회원국과 농민단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는 새로운 지원방안을 거의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농업각료이사회에서 논란이 예상됨.
- 그동안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지에서 낙농쿼터 동결 시위를 벌여온 유럽낙농위원회(European Milk Board)는 낙농쿼터 증량 및 폐지 의지를 굽히지 않는 집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 그러나 6월 EU 정상들은 현 낙농시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되 작년 합의된 낙농쿼터 증량 및 폐지 결정을 존중하도록 결정한바 있음.

## ○ EU, 농산물 교역동향

- EU 집행위는 최근 식량가격 폭등,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EU와 주요 교역상대국의 농산물 교역 흐름을 비교 분석한 농업무역정책 보고서를 발표함.

### 1. 세계 농산물 교역에서 EU의 위상

- 2008년 세계 농산물 교역에서 EU는 최대 수입국이자 최대 수출국 위치를 유지

- EU는 개도국으로부터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2. 기초 농산물 가격상승이 교역에 미친 영향**

- 2006-2007년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이들 품목의 수출비중이 큰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미국도 엄청난 농산물 무역흑자를 거둬.
- 농산물 최종 가공품 수출 비중이 2/3인 EU의 경우, 2006-2007년 원료 농산물 가격상승이 농산물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음.
- 기초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EU 농산물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 EU 농산물 교역적자 규모는 2007년 25억 유로에서 2008년 47억 유로로 확대.

**3. 최근 경제위기 상황이 농산물 교역에 미친 효과**

- 미국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로 미국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EU의 대미 농산물 수출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10억불 감소함.
- 2009년 1/4분기에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EU 농산물 수출의 12%가 감소하였는데, 낙농품 등 농산물 가격하락, 유로화 환율, 세계 식량수요 감소 및 고부가가치 상품 수요 이탈 등이 주요 원인임.
- EU 농산물 수입은 9% 감소하였으며 이 중 최종 가공농산물 수입감소는 1.6% 감소에 그쳐 EU 소비자들이 경제위기에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도 달러가치의 단기적 상승, 기초 및 중간재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원인으로 1/4분기에 농산물 수출이 21% 감소하였으나, 이는 기록적인 농산물 수출액을 기록한데 이은 조정과정으로 해석되며 미국 가공농산물 수출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
- 중국, 일본의 1/4 분기 농산물 수입은 각각 23%, 7% 감소하였으나, 2008년 예외적인 농산물 수입액 급증을 감안하면 정상 흐름으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해석됨.

**○ EU, 농가 소득 2008년에 13.7% 격감**

- 2008년은 농가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EU 농가 소득이 13.7%나 격감한데 이어 2009년 EU 농가소득이 추가로 10%나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Teagasc 전국 농가 여론 조사 기관 대표는 농사의 채산성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거나 향후 EU의 농업 보조금 삭감이 시행되면, 더 많은 농가들이 농사를 접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 EU농업 보조금은 농가 총생산 금액의 31% 비중을, 농가 평균 소득 금액대비는 103% 수준에 이룸.

○ EU, 맥도날드 유럽 농업 품질 기준 높인데 앞장선다

- 전 세계적인 식당 체인인 미국의 맥도날드(McDonald's)사가 6.18일 유럽 농업 품질 기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시작함.
- 맥도날드사는 시범 농장(flagship farm) 이니셔티브를 통해 농업에 있어서의 친환경 농업·동물 복지·에너지 절약형 농사 방법 개발 등 광범위한 현안 개선에 앞장 설 계획임.
- 맥도날드사 구매선 관리 총책임자는 이번 이니셔티브는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농업 품질 전반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인상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적이고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 품질 기준 향상 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EU, 7월 농업각료이사회 결과

- 2009.7.13일 룩셈부르크에서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낙농품 공공매입기간 연장과 미국산 고급 쇠고기(성장호르몬 미사용) 추가 쿼터제공 합의안을 승인함.

1. 낙농품 공공매입기간 연장

- EU 농무장관들은 탈지분유와 버터의 공공매입기간을 2009년 8월 말에서 2010년 2월까지 연장하는 집행위 제안을 폭넓게 지지함.
- 프랑스, 독일은 낙농품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대형 우유제조 회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집행위를 압박함.

2. 고급 쇠고기 추가 수입쿼터

- 이사회는 EU 집행위와 미국 간 쇠고기 호르몬 분쟁 잠정합의안에 따라 8월부터 2만톤의 고급쇠고기(성장호르몬 미사용, 신선, 냉장, 냉동) 무관세 쿼터를 신규로 부여하는 규정을 채택함.

3. 의장국(스웨덴) 중점 추진과제

- 2009년 하반기 의장국인 스웨덴은 의장국 수임기간 중 농업분야 중점추진 3대 과제를 공동어업정책 개혁, 식품 및 기후변화, 동물 복지 및 위생으로 설정함.

○ EU,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1. EU 회원국 및 농식품 업계, 시민사회의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EU 농식품산업 경쟁력강화 고위그룹은 2009.3.17일 EU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음.

2. EU 집행위와 회원국 관련 기관 및 식품산업 업계는 2009.7.10일 회의를 가지고 경쟁력 강화 고위그룹이 제시한 주요 권고사항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함.

3. EU 농식품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

- 식품공급망 간 계약내용 및 가격의 투명성 제고
- 위조방지를 위한 시장감시 메커니즘 설치
- 유럽 농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SWOT 분석방법에 따라 평가
- 농식품업계 간 대화채널 마련
- 농식품 산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범 EU 행동규범 마련 및 식품공급망 업체 관계개선을 위한 유럽포럼 설치
- 중소기업 자체 농식품 브랜드의 효과 분석 연구 개시 등

○ EU, 낙농품 공공매입기간 연장

- EU 집행위는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8월말 종료예정인 낙농품 매입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하는 제안서를 채택함.

1. 경과

- EU 집행위는 지난해 말부터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감소로 낙농품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나자 2009년 1월 낙농품에 대한 민간저장 지원과 수출보조금 지급을 재개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품 시장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농민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짐.

2. 집행위 제안내용

- 버터와 탈지분유의 입찰방식 매입기간을 2009년 8월에서 2010년 2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시장상황이 불확실하므로 필요시에는 2010~2011년 기간동안 매입을 유지함.
- 집행위 제안은 2009.07.13일 개최되는 농업각료이사회에서 논의, 채택될 예정임.

○ EU, 사료 유통규정 개정입의

- 2009.6.23일 EU 농업각료이사회는 사료 라벨링 규정을 보다 간소화,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사료 유통 및 사용규정을 개정하는 집행위제안을 채택함.

## 1.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료의 라벨링 규정을 식품규정에 준하여 개정: 현재는 배합사료의 모든 원료와 비중을 표시하되 성분비중은 지재권 보호차원에서 +/- 15% 범위 내에서 실제와 다르게 표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성분리스트를 중량 순서로 나열하며, 사료 성분 중 일부를 그림 또는 문자로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비중을 표시하여야 함.
- 반려동물 사료제품의 경우에는 자세한 성분사항을 표시하지 않아도 반려동물 소유자가 구성성분에 대한 추가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함.
- 사료제품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 사료 생산, 유통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EU 사료물질 목록을 작성하되 동 목록에 사료물질이 누락된 경우에는 on-line 등록처에 통보토록 함.
- 사료의 영양 성분에 대한 주장 광고는 객관적이고 이해가능하며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허용되지만 농민들이 동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검증하고 이를 집행위에 제출하여야 함.
- 위생에 관한 주장광고는 금지되나 영양학적 불균형 해소에 대한 주장은 허용됨.

## 2. 평가

- EU 사료규정 개정은 사료 유통규정이 여러 관련규정으로 분산되어 있고 EU 회원국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EU 회원국간의 수출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 EU, 6월 농업각료이사회 결과

- 2009.6.22~23일 룩셈부르크에서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낙농품 가격폭락 대처방안, 농가직불금의 미래 정책방향, 농식품 품질정책 개편, 조건 불리지역 기준개정, 복제동물제품 유통승인절차, 도축시 동물복지요건 등 폭넓은 현안에 대해 논의함.

#### 1. 낙농위기 대처

- 피셔보엘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은 우유쿼터 증량을 중단하거나 단기적으로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보다는 낙농품 수요를 진작시키고 낙농분야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견지함.

#### 2. 농가직불금의 미래

- 체코 의장국은 2013년 이후 농업보조금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편되

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실적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고, 소득을 지지하며 공공재를 공급하는 대가로서 농가 보조금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함.

### 3. 농식품 품질정책

- 회원국들은 집행위가 5월말 발표한 농식품 품질정책 논의의 내용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리적표시, TSG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함.

### 4. 조건불리지역 기준 개정

- 회원국들은 내년 1월 말까지 새로운 조건불리지역 지정기준에 따라 시물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행위에 제출하되 추가기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합의함.

### 5. 복제동물식품 유통인정 절차

- 농업이사회는 Novel food (새로운 식품)의 유통승인절차를 복제동물 식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자는데 합의하였으나, 복제동물식품의 유통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유럽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임.

### 6. 도축시 동물복지요건 강화

- 이사회는 도축장에서 동물복지 요건을 강화는 규정을 채택하면서 시행시기를 당초 2011년에서 2013년으로 조정함에 따라 2013년부터 도축전 동물복지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하며 사전에 기절시키고 즉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함.
- 또한 시설도 이에 적합하게 개선해야 하며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동물복지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함.

### ○ EU, 학교 급식을 통한 신선농산물 소비 장려

- EU의 회원국의 대부분 국가들이 과일, 채소 등 신선 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무료 공급하는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여, 2010년부터 학교 어린이들이 신선 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먹게 되어, EU 신선 농산물 소비도 촉진될 것으로 보임.
- EU는 이번 신선 농산물 학교 무료 급식 프로그램 실행에 소요되는 신선 농산물 조달 및 배송 등 관련 첫 해에만 9천만 유로 투입할 예정임.
- 시행 첫해 이니셔티브에는 EU에서 핀란드, 스웨덴, 라트비아만 등 3개 국가만이 빠지고 나머지 국가는 모두 참여하였으며, 신선 농산물 학교 무료 급식 프로그램은 EU가 입법한 Regulation (EC) No13/2009에 따라 시행됨.

○ **독일, 친환경연료 펠릿시장 증가 추세**

- 최근 독일에서는 온실효과의 주범인 CO<sub>2</sub> 발생이 적고 산성비 발생을 줄이며, 기름과 가스와는 차원이 다른 운반의 위험부담이 적은 펠릿의 난방용 사용이 일반 기름보다 늘고 있는 추세임.
- 독일 내 18개사 정도의 펠릿 생산업체가 있으며, 33개사가 판매유통 중임. 이외에 펠릿 관련 산업에 적용되는 각종 부속품 생산업체가 13개사 있음. 또한 협회 및 기관이 6개 정도 돼 각종 펠릿 관련 행사 및 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 독일 내 펠릿 수요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펠릿 자체의 판로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임.

○ **영국, 신종플루 감염확대 여파로 보호장비 수요 급증**

- 전 세계 신종플루의 감염자는 1만3,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최근 학교 한 곳에서만 50여 명이 감염된 영국은 감염자수가 184명으로 늘어 스페인을 넘어 유럽 최다를 기록함.
- 현재 신종플루를 예방하는 백신이 시판되려면 앞으로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세계 곳곳에선 항생제를 포함한 공산품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마스크, 세균제거 젤/스프레이 및 보호장비 수요증가가 예상됨.
- 특히 영국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해 이미 비축한 6000만 개의 마스크를 일반 사람들이 아닌, 환자와의 접촉이 많은 NHS병원에 공급해 대중들의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영국의 마스크 제조업체인 3M은, NHS의 비축규모 수요에 맞추기 위해 현재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음.

○ **영국, 고추 소비량 폭발적으로 증가**

- 점점 더 많은 영국 소비자들이 매운 음식 요리를 하고 있어, 신선 고추(fresh chilli pepper) 판매량이 지난 2년 동안 무려 42%나 증가하는 등 영국 고추 판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
- TESCO 고추 바이어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다양한 소비자가 고추를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영국 소비자들이 인도·태국·중국 식당 등에서 맛 본 요리들을 가정에서 직접 요리해 먹어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스웨덴, 도시 안복판에 초대형 유리온실 건설**

- 토마토를 1층에 파종한 후 회전형 나선형 구조물을 타고 올라가면서 자라게 하고 30일 후에 위층에서 수확을 시키는 식의 도심 마천루 형 유리 온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스웨덴 Plantagon사가 6.5일 공식 발표했다.

- 농지 부족으로 인해 도시에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할 필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도심에 위치한 마천루 형 유리 온실을 건설하여 도시에 필요한 신선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현재는 운송비용 및 보관비용이 신선 농산물 가격의 70%를 점하고 있는데, 도심 마천루 형 유리 온실 생산을 하면 이 분야의 신선 농산물의 원가 절약이 가능하게 됨.
- 도심 마천루 형 유리 온실은 아직 건설에 들어가진 않았으나, 북 유럽 국가 및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스웨덴 Plantagon사의 이번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영국, 소비자 신선 농산물 구매 패턴 바뀐다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 가정들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사치품으로 생각되는 수입산 열대 과일 구매를 줄이고 경제적인 전통 신선 농산물 구매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유통 식품 전문지 The Grocer는 이러한 구매 패턴은 불황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스페인, EU 과일생산 주도

- 최근 유럽의 전문 조사 통계 기관인 EUROSTAT이 EU 27개국에서 생산되는 주요 7개 과일의 생산 현황을 2007년 데이터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스페인이 EU 과일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오렌지 및 소형 감귤류의 경우, 스페인의 작부면적이 EU 내에서 가장 넓고, 생산량도 가장 많은 국가로 집계됨.

○ 스페인, 고추 농업 수출 부진. 내수가격 폭락 등 위기

- 스페인의 남동부 무르시아(Murcia) 지방의 고추 재배농가 및 수출업자 대표 기구인 Proexport는 고추가격 안정 및 농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6월말에 약 6천 내지 8천 톤에 가까운 고추를 폐기한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
- 고추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고추재배 농가는 6천만 유로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됨.
- 스페인 신선 농산물 생산 및 수출 업체연합인 EEPLEX에 따르면 스페인의 2009년 1/4분기 중 고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스위스, 소매유통시장의 녹색친환경 경영

- 스위스의 Migros는 친환경 및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스위스 내 최대 소매유통업체 및 가장 선호되는 업체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그 외에도 Coop, Denner,

Manor 등 기타 스위스 유통업체들도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비즈니스에 반영하고 있음.

- 한편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모든 사업영역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만 스위스 소비자의 인식 속에 '녹색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므로, 'Migros', 'Coop' 등 스위스 대형 소매유통업체들은 친환경 및 윤리경영의 중요성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 시에도 '지속가능성'을 중요 결정요소로 보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제품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3. 아메리카

#### ○ 미국, 캐나다와 사상 첫 유기농 기준 협정 체결

-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간의 유기농 기준 협정(organic standards equivalency agreement)이 6.17일 시카고에서 사상 최초로 체결되었음.
- 이번 협정은 미국과 캐나다 서로간의 공인된 유기농제품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6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USDA의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무역국으로 캐나다에서 소비되고 있는 80%의 유기농 제품들이 미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음.

#### ○ 미국, 유기농식품 여력이 강해

- 유기농무역협회 (Organic Trade Association)의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가정들의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식품의 구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인들은 직접 재배한 과일 및 채소 등을 포함해서 더 많은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는 유기농식품이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오는 6.18일 시카고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인 2009 U.S Families' Organic Attitudes and Beliefs 조사에서는 미국가정들은 지난해에 비해 유기농 구입이 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7%의 가정은 유기농구입에 지출한 금액이 가계소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출품목이라고 조사결과 나타났음.

#### ○ 미국, 불경기로 모종판매 급증

-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종업체 David Landreth는 올해 봄 매출은 전년에 비해 무려 75%가 상승했다고 전했으며, 미국에 많은 모종업체들은 최근 들어 수요가 폭발적인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모종판매급증의 우선적인 원인은 불경기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워지자 텃밭을 가꾸어 직접 요리를 해먹는 것이 경제적이란 것이며, 또한 계속 발생하는 살모넬라, 대장균과 같은 발병문제로 식품안전을 위해 직접 재배가 늘었다고 판단함.

○ 미국,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시스템에 만족 못해..

- 최근 미국내 식품 리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은 식품업계가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거기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최근 American Society for Quality (ASQ) 에 조사된 설문결과에서 나타났음.
- 설문결과에 의하면 1) 식품제조업자, 생산업자 그리고 유통업자들이 소비자가 부패된 식품을 섭취한 후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2) 미국의 식품리콜시스템이 그냥 보통이거나 보통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음. 3) 식품안전을 테러와 같은 수준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으로 나타났음.
- 정부의 역할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연방정부가 식품제조업체들에게 검역관을 파견하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을 믿고 있다고 말했음.

○ 미국, 불경기일수록 캔디 판매 증가

- 미국 캔디 관련 산업은 지난 4월까지 경기침체로 인해 대다수 산업이 판매 감소세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약 3.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캔디는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니므로 값싼 사치품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불경기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그리고 전문가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캔디는 가장 경기를 덜 타는 산업이며, 미국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캔디 브랜드 Snickers, Tootsie Pops 등은 대공황 때인 1930~32년에 개발된 브랜드임.

○ 미국, 로컬 오렌지 생산업체들이 수입산 과일들로 인한 경쟁심화

- 미국 로컬 오렌지 생산업체들이 점점 늘어나는 칠레에서 수입되는 복숭아와 자두와 같은 여름과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함.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네이블 오렌지로 인해 지난해 여름 캘리포니아 발렌시아오렌지가 매출에 영향을 받는데 이어 캘리포니아 네이블오렌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도 함께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전함.

- 또한 겨울 제철과일인 사과, 바나나, 오렌지가 많이 판매되어야 하는데 겨울에 공급되는 수입산 여름과일로 인해 로컬청과판매가 부진할 뿐 아니라 제철과일의 가치도 많이 하락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 미국, 수입식품 검사 더 강화한다.

-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연방식품의약국(FDA)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는 바이오 테러법의 일환이며, 식품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 통관 시에 수입업체나 증개업체가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한 것임.
- FDA에 따르면 사전 신고서를 ABI/ACS로 제출할 경우 운송물의 예상 도착일 부터 30일 이전에 해야 하며, 사전 신고서를 FDA의 PNSI를 통해 제출할 경우에는 도착일부터 15일 이전에 사전 신고서를 접수해야 함.
- 운송방식별로 제출하는 사전신고서의 최소기한은 육로로 통해 도착하기 2시간전, 철로 또는 비행기를 통해 도착하기 4시간전, 해상 항로로 도착하기 8시간전이며, 사전 신고서에는 신청자 및 전송자의 개인정보, 반입 유형 및 CBP 식별 정보, FDA 제품 코드 등 식별 정보, FDA 원산지 정보, 선적자 정보 등이 포함돼 있음.
- 이런 규정강화는 기존의 사전 신고서 절차는 유지되고, 그 이행 과정을 운송 단계에서 보다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의미임.

#### ○ 미국, 신종플루 이후 양돈농가 큰 타격

- 신종플루 발생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등 10여 개국이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계속 금지하면서 미국의 양돈업체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음.
- 정부당국과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국제보건당국이 돼지고기가 안전하다고 보장하고 있음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이 계속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보건상의 우려보다는 자국 시장내 점유율 확보를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농업시장 평가 업체인 패러건 이코노믹스의 축산경제전문가 스티브 마이어는 신종플루 발병으로 지난 4월말에서 5월말까지 돼지고기값이 하락하면서 양돈농가가 입은 손실이 8,150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음.

#### ○ 미국, 캘리포니아 체인식당 메뉴 '열빙 변신'

-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일부터 주 내 20개 이상의 체인을 갖고 있는 대형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각 메뉴에 칼로리 함량 표기를 의무화시킴.

- 이 법이 시행되자 각 레스토랑마다 웰빙을 내세우기 위해 메뉴의 칼로리를 줄이는 동시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새크라멘토 카운티 보건국의 글레나 트로켓은 “칼로리 표시제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있었지만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메뉴 자체가 바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레스토랑들이 더 낮은 칼로리의 메뉴를 개발해 제공하니 소비자들의 입맛도 건강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함.

○ 미국, 근교농산물 급속도로 성장주세

- 지난해 몇 년간 발생한 살모넬라나 E.Coli와 같은 발병, 원산지표기의 의무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농장에서 마켓까지의 거리가 짧을수록 더 신뢰하고 살수 있다는 반응이 나타나 근교에서 자라는 농산물로 눈을 돌리면서 빠른 속도로 근교농산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농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농장직영마켓의 숫자는 4,692개로 5년 전에 비해 50%이상 늘어났으며 매출액 역시 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미국, CIFOR 식중독예방을 위한 식품안전 가이드라인 발표

- 미국 CIFOR(Council to Improve Foodborne Outbreak Response: 식중독 반응 향상 자문위원회)가 식중독 발병 반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이번 가이드라인은 연방·주·로컬 정부를 상대로 발간한 자료로, 식중독이 발병했을 경우 검역·조사·통제·예방을 포함한 모든 활동범위를 설명하고 있음.
- 자문위원회의 공동의장직과 테네시주정부 전염병학자를 겸임하고 있는 팀 존스 박사는 이 자료로 인해 특히 농산물산업계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 월마트 매장 셀브 레이블에도 친환경표기 도입

- 7.15일 뉴욕타임즈는 월마트가 앞으로 일반적으로 매장 셀브에 붙어있는 가격 외에도 탄소성적표, 물의 소비량, 대기오염과 같은 친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도함.
-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이에 따라 현재 10만 여개의 공급업체들에게 제품생산과 관련한 친환경 정보를 요청할 계획임.

○ 미국, 유기농 인증기준 믿을만 안가

- 미국 유기농식품 사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USDA의

유기농 인증기준이 무분별하고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LA 타임즈가 보도함.

- LA 타임즈는 100% 유기농이 아닌 식품이나 화학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이 ‘유기농’ 마크를 달고 판매되고 있음을 밝히며, 이는 유기농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함.
- 현재 농무부는 허가된 비유기농 함유물이 5% 이하인 식품의 경우에 USDA 인증 유기농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초대형 식품업체들의 로비활동으로 인해 허가된 비유기농 첨가물의 가짓수가 77가지에서 245가지로 증가하게 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 미국, 식품안전실무단(FSWG) 식품안전계획발표

- 오바마 정부가 Food Safety Working Group(식품안전실무단)을 신설해 전국의 식품안전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조정하게 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함.
- 7.7일 실무단이 발표한 권고문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미전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때 지켜야 하는 표준을 수립할 예정임.
- FDA는 앞으로 3개월간 식품산업체들이 식품발병원인을 확인하고 식품을 추적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임.

#### ○ 미국, 이콜라이균 감염 쇠고기 추가 리콜 실시

- 미 농무부는 지난 주말 콜로라도주에 소재한 JBS-Swift Beef Company가 이콜라이(E.coli)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에 대해 총 38만파운드를 추가로 리콜조치한다고 밝힘.
- 이번 추가리콜조치는 이 회사 쇠고기와 연관돼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18명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USDA산하기관인 FSIS(식품안전검사국)가 밝힘.
- USDA는 소비자들에게 모든 갈아진 쇠고기나 쇠고기 패티는 반드시 화씨 1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조리할 것을 당부함.

#### ○ 미국, 네슬레톨하우스제품 대장균오염가능성 전제품 리콜

-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9일 네슬레 톨 하우스가 생산한 냉동쿠키 도우(반죽)가 대장균(E. coli)에 오염됐을 위험이 있다고 발표하고 섭취를 금할 것을 당부하여, 세계 최대 식품제조업체인 ‘네슬레 톨 하우스’(Nestle Toll House)가 냉동쿠키 도우 전 제품을 리콜함.
- CDC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전국 28개 주에서 적어도 66명이 네슬레 냉동

쿠키 도우를 먹은 뒤 발병 증세를 보였으며, 이 중 25명은 입원했고, 7명은 신장 손실과 만성 건강질환, 심지어는 대장균 질환으로 인해 사망까지 야기할 수 있는 용혈성 요독증(Hemolytic uremic syndrome)을 앓은 것으로 나타남.

-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네슬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냉동도우와 초콜릿칩 쿠키까지 자체적으로 리콜을 취했지만, 네슬레 쿠키가 들어간 초콜릿 베이킹 바, 코코아 혹은 드라이어스와 에디스 아이스크림 등은 리콜 명단에서 제외됐음.

○ 미국, 미래의 영양정보인증표기 ‘스마트쇼이스프로그램’

- 오는 8월부터 신선과일과 채소에도 새로운 영양정보표기를 선보이게 되는데 이를 Smart Choices Program이라고 함.
- 스마트쇼이스프로그램은 현재 미시건주에 있는 NSF International과 메릴랜드에 있는 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자체는 과학자, 공중보건, 식품산업, 건강관련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 그룹이 모여 개발한 것임.
- 스마트쇼이스 레이블이 식품포장에 표기되기 위해선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영양정보에 부합되어야만 하며 특히 신선과일, 야채, 잡곡, 저지방 유제품일 수록 스마트쇼이스레이블이 표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스마트쇼이스프로그램에 이미 참가한 식품업체는 제네럴밀즈, 켈로그, 크래프트, 펍스코, 콘아그라 등이며 유통업체로는 웨그먼스 등이 있음.

○ 캐나다, 바이오에탄올 기술

-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효소공법 기술을 보유한 Iogen Corporation은 식용이 아닌 폐기되는 곡류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식용곡물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해 곡물가격을 올린다고 질타받는 기업들과 차별화됨.
- Iogen사는 바이오매스에서 에탄올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음. 바이오에탄올 공정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1) 사전처리, (2) 효소공법, (3) 숙성단계의 프로세스로 나뉨.
- 바이오매스에서 추출한 효소를 이용한 셀룰로오스 에탄올은 환경오염 방지, 비용저감, 지역경제 발전 및 내수경제성장 등의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캐나다, 식품안전기준 강화

- 캐나다는 제품 종류의 다양함과 낮은 가격으로 인해 다양한 식료품 및 식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하지만 해마다 이어지는 북미지역의 식료품 리콜사례로 인해 현지 소비자들은 중국 등지의 저렴한 식품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대형마트들은 공급업체들에 강화된 식품안전기준 획득을 요구하고 있음.
- 식품수입은 기본적으로 캐나다식품검사국(CFIA :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에서 관할하며, 수입 시 CFIA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사항이 충족되어야 함. CFIA에서 고려하는 사항에는 수출식품의 제조시설과 환경도 포함되어 있음.

○ **캐나다, 유기농제품 새 로고 베일벗다**

- 미국과 캐나다가 양국간 유기농제품의 교역동등협정을 체결하면서 캐나다유기농제품의 새로운 로고가 나왔으며, 이 유기농셀로 인해 캐나다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인증프로그램이 갖춰졌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기농제품이 판매되려면 양국의 유기농셀이 함께 부착이 되어야 판매가 가능해짐.
- 그러나, 캐나다는 질산나트륨이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미국은 허용하고 있는 다른 점이 있으며 수경재배와 수증재배는 양국 모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

○ **페루, CDM프로젝트 역점 추진**

- 페루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국영기업, 민간기업을 통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청정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방출 감소를 추진하면서 자국산업을 발전시키고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 또한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회원국이며 교토 의정서를 비준한 바, 세계에서 CDM 관련해 가장 매력적인 투자 6개 국가 중 하나로 꼽힘.
- 페루에는 2009년 1/4분기 기준 150여 개의 84억4,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는 바, 116개의 프로젝트가 에너지 분야로서 연간 2,350만 톤의 CO2감소 효과가 기대되며 34개의 프로젝트는 조립 사업으로 연간 5,300만 톤의 CO2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자료작성 : 노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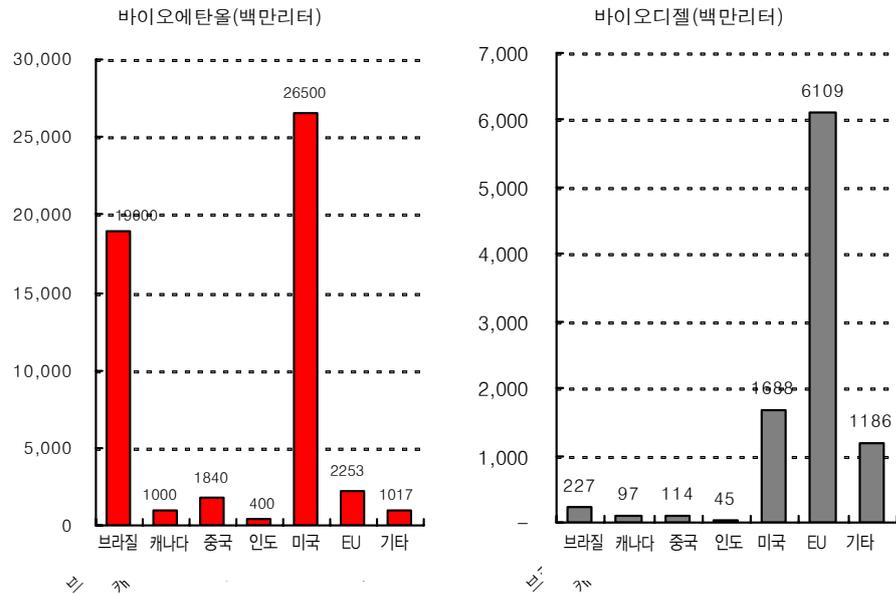
# 세계 농업 통계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세계 각국의 유기농업 현황

##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이번 달에는 에너지 자급률 제고, 농작물 수요 증가를 통한 새로운 시장 형성,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물질 감축 등을 목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를 개발하는 시점에서 세계 주요국의 바이오 연료 생산현황(2007년 기준)을 그래프로 담아보았다. 자료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OECD-FAO Aglink-Cosimo database를 참고하였다.

그림 1 주요 국가별 바이오 연료 생산현황(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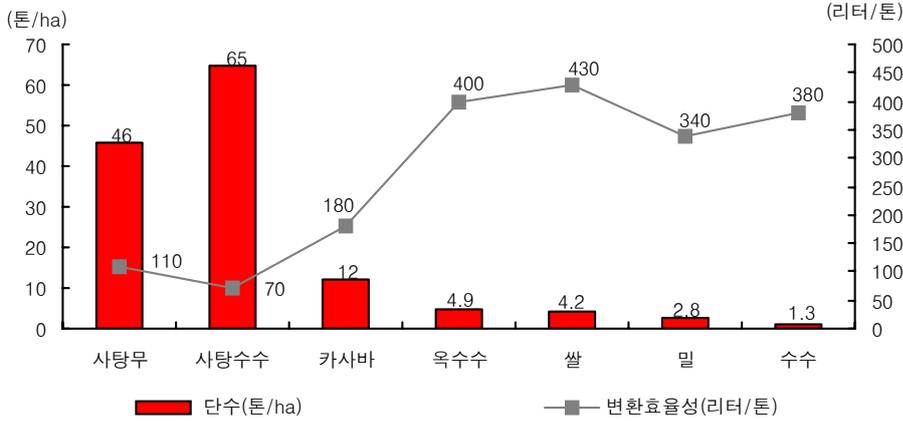
자료: OECD-FAO Aglink-Cosimo database.

2007년 기준 주요 국가별 바이오 연료 생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바이오 연료 세계 총생산량은 연간 약 622억 1,300만 ℓ이며, 이중 바이오에탄올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큰 바이오 에탄올 생산국은 브라질과 미국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며, 바이오 디젤의 경우는 EU의 생산비중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중국, 캐나다, 인도 등이 바이오 연료 주요 생산국이다.

다음으로 원료 작목별 단위면적당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을 살펴보았다. 단위 면적당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리터/ha)은 단수(리터/톤)×변환효율성(리터/ha)이기 때문에 작목별 단수와 변환효율성(conversion efficiency)도 함께 나타내 보았다. 살펴본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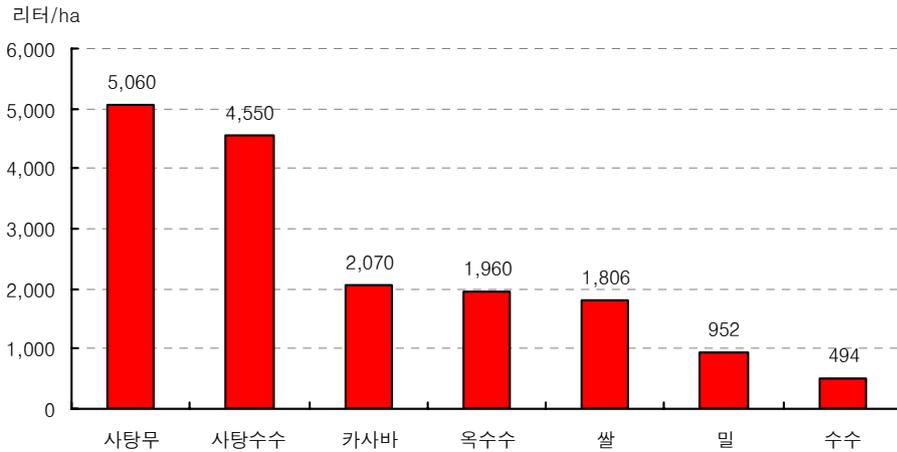
과 다양한 작물을 원료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사탕무와 사탕 수수의 단수는 다른 작물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변환효율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쌀이나 밀, 수수와 같은 단수가 낮은 작목에서

그림 2 원료 작목별 단수 및 변환효율성(2007)



자료: Rajagopal et al.,2007,for global data; Naylor et al.,2007, for national data.

그림 3 원료 작목별 단위면적당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2007)



자료: Rajagopal et al.,2007,for global data; Naylor et al.,2007, for national data.

변환효율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단수와 변환효율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단위면 적당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은 사탕무, 사탕수수, 카사바(cassava), 옥수수(maize), 쌀, 밀, 수수(sorghum)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작성자: 허정희, 노호영

## 세계 각국의 유기농업 현황

표 1 세계 각국의 유기농업 현황(2006~2007)  
Organic land, share of organic land of total agricultural area, 2006~2007.

국가	2006		
	유기농경지 면적 (ha) Organic agricultural land (ha)	순위	전체 농경지 면적 중 유기농업 비중 (%) Share of total agricultural land (%)
아프가니스탄	-	-	0.00
알바니아	1,000	107	0.08
알제리	1,550	102	0.00
아르헨티나	2,358,376	2	1.83
아르메니아	235	122	0.02
오스트레일리아	12,345,314	1	2.77
오스트리아	361,817	14	13.04
알제르바이잔	20,779	57	0.44
벨기에	29,308	48	2.12
벨리즈	1,810	100	1.19
베냉	825	109	0.02
부탄	243	121	0.04
볼리비아	41,004	44	0.11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726	111	0.03
브라질	880,000	8	0.33
불가리아	4,692	82	0.09
부르키나파소	4,038	85	0.04
캄보디아	1,451	103	0.03
카메룬	531	113	0.01
캐나다	604,404	11	0.90
칠레	9,465	68	0.06
중국	2,300,000	3	0.41
콜롬비아	50,713	39	0.11
콩고민주공화국	8,788	71	0.04
코스타 리카	10,711	67	0.37
크로아티아	6,204	77	0.20
쿠바	15,443	62	0.23
키프로스	1,979	99	1.31
체코	281,535	17	6.62
덴마크	141,019	26	5.45
도미니카 공화국	85,212	35	4.38
에콰도르	47,247	42	0.59
이집트	14,165	63	0.41
엘살바도르	7,469	75	0.57
에스토니아	72,886	36	8.79
에티오피아	112,601	30	0.35
페로 제도	253	118	8.43

표 1 세계 각국의 유기농업 현황(2006~2007) (계속)  
Organic land, share of organic land of total agricultural area, 2006~2007.

2007			Country
유기농경지 면적 (ha) Organic agricultural land (ha)	순위	전체 농경지 면적 중 유기농업 비중 (%) Share of total agricultural land (%)	
22	134	0.00	Afghanistan
77	131	0.01	Albania
1,550	107	0.00	Algeria
2,777,959	2	2.15	Argentina
336	122	0.02	Armenia
12,023,135	1	2.70	Australia
372,026	15	13.36	Austria
21,240	57	0.45	Azerbaijan
32,628	49	2.37	Belgium
1,810	104	1.19	Belize
1,488	110	0.04	Benin
57	132	0.01	Bhutan
41,004	47	0.11	Bolivia
691	118	0.03	Bosnia Herzegovina
1,765,793	3	0.67	Brazil
13,646	65	0.26	Bulgaria
7,267	80	0.07	Burkina Faso
11,350	70	0.21	Cambodia
336	121	0.00	Cameroon
556,273	13	0.82	Canada
13,564	66	0.09	Chile
1,553,000	5	0.28	China
38,587	48	0.09	Colombia
6,068	84	0.03	Congo (Democr. Rep.)
7,874	76	0.27	Costa Rica
7,647	77	0.28	Croatia
14,314	63	0.22	Cuba
2,322	101	1.53	Cyprus
312,890	16	7.36	Czech Rep.
145,393	26	5.46	Denmark
123,089	30	6.33	Dominican Rep.
49,196	43	0.65	Ecuador
14,165	64	0.40	Egypt
7,478	78	0.44	El Salvador
79,530	36	8.77	Estonia
140,305	27	0.41	Ethiopia
12	135	0.40	Faroer Islands

국가	2006		
	유기농경지 면적 (ha) Organic agricultural land (ha)	순위	전체 농경지 면적 중 유기농업 비중 (%) Share of total agricultural land (%)
피지	100	127	0.02
핀란드	144,667	25	6.52
프랑스	552,824	12	1.89
감비아	86	128	0.01
그루지야	247	120	0.01
독일	825,539	9	4.85
가나	22,276	54	0.15
그리스	302,256	16	3.64
과테말라	12,110	65	0.26
기니비사우	-	-	0.00
가이아나	109	126	0.01
온두라스	7,543	74	0.26
홍콩	12	132	-
헝가리	122,765	27	2.88
아이스란드	5,002	81	0.33
인도	432,259	13	0.24
인도네시아	40,419	45	0.09
이란	15	131	0.00
아일랜드	39,947	46	0.95
이스라엘	4,058	84	0.71
이탈리아	1,148,162	5	9.04
코트디부아르	13,311	64	0.07
자메이카	437	116	0.09
일본	6,074	78	0.16
요르단	1,024	105	0.09
카자흐스탄	2,393	95	0.00
케냐	2,898	92	0.01
대한민국	8,559	72	0.45
키르기스스탄	2,540	93	0.02
라오스	-	-	0.00
라트비아	150,016	24	8.80
레바논	3,470	88	1.05
리히텐슈타인	1,027	104	29.13
리투아니아	96,696	34	3.46
룩셈부르크	3,630	86	2.81
마케도니아	509	115	0.04
마다가스카르	9,456	69	0.02

2007			Country
유기농경지 면적 (ha) Organic agricultural land (ha)	순위	전체 농경지 면적 중 유기농업 비중 (%) Share of total agricultural land (%)	
100	129	0.02	Fiji
148,760	25	6.49	Finland
557,133	12	1.92	France
86	130	0.01	Gambia
251	124	0.01	Georgia
865,336	10	5.11	Germany
24,449	54	0.17	Ghana
278,397	19	3.35	Greece
7,285	79	0.16	Guatemala
5,600	86	0.34	Guinea-Bissau
109	128	0.01	Guyana
8,178	75	0.28	Honduras
-	-	-	Hong Kong
122,270	31	2.89	Hungary
6,229	83	0.27	Iceland
1,030,311	7	0.57	India
66,184	38	0.14	Indonesia
913	116	0.00	Iran
41,122	46	0.99	Ireland
5,693	85	1.10	Israel
1,150,253	6	9.05	Italy
943	114	0.00	Ivory Coast
437	120	0.09	Jamaica
6,626	82	0.14	Japan
1,047	113	0.10	Jordan
2,393	100	0.00	Kazakhstan
4,636	88	0.02	Kenya
9,729	71	0.52	Korea, Republic of
15,148	62	0.14	Kyrgyzstan
1,537	109	0.08	Laos
150,505	24	8.48	Latvia
1,946	102	0.50	Lebanon
1,048	112	29.68	Liechtenstein
120,418	32	4.55	Lithuania
3,380	93	2.58	Luxemburg
1,333	111	0.11	Macedonia
9,456	72	0.02	Madagascar

국가	2006		
	유기농경지 면적 (ha) Organic agricultural land (ha)	순위	전체 농경지 면적 중 유기농업 비중 (%) Share of total agricultural land (%)
말라위	325	117	0.01
말레이시아	1,000	106	0.01
말리	2,330	98	0.01
몰타	20	130	0.20
모리셔스	175	123	0.15
멕시코	307,692	15	1.83
몰도바	11,405	66	0.45
몬테네그로	25,051	50	4.84
모로코	4,216	83	0.01
모잠비크	728	110	0.00
네팔	7,762	73	0.18
네덜란드	48,425	41	2.52
뉴질랜드	63,883	37	0.37
니카라과	60,000	38	0.86
니제르	81	129	0.00
나이지리아	3,042	90	0.00
니우에	159	124	1.99
노르웨이	44,624	43	4.31
파키스탄	25,001	51	0.10
팔레스타인	641	112	0.19
파나마	5,267	80	0.24
파푸아 뉴 기니	2,497	94	0.24
파라과이	17,705	58	0.07
페루	101,677	32	0.48
필리핀	5,691	79	0.05
폴란드	228,009	21	1.55
포르투갈	269,374	18	7.32
루마니아	107,578	31	0.77
러시아(아시아 부분)	-	-	0.00
러시아(유럽 부분)	3,192	89	0.00
르완다	512	114	0.03
사모아	7,243	76	5.53
상 투메 프린시페	2,917	91	5.21
사우디 아라비아	16,000	60	0.01
세네갈	130	125	0.00
세르비아	906	108	0.02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	-

2007			Country
유기농경지 면적 (ha) Organic agricultural land (ha)	순위	전체 농경지 면적 중 유기농업 비중 (%) Share of total agricultural land (%)	
325	123	0.01	Malawi
1,540	108	0.02	Malaysia
3,402	92	0.01	Mali
12	136	0.12	Malta
175	125	0.15	Mauritius
393,461	14	2.86	Mexico
11,695	69	0.46	Moldova
25,051	52	4.84	Montenegro
3,590	90	0.01	Morocco
728	117	0.00	Mozambique
8,194	74	0.19	Nepal
47,019	45	2.46	Netherlands
65,000	39	0.38	New Zealand
70,972	37	1.33	Nicaragua
131	127	0.00	Niger
3,154	94	0.00	Nigeria
159	126	1.99	Niue
48,863	44	4.72	Norway
25,001	53	0.09	Pakistan
541	119	0.15	Palestine, Occupied Tr.
5,244	87	0.24	Panama
2,497	98	0.23	Papua New Guinea
17,705	59	0.07	Paraguay
104,714	35	0.49	Peru
15,344	61	0.13	Philippines
285,878	18	1.85	Poland
233,475	22	6.35	Portugal
131,401	28	0.89	Romania
-	-	-	Russian Federation, Asian Part
3,577	91	0.00	Russian Federation, European Part
13,356	67	0.69	Rwanda
7,243	81	7.79	Samoa
2,862	95	5.02	Sao Tome and Prince
22,215	56	-	Saudi Arabia
1,589	106	0.02	Senegal
920	115	0.02	Serbia
-	-	-	Serbia/Montenegro

국가	2006		
	유기농경지 면적 (ha) Organic agricultural land (ha)	순위	전체 농경지 면적 중 유기농업 비중 (%) Share of total agricultural land (%)
슬로바키아 공화국	120,410	28	5.71
슬로베니아	26,831	49	5.53
솔로몬 제도	3,628	87	3.10
남아프리카공화국	50,000	40	0.05
스페인	926,390	7	3.73
스리랑카	17,000	59	0.72
수단	-	-	0.00
수리남	250	119	0.28
스와질란드	No data		0.00
스웨덴	225,385	22	7.06
스위스	117,800	29	11.06
시리아	30,493	47	0.22
타이완	1,746	101	0.21
탄자니아	23,732	52	0.05
태국	21,701	56	0.12
동티모르	23,589	53	6.94
토고	2,338	97	0.06
튀니지	154,793	23	1.58
터키	100,275	33	0.40
우간다	246,767	19	1.94
영국	605,706	10	3.45
우크라이나	242,034	20	0.59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	0.00
우루과이	930,965	6	6.11
미국	1,640,769	4	0.51
우즈베키스탄	-	-	0.00
바누아투	8,996	70	6.12
베네수엘라	15,712	61	0.07
베트남	21,867	55	0.23
잠비아	2,367	96	0.01
총 계	30,723,033		0.66

2007			Country
유기농경지 면적 (ha) Organic agricultural land (ha)	순위	전체 농경지 면적 중 유기농업 비중 (%) Share of total agricultural land (%)	
117,906	33	6.27	Slovak Republic
29,322	50	6.00	Slovenia
3,628	89	4.27	Solomon Islands
50,012	42	0.05	South Africa
988,323	8	3.93	Spain
17,000	60	0.72	Sri Lanka
56,324	41	0.04	Sudan
40	133	0.04	Suriname
3	138	0.00	Swaziland
248,146	21	7.96	Sweden
116,641	34	11.00	Switzerland
28,461	51	0.20	Syria
1,746	105	0.21	Taiwan
62,180	40	0.18	Tanzania
19,123	58	0.10	Thailand
23,790	55	7.00	Timor Leste
2,545	96	0.07	Togo
154,793	23	1.58	Tunisia
124,263	29	0.49	Turkey
296,203	17	2.33	Uganda
660,200	11	3.78	UK
249,872	20	0.60	Ukraine
5	137	0.00	United Arab Emirates
930,965	9	6.23	Uruguay
1,640,769	4	0.51	USA
1,854	103	0.01	Uzbekistan
8,996	73	6.12	Vanuatu
2,441	99	0.01	Venezuela
12,120	68	0.13	Vietnam
2,530	97	0.01	Zambia
32,200,675		0.81	Total

자료: FIBL Survey 2009.

표 2. 주요 국가별 유기농가 수 (2007)  
Organic producers by country 2007, sorted by importance

국가	유기농가수 Organic producers	순위	Country
아프가니스탄	233	89	Afghanistan
알바니아	100	95	Albania
아르헨티나	1,578	56	Argentina
아르메니아	35	104	Armenia
오스트레일리아	1,438	57	Australia
오스트리아	19,997	10	Austria
아제르바이잔	312	81	Azerbaijan
방글라데시	852	69	Bangladesh
벨기에	821	70	Belgium
벨리즈	200	99	Belize
베냉	2,354	47	Benin
부탄	323	80	Bhutan
볼리비아	11,743	17	Bolivia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304	83	Bosnia Herzegovina
브라질	7,250	23	Brazil
불가리아	240	88	Bulgaria
부르키나 파소	5,808	26	Burkina Faso
캄보디아	9,350	18	Cambodia
카메룬	92	96	Cameroon
캐나다	3,782	36	Canada
칠레	550	74	Chile
중국	1,600	55	China
콩고	1,054	66	Congo (Democr. Rep.)
코스타 리카	2,921	41	Costa Rica
크로아티아	483	76	Croatia
쿠바	2,954	40	Cuba
키프로스	305	82	Cyprus
체코 공화국	1,318	60	Czech Rep.
덴마크	2,835	43	Denmark
도미니카 공화국	14,992	14	Dominican Rep.
에콰도르	221	90	Ecuador
이집트	460	77	Egypt
엘 살바도르	2,000	49	El Salvador
에스토니아	1,220	63	Estonia
에티오피아	165,560	3	Ethiopia
핀란드	3,971	30	Finland
프랑스	11,978	15	France
그루지야	49	101	Georgia

표 2. 주요 국가별 유기농가 수 (2007) (계속)  
Organic producers by country 2007, sorted by importance

국가	유기농가수 Organic producers	순위	Country
독일	18,703	11	Germany
가나	3,900	35	Ghana
그리스	23,769	8	Greece
과테말라	11	114	Guatemala
기니비사우	401	78	Guinea-Bissau
가이아나	28	107	Guyana
온두라스	1,717	53	Honduras
헝가리	1,389	62	Hungary
아이슬란드	36	103	Iceland
인도	195,741	2	India
이란	5	117	Iran
아일랜드	1,140	65	Ireland
이스라엘	283	86	Israel
이탈리아	45,231	6	Italy
자메이카	11	115	Jamaica
일본	2,463	46	Japan
요르단	13	110	Jordan
케냐	1,811	54	Kenya
대한민국	7,507	21	Korea, Republic of
라오스	811	71	Laos
라트비아	4,120	33	Latvia
레바논	190	92	Lebanon
리히텐슈타인	39	102	Liechtenstein
리투아니아	2,855	42	Lithuania
룩셈부르크	81	98	Luxemburg
마케도니아	127	93	Macedonia, FYR
마다가스카	5,455	28	Madagascar
말라위	13	111	Malawi
말레이시아	21	109	Malaysia
말리	7,526	20	Mali
말타	30	106	Malta
모리셔스	5	118	Mauritius
멕시코	128,819	4	Mexico
몰도바	121	94	Moldova
몬테그로	13	112	Montenegro
모잠비크	1,928	52	Mozambique
남비아	6,000	25	Namibia
네팔	1,424	58	Nepal
네덜란드	1,465	59	Netherlands
뉴질랜드	600	73	New Zealand
니카라과	7,407	22	Nicaragua

국가	유기농가수 Organic producers	순위	Country
니우에	61	100	Niue
노르웨이	2,611	44	Norway
파키스탄	28	108	Pakistan
팔레스타인	303	84	Palestine
파나마	7	116	Panama
파푸아 뉴 기니	4,558	29	Papua New Guinea
파라과이	3,490	37	Paraguay
페루	36,093	7	Peru
폴란드	11,887	16	Poland
포르투갈	1,949	51	Portugal
루마니아	2,238	48	Romania
러시아(유럽 부분)	12	113	Russian Federation, European Part
르완다	2,565	45	Rwanda
사모아	213	91	Samoa
상투메프린시페	1,179	64	Sao Tome and Prince
세네갈	1,306	61	Senegal
세르비아	35	105	Serbia
슬로바키아 공화국	280	87	Slovak Republic
슬로베니아	2,000	50	Slovenia
솔로몬 제도	352	79	Solomon Islands
남 아프리카	500	75	South Africa
스페인	18,226	12	Spain
스리랑카	4,216	31	Sri Lanka
스웨덴	3,028	39	Sweden
스위스	6,199	24	Switzerland
시리아	3,256	38	Syria
타이완	905	67	Taiwan
탄자니아	90,222	5	Tanzania
태국	3,924	34	Thailand
토고	4,183	32	Togo
튀니지	862	68	Tunisia
터키	16,276	13	Turkey
우간다	206,803	1	Uganda
영국	5,506	27	UK
우크라이나	92	97	Ukraine
아랍에미리트연합국	1	119	United Arab Emirates
헝가리	630	72	Uruguay
미국	8,493	19	USA
우즈베키스탄	302	85	Uzbekistan
잠비아	20,000	9	Zambia
총계	1,219,283		Total

자료: FIBL Survey 2009

표 3. 주요 국가들의 유기농 인증 기관수  
The countri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certification bodies

국가	2005	2006	2007	Country
미국	60	59	60	USA
일본	69	35	55	Japan
대한민국	1	2	33	South Korea
중국	26	32	32	China P.R.
독일	31	31	32	Germany
스페인	25	26	28	Spain
캐나다	24	21	23	Canada
브라질	18	18	21	Brazil
이탈리아	16	16	16	Italy
인도	9	11	12	India
영국	10	10	10	United Kingdom
오스트리아	9	9	9	Austria
오스트레일리아	7	7	7	Australia
폴란드	6	7	7	Poland

자료: Organic Certification Directory 2007 (Grolink 2007)

M45-107 세계농업 제107호 (2009. 7)

---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9년 7월

발 행 2009년 7월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mailto:dongyt@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